鄉土史料

第六輯

社團法人烏致院文化院

鄉土史料

第 六 輯

目　　次

發　刊　辭 …… 3

序　　文 …… 4

Ⅰ．燕岐地域 古代史料 …… 5

Ⅱ．全義周留城証 …… 21

Ⅲ．碑岩寺研究 …… 71

Ⅳ．金伊城 研究 …… 117

Ⅴ．全義地域 古代山城 …… 146

發 刊 辭

작은 고을 燕岐에서 「鄕土史料」 제6 집을 發刊하게 되니 긍지를 새롭게 느낀다.

옛날 어렵게 어렵게 「鄕土史料」 제1 집을 發刊할 때의 생각으로는 「鄕土史料」 제6 집의 發刊이란 燕岐로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아득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의 김재붕선생의 옥고만으로 「鄕土史料」 제6 집을 엮게되니 김선생에게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한편 젊은 연구자가 이어서 나오지 않으니 燕岐의 앞날이 염려스럽다. 더구나 김선생께서 내일 모레 설을 쇠시면 〈고희〉이시니 傳統의 유지 발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오래도록 심선생의 노익장을 바라는 한편 젊은 분들의 뼈를 깎는 학문의 수련과 인격의 수련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燕岐를 위하여 좋은 연구 좋은 글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오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90년 12 월

鳥致院文化院長 李 基 鳳

序　　文

지난날 여기저기 심포지움에 불려다니며 발표한 「燕岐郡의 古代史料」「金伊城 硏究」「碑岩寺의 創建」등을 묶어서『鄕土史料』제 6 집을 엮었다.

著者로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할말이 없다. 열심히 쓰고 공들여 써서 여러 식자들 앞에서 큰소리로 발표한 것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어찌 부족한 점이 없겠는가? 더구나 문제들이 하나같이 지극히 어려워 이제까지 아무도 손 대지 못한 것들이니 재주없는 나로서 완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은 한사람이라 두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의 협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바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협동을 기대하는 뜻에서 活字化하는 바이니 이점 양해 있기 바란다.

그러나 내일 모레로 다가온 설을 쇠면 〈고희〉이니 이제는 모든 일 젊은 분들에게 맡기고 조용히 물러날 일이다. 다시 향토사연구소장을 한다거나 내손으로 「鄕土史料集」을 엮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鄕土史料」를 위하여 삽화를 만들고 교정보느라 애쓴 김정현씨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1990년　12　월

연기향토사연구소에서　　金　在　鵬

燕岐地域의 古代史料

金 在 鵬

燕岐에 대하여 옛날부터 죽은 大夫는 들어오지만 산 大夫는 들어오지 않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의 뜻은 燕岐는 죽은자의 陰宅으로는 적합하지만 산 자의 陽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듣기에 대단히 섭섭한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燕岐에는 큰 양반들이 들어와 基地로 삼지는 않았지만 큰양반들이 들어와 墓를 썼기 때문에 훌륭한 神道碑와 墓碣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特記할만한 일은 鹿門 任聖周先生의 墓와 湛軒 洪大容先生의 先考 羅州牧使 櫟의 墓가 燕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鹿門先生의 墓前에는 조그만 石床이 있을뿐 망두조차 갖추지 않았고 牧使公의 墓前에는 石床과 함께 大容이 撰하고 조카 大健이 書한 조그만墓碣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 墓碣의 양쪽 側面에 錢溏 潘庭均 自筆의 挽詩가 刻記되어 있습니다.

任聖周와 洪大容은 肅宗과 英宗의 거의 같은 時代에 살았으며 두분 모두 中華依存主義를 버리고 思想의 獨立과 學問의 自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한 개성있는 學者였습니다.

朝鮮朝 500年을 통하여 卓越한 性理學者들이 구름같이 배출되었지만 主氣論에서 折衷的인 糟粕을 배제하여 主氣論 이상의 唯氣論을 大成한 이가 바로 任聖周이며 英正代에 經史에 傳通하고 律曆에 長하여 처음으로 地轉設을 主張한 이가 洪大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學問自體로써 지극히 철저할 뿐 아니라 學問的信念에 투철했던 任聖周의 「鹿門集」과 洪大容의 「湛軒書內外集」에 대한 논의도 〈史料〉에 관한 훌륭한 發表가 되겠지만 그것은 후일의 기회로 미루고 우선 내가 專業으로 하는 소위 「燕岐의 古代史」중에서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1) 史前史의 資料로써 錦江과 美湖川邊의 支石墓와 立石등의 巨石物
(2) 三國時代史의 資料로써 全義周邊의 山城群과 錦江變의 山城群
(3) 百濟末 統一新羅初期의 資料로써 碑岩寺의 창건과 燕岐의 石佛碑像

1. 錦江과 美湖川邊의 支石墓

연기군에는 錦江이 흐르고, 錦江의 支流로서 美湖川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날 孫寶基 博士에 의하여 조사된 長岐面 石壯里의 舊石器遺跡에서 가깝지만 아직은 연기군에서 舊石器遺跡은 찾지 못하고 錦江과 美湖川邊에서 15基의 支石墓를 찾아서 調査한 바 있고 기타 10여개의 立石과 男根石등을 찾아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조사라고는 하지만 내가 고고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규모 그리고 현황등 지표조사의 범위를 크게 넘지 못하였지만 조사의 결과는 조치원문화원에서 간행한 「鄕土史料」第 2 輯에 松龍里의 支石墓, 朴山里의 支石墓, 風起里 뒷고개의 支石墓, 風起里 洞口의 支石墓, 新村里 後山의 支石墓, 長在里의 支

石墓, 大平里의 立石, 月山里의 立石, 新村里의 男根石, 葛雲里의 佛面立石등의 항목을 두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 있는 일은 연기군의 錦江邊과 美湖川邊에 있는 이와 같은 支石墓와 立石의 그 소재위치와 형태등의 조건들이 「韓國考古學報」제8 輯에 發表된 金兼模교수의 「쟈바島의 巨石文化 -인도네시아巨石文化의 硏究(1)-」에서 볼 수 있는 쟈바島의 巨石文化의 조건과 너무도 많이 닮은 점이었습니다.

즉 연기군의 錦江과 美湖川의 河川流域에서 발견되는 巨石物과 쟈바島의 河川流域에서 발견되는 巨石物이 형태에 있어서나 河川에서 100*m*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보거나 너무도 비슷비슷하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卵生神話와 巨石文化의 分布圈이 겹치고 아세아에서는 거기에 水稻農業文化의 分布圈이 겹친다는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나는 金兼模교수에게 그 이전에 내가 발표하였던 拙稿「卵生神話의 分布圈」(日文)과 「新羅骨品制의 硏究」(日文)의 別刷本을 주며 세계적으로 支石墓등 巨石文化와 卵生神話의 分布圈이 겹치고 거기에 아세아에서는 水稻農業文化의 分布圈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니 검토해 보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후 한양대학교 주최로 서울에서 韓國·印度·馬來半島·인도네시아·中國·日本 학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공동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내용을 묶은 **"Megalithic Cultures in Asia"**(英文)가 1982年에 한양대학교에서 발간되었는데 결론으로써 내가 예상하였던

바 그대로 巨石文化와 卵生神話의 分布圈이 겹치고 거기에 아세아에서는 水稻農業文化가 겹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韓民族이 가진 二大神話로서 卵生神話와 天孫降下神話가 神話自體로써 어떻게 다르며 그와같은 神話들은 文化바탕이 또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이 문제로써 제기조차 되지않은 판이니 그와같은 說이 쉽게 용인될리는 없지만 앞으로〈支石墓는 韓半島에서 自生하였다〉는 견해는 〈卵生神話는 天孫降下神話와 함께 북쪽 알타이에서 왔다 〉는 견해와 함께 세계적인 視角에서 재검토되어야할 것 같고, 아세아적인 視角에서 재검토되어야 할줄 압니다. 이것은 「魏志」韓傳과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전한 新羅·加羅·高句麗의 建國神話의 검토, 그리고 錦江·美湖川邊의 支石墓등의 調査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拙稿를 發表한 바 있는 나의 주장입니다.

拙稿, 「魏志韓傳考」(「朝鮮學報」第64輯, 1972.7)

拙稿, 「卵生神話分布圈」(「韓」第19輯, 1973.7)

拙稿, 「新羅骨品制의 硏究」(「韓」第28輯, 1977.7)

拙稿, 「新羅·加羅文化의 原流」(「東亞世亞의 古代文化」第16輯, 1978.7)

拙稿, 「錦江·美湖川邊의 支石墓」(「鄕土史料」第2輯, 1985.10)

2. 燕岐郡의 諸山城과 周留城

연기군에는 北部의 車嶺山脈이 달리고 南部에는 錦江과 美湖川이

흐르고 있는데 車嶺山脈을 따라 또는 錦江과 美湖川의 흐름을 따서 여러 山城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연기군의 山城은 二群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편리한데 첫째로 北部의 車嶺山脈 속에 全義舊邑을 中心으로하여 築造된 山城群과 둘째는 車嶺山脈 南으로 錦江 東쪽에 築造된 山城群입니다.

北部의 車嶺山脈 속에 築造된 山城을 열거하면 車嶺山脈을 따라 天原郡의 慰禮城, 聖居山城, 黑城山城에 이어서 연기군의 (1) 高麗山城 (2) 高山山城 (3) 龍子山城 (4) 全義鄕校뒤의 土城 (5) 李城 (6) 鵲城 (7) 金峴城 (8) 한치마城등이 있고 車嶺山脈 南으로 錦江 東쪽을 따라 築造된 山城은 (1) 唐山城 (2) 出東山城 (3) 黃牛山城 등이 있고, 여기에 충북 청원군의 芙江의 넓바위山城(廣石城),梅浦 구둘기山城, 文義 양성山城등이 이어져서 報恩의 三年山城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같은 山城들에 대한 地表調査를 20여년전에 마친 일이 있고, 다시 10여년전에 이와같은諸山山城들의 周·高·幅등을 實測하여 그 結果를 「鄕土史料」第 2 輯과 第 3 輯을 통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位置圖와 實測圖를 保管하고 있습니다.

北部의 車嶺山脈 속에 築造된 山城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와같은 山城들은 山脈의 奧地에 築造된 것은 하나도 없고 全義舊邑을 通過하여 山脈의 南과 北을 잇는 舊街道에서 至近한 距離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같은 山城들은 北의 稷山에서 南의 公州를 잇고 儒城을 잇는 舊街道를 손바닥 보듯이 굽어보는 山頂에 築造되

었습니다.

이들 山城이 築造된 목적을 蓋鹵王이 漢山王都에서 高句麗軍에게 잡혀서 죽고 文周王이 南來하여 公州로 移都한 475年 이후 公州王都의 守護를 위하여 築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부연해 보면 全義舊邑은 公州의 北쪽 28㎞ 의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일 高句麗軍에 의하여 山脈 속의 全義舊邑을 돌파당하게 되면 公州王都가 위험했기 때문에 全義舊邑의 둘레에 여러개의 山城을 築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周留城의 위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60년 8월에 羅唐軍의 공격으로 扶餘王城이 함락되고 이어서 公州城도 함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義慈王과 太子인 隆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唐軍에 잡혀서 唐으로 끌려갔지만 百濟軍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百濟復興을 위하여 羅唐軍과 싸웠습니다. 660년 9월부터 663년 8월까지 계속되었던 이 전쟁에 있어서 百濟軍의 근거지로써〈周留城〉의 이름을 전하고 있지만 〈周留城〉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지 못해서 어떤이는 舒川郡 韓山의 乾支山城을 말하고, 어떤이는 全羅北道 扶安의 邊金岩山城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周留城〉을 燕岐·全義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唐軍이 錦江을 따라 공격하여 扶餘王城을 함락시키고, 熊津城 을 점령한 목적이 唐이 몇번인가 北으로 高句麗를 공격하다가 번번이 실패한 끝에 高句麗의 南쪽에 第二戰線을 만들어 北과 南에서 高句麗를 협공하고자한 戰略이었기 때문에 唐

은 泗沘都督府를 두지 않고 熊津都督府를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熊津都督府의 唐軍은 660年 9월부터 663年 8월 〈周留城〉이 함락될 때까지 陸路로 北上하여 南에서 高句麗를 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陸路로 北上하여 南川州 (利川)의 新羅軍과 연계를 맺지 못했고, 北漢山州 (서울)의 新羅軍과 또한 연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熊津都督府의 唐軍이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치자면 그 陸路는 熊津나루를 건너 儀堂面으로 통하였는데 그 陸路는 全義를 통과하여야 하고, 또한 熊津나루를 건너 長岐面으로 통한 길이 있지만 그 길 역시 燕岐·全義를 통과하여야만 北上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周留城〉이 함락되기까지 熊津都督府의 唐軍이 熊津나루를 건너 江北에 뚫린 이와같은 편리한 길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百濟軍이 燕岐·全義의 諸城을 근거로 하여 唐軍의 北上을 강력히 沮止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熊津都督府의 唐軍은 錦江의 안쪽에 있는 儒城·大田方面, 鎭岑·思津方面의 百濟城들을 함락시킨 일은 일지만, 끝내 江을 건너 燕岐·全義方面의 百濟城을 공격한 흔적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熊津王都時代에는 熊津王都를 방비했던 燕岐·全義의 諸城들이 熊津都督府에 대하여서는 逆으로 熊津을 포위한 諸城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江을 건너 燕岐·全義의 諸城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고 熊津都督府의 唐軍은 熊津을 떠나 牙山灣으로 돌아서 白石浦로 北陸하여 北에서 南으로 全義의 諸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周留城〉의 싸움에 대하여 「三國史記」를 비롯하여 「新·舊唐書」, 「日本書紀」에 전하지만 많은 군대와 함께 豊王을 귀국시킨 日本의 「日本書紀」에는 "高句麗에서 군대의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日本에서는 군대를 파견하여 疎留城을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熊津都督府의 唐軍은 高句麗의 南界를 칠 수 없었고, 新羅는 西쪽에 있는 熊津의 唐軍에게 물자를 수송할 수 없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때 日本의 군대가 근거지로 한 〈疎留城〉(소루잣) 이 熊津北 25*km*, 全義南 3*km*에 위치한 松城里 뒷산의 〈솔재〉(松城)이며, 이 〈솔재〉(松城)가 一名 金伊山城이라고 하며 全義地區의 南端에 위치하여 熊津에 가장 가까운 大城일 것입니다.

日本에서 돌아온 豊王은 필연코 日本군대와 같이 全義地區의 南端에 위치하여 熊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疎留城〉에 머물면서 熊津으로부터 北上하는 唐軍의 길을 막고, 〈疎留城〉에서 燕岐의 諸城과 연계하여 新羅의 수송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燕岐의 諸城은 錦江을 따라 錦江 東쪽 唐山城 - 出東山城 - 黃牛山城 - 구둘기山城으로 이어진 諸山城들입니다.

全義周邊의 諸山城들이 全義鄕校뒤의 土城을 중심으로 하여 正北에 高麗山성이 있고, 正東에 高山山城이 있고, 正南에 鵲城·金伊城·한치마城이 있기 때문에 全義를 中心으로 하며 〈두루재〉라고 할 수 있고, 또한 高麗山城 - 鄕校뒤 土城 - 鵲城 - 金伊城 - 한치마城의 6개山城이 正子五線上에 位置하였기 때문에 〈줄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周留城〉의 표기를 〈두루재〉 혹은 〈줄재〉

로 표기한 것을 보아도 周留城은 全義에 해당된다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燕岐郡에 있는 山城들에 대한 조사와 그 山城들의 歷史的인 뜻과 역할에 대하여 대체로 이상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周留城〉에 대한 韓·中·日의 諸使書에서 뽑은 〈資料集〉과 〈燕岐全義周留城 考證〉이라는 論考를 國文과 日文으로 써서 發表하고 刊行한 바 있습니다.

拙稿,「周留城の位置と 白村江」(日本·東京)

拙稿,「燕岐地區古蹟調查報告書」(全義篇)(全義古蹟保存會刊 1981. 9)

3. 碑岩寺와 燕岐石佛碑像

燕岐郡 全義面 多方里에 옛부터 "三韓古刹"이라고만 전해 내려오는 古寺가 있습니다. 燕岐郡에서도 碑岩寺가 있는 全義면 多方里는 가장 외진 곳이기 때문에 자연히 寺勢가 빈약해서 거의 廢寺가 되다시피 방치되었던 쓸쓸하기 짝이 없는 山寺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 7월부터 다음해의 7월까지의 사이의 碑岩寺를 중심으로 燕岐郡에서는 稀貴한 石佛像 7具가 發見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같은 石佛像들에 대하여는 그 石佛像들 自體에 대하여 또는 이 發見의 경위에 대하여 黃壽永先生이「韓國佛像의 硏究」에서 자상히 설명하였고, 그 중의 瑞光庵眞牟氏千佛碑像에 대하여는 泰弘燮先生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7具의 石佛像들이 碑岩寺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2㎞ 의 범위를 원위치로 한 점이 燕岐郡으로서 주목되며 딴곳에서는 일체

발견되지 않는 점이 또한 주목됩니다. 그리고 7具중에서 3具에 刻記銘이 있어서 이 7具의 石佛像은 "燕岐石佛碑像"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石佛像들은 현재 다음과 같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碑岩寺石佛像3具〉

(1)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國寶 第106號, 國立淸州博物舘所藏)

(2) 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佛(寶物 제367號 〃)

(3) 阿彌半跏思惟石像(寶物 第368號, 〃)

〈鳥致院附近에서 發見된 石佛像 3具〉

(4) 瑞光庵三尊千佛碑像(國寶 第 108호, 國立公州博物舘所藏)

(5) 蓮花寺戊寅銘半跏思惟三尊石像

(6) 蓮花寺無銘阿彌陀砣石像

(以上 2具는 西面 月河里 蓮花寺所藏)

(7) 正安面三尊石像(東國大學校博物館所藏)

7具의 石佛碑像중에서 현재 燕岐郡에 남아있는 것은 2具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2具에 대해서도 서울로 가져가고자 서울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現所有主인 曺昌禮할머니의 완강한 고집으로 燕岐郡에 남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燕岐의 石佛碑像들은 石佛像自體로서 重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史料로서 刻記銘이 重要할 것입니다.

(1) 癸酉銘 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刻記銘

◎ 前面

全氏□□述況□□二兮□□同心敬造 阿彌陀佛 像觀音大世 像大□道□□上爲□□願敬造□佛像此□此石佛像 內外十方 十六□

□ (字經約 1㎝)

◎ 側面 (向右)

□□癸酉年四月十 口兮乃末 □□□首 全氏道推 □發願敬 □供爲□彌次 乃□正乃末 全氏□□「□等□五」十人 智識共 國王大臣及七世父母含靈等願敬造寺智識名記(以上上面11行과中央1行)

達率身次願 眞武?? □□□□ 木□??願(以上秦樂 像下에 名1行씩 計4 行)

◎ 側面 (向左)

歲次□□年四月十五 日爲諸□敬造次石 諸□(以上3行은 中央에 刻記)

□□□」使眞公 太□□願 道作公願(以上4行은 各秦樂隊側下)

◎ 後面 (各段向右像부터)

(第一段) 上次乃末」 三久知乃末」 □免??願(上段向左 二像不明)

(第二段) □□??願」 夫信??大(以下不明)

(第三段) 大乃末願」 □久??願」 惠信師

(第四段) □夫乃末願」 「林□乃末願」 惠明法師」□□道師(以下1行不明)

(2) 瑞光庵三尊千佛碑像 刻記銘

(向右側)

歲在癸酉年四月十五日□

徒釋迦及諸佛菩薩像造

石記 是者爲國王大

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

(向左側)

造之 番徒名彌次乃眞

牟氏??上生?? 仁次??□

宣??賛不?? 式使??□□

□??□□等二百五十人 (字經 1.2㎝)

(3) 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像刻記銘과 (4) 蓮花寺戊寅銘四面石像 刻記銘은 省略함.

이와같은 刻記銘自體의 檢討로서 우선은 碑岩寺가 673년 4월 15일을 기하여 전씨(全氏?)가 주동이 되고, 거기에 眞氏와 木氏가 協助하여 百濟의 핵심적인 이 3姓이 百濟의 滅亡後 宗廟를 대신하여 百濟의 歷代王과 忠義大臣 그리고 國末에 죽은 많은 靈을 뫼시고자 碑岩寺를 짓고 훌륭한 佛像을 만들어 施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黃壽永선생께서 그 石佛들을 조사하면서 앞으로의 課題로 남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燕岐라는 하나의 地域的인 特殊性 및 造像施納者로서 造成당시에 이곳을 根據로 했던 一團

의 有力者 즉, 眞牟氏와 木氏등의 成分과 그들의 政治的 社會的 背景까지도 石床樣式의 時代的 特徵과 더불어 考察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黃壽永선생의 이와같은 말씀은 黃선생과 함께 처음으로 碑岩寺에 오셔서 이들 石佛像을 조사하신 恩師 故 李弘稙선생께서도 하셨고, 또한 故 洪思俊선생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李선생과 洪선생께서는 燕岐郡出身인 나에게 이 문제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新羅史에 매달려서 몇가지 論文을 發表한 바 있었지만 그후 百濟史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碑岩寺를 창건하고 石佛像을 施納한 眞牟氏와 木氏, 그리고 全氏(余氏)에 관한 硏究에 全力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百濟史를 쓸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日本古代史를 다시 쓸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을 뿐 아니라 馬韓史를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論文들은 「三國史記」만이 史料가 된 것이 아니라 中國側 史書와 함께 主로 「日本書紀」가 史料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論文들은 거의 日本學界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馬韓史의 硏究와 百濟史의 硏究라고 하면서 史料로써 어째서 「日本書紀」가 主로 되었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日本書紀」의 根本史料가 소위 百濟三書로서 「百濟記」·「百濟新撰」·「百濟本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百濟記」는 近肖古王부터 蓋鹵王의 死去까지의 百濟 眞氏家의 記錄이며, 「百濟新撰」은 毗有王의 卽位부터 武寧王의 卽位때까지의 百濟 眞氏家의

記錄이며, 「百濟本紀」는 武寧王의 治世途中부터 威德王의 卽位까지의 百濟 眞氏家의 記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馬韓時代의 辰王家의 後身이 百濟時代의 眞氏이며, 「宋書」가 전하는 5 세기초부터의 倭의 五王 즉 讚·珍·濟·興·武가 百濟 眞氏의 하나의 갈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百濟 眞氏家의 記錄을 근본적인 史料로 하여 8 세기의 日本의 國家主義的인 史書로서 「日本書紀」를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百濟史의 史料로써 그리고 馬韓史의 史料로써 「日本書紀」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百濟 眞氏家의 記錄을 근본적인 史料로 하였다고 하지만 이와같은 記錄들은 극단적인 國家主義的인 立場에서 극단적으로 換骨脫胎한 것이기 때문에 원모습으로의 복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三國史記」百濟本紀를 위시하여 「日本書紀」를 史料批判하여 다음의 論考들을 發表한 바 있습니다.

拙稿, 「日本上代紀年の硏究」(「朝鮮學報」第63輯)

拙稿, 「好太王碑文の 敍法と解釋」(「朝鮮學報」第66輯)

拙稿, 「好太王碑文と日本國家の 起源」(「韓」第27輯)

拙稿, 「百濟 眞氏와 任那問題의 本質一應神天皇의 出自一」
(「東朝아시아古代文化」第6號)

그리하여 1986년에 黃壽永 博士와 秦弘燮 博士와의 共著로「燕岐石佛碑像의 硏究」라는 冊子를 燕岐郡 刊으로 發刊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黃壽永, 〈忠南燕岐佛像調査－百濟遺民에 의한 造像活動〉

Ⅱ 秦弘燮, 〈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對하여〉

Ⅲ 金在鵬, 〈百濟眞牟氏에 관한 硏究〉

Ⅳ 〃 , 〈百濟木刕氏에 관한 硏究〉

Ⅴ 〃 , 〈百濟解氏에 관한 硏究〉

4. 燕岐의 百濟大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碑岩寺는 673년4월15일을 기하여 백제 유민들에 의하여 창건되었습니다. 그리고 碑岩寺의 창건과 함께 훌륭한 부처도 시납되었으며 그 부처에 새겨진 명문은 백제의 임금님들과 忠義大臣들 그리고 國末에 죽은 많은 분들의 靈을 이곳 碑岩寺에 함께 뫼셔서 받든다는 뜻입니다.

이와같은 일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아도 660년 8월에 扶餘王城에 있었던 宗廟社稷은 王城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었으니 673년 4월당시 百濟遺民들이 어찌 宗廟社稷을 대신하여 역대 국왕과 忠義롭던 大臣들과 七世父母 그리고 國末에 죽은 많은 분들의 靈을 함께 뫼실 수 있는 寺刹의 창건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뜻을 오늘에 헤아리며 매년 4월15일을 기하여 연기군에서는 군민의 행사로 碑岩寺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향을 〈백제대제〉하고 합니다.

세조년대가 아닌 세종년대에 직산에 온조묘를 건립하여 춘추로

제향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 온조묘는 임진의 왜란에 소실되고 그후 숙종조에 재건하였다는 기록은 있지만 곧 인멸되어서 자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백제분들이 남긴 전통으로서의 백제의 제향을 받들고 있는 곳은 연기군 뿐이니 연기군으로서는 이 전통을 앞으로 영원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全義周留城考証

金 在 鵬

머 리 말

百濟史의 硏究에는 앞으로 解決을 기다리는 허다한 問題가 있지만 그중에는 周留城에 관한 問題가 있습니다. 특히 百濟史를 主体的으로 把握하고 敍述하려고 할 때 百濟는 第三十一代 義慈王 二〇年 八月二日에 있었던 降伏儀式(1)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第 三十二代 豊王四年九月에 있었던 周留城陷落(2)으로 끝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豊王의 王都였던 周留城이 問題가 되는 것이며 한편으로 泗沘王城陷落後에 百濟軍에 의하여 활발히 展開됐던 羅唐軍에 대한 抗戰의 根據地로써 任存城과 함께 周留城이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중에서 任存城만은 禮山 大興에 있는 任存城임이 확실하지만 불행히도 정작 豊王의 王都였던 周留城은 그렇지 못해서 硏究家에 따라 어떤이는 全羅道古阜에 있었던 城일 것이라하고 어떤이는 錦江下流의 乾支山城이라하고 어ㄷ ㄴ이는 庇仁城과 大德郡 鎭岑에 있는 産長山城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國內外의 硏究家들이 애써 硏究하고 그 結果를 發表한 것은 周留城의 問題가 비단 百濟史로써 重要할 뿐 아니라 新羅史 · 唐史日本史로써도 重要한 問題이기 때문이겠지만 아직까지도 決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勿論 이제까지 硏究發表한 분들은 한결같이 그方面의 碩學大家들이니 삼가 所說을 傾聽하여야 하겠지만 그분들의 高見에도 周

留城에 관한 諸史料의 取扱과 解釋에 있어서 無理가 없는 바도 아닌것 같으니 그분들의 所說에 대하여 檢討하면서 全義周留城에 관한 鄙見을 披攄코자 합니다. 따라서 本稿 第一部는 주로 旣往의 諸學說에 대한 檢討가 되겠고 第二部는 주로 鄙見의 披攄이 되겠습니다.

第 一 部

(一)今西龍博士의 古阜說에 대하여

今西龍博士는 그의 「周留城考」(未定稿[3])에서 周留城은 全羅道 古阜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根據는 三國史記의 다음의 記事에 보이는 古泗比 또는 古泗를 古阜의 古地名인 古眇未里로 본 것입니다.

太宗八年春二月. 百濟殘賊來攻泗沘城. 王命伊湌品日爲大幢將軍. ……往救之. 三月五日.至中略. 品日麾下軍. 先行,豆良尹(伊)城南. 相營地. 百濟人望陳不整.猝出急擊不意, 我軍驚駭潰北. 十二日,大軍來屯古沙比城外.進攻豆良尹城,一朔有六日. 不克. 夏四月十九日,班師. ……(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八年三月条)

羅王春秋奉詔. 遣其將金欽. 將兵救仁軌等. 至古泗. 福信邀擊敗之. 欽自葛嶺道遁還.新羅不敢復出(三國史記 新羅本紀 義慈王 (龍朔元年)

今西博士는 이러한 記事에 보이는 古泗比城 또는 古泗를 三國史記 地理志의 「古阜郡 本百濟古眇夫里郡. 景德王改名.……」에 보이는 古眇夫里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古泗夫里 즉 古阜에 古泗比城 또는 古泗城이 있

고 그 가까이에 豆良尹城 또는 豆良伊城이 있는 것일까. 앞서 引用한 記事에 「來屯古泗比城外 進攻豆良尹城」이라고 하였으니 古沙比城과 같은 方面에 豆良尹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今西博士는 自身이 말하듯이 古阜附近에 古沙比城이 없고 豆良尹城이 없습니다. 즉 輿地勝覽에 「斗升山在郡東五里 一云都順山. 有古石城周一万八百十二尺. 跨于大 壑疑瀛州時舊城也」에 보이는 斗升城이 豆良尹城 또는 豆陵伊城이 訛한 것이라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無理가 있고 무엇보다도 古沙比城이 없을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理由로 周留城을 古阜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是月唐人伐高麗. 高麗乞救國家. 仍遣軍將. 據疎留城. 由是唐人不得略其南堺. 新羅不獲輸其西壘 (日本書紀 元智元年条)

여기에 보이는 疎留城이[4] 또한 주류성을 意味한 것인데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唐人들이 그들의 當時의 根據地인 泗沘 · 熊津으로부터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新羅가 西쪽에 있는 城에게 物資를 輸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古阜方面에 있었다는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泗沘 · 熊津의 唐軍이 묶여서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칠 수 없었고 新羅는 果然 그들 때문에 物資를 泗沘· 熊津으로 輸送할 수 없었던 것일까. 當時의 狀況으로 보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新羅로부터 泗沘 · 熊津으로 通하는 輸送路를 今日의 秋風嶺 - 黃澗 - 永同 - 沃川의 線을 擇하든 또는 尙州 - 報恩 - 大田의 線을

擇하든 尙州 - 淸州 - 鳥致院의 線을 擇하든 멀리 相距된 古阜에 周留城이 있었다면 그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이러한 輸送路가 直接的으로 威脅받고 遮斷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더구나 그 百濟軍 때문에 泗沘-熊津의 唐軍이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치지 못할 理由가 없었을 것입니다.

勿論 古阜에 있었다는 所謂 周留城의 百濟軍이 攻擊해올까봐서 泗沘·熊津의 唐軍이 泗沘·熊津을 비우고 北上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想定도 있겠지만 그러한 想定과는 달리 龍朔元年(661) 六月에 泗沘의 劉仁願은 긔의 領兵을 이끌고 泗沘에서 海路로 鞋浦까지 가서 上陸, 南川州에서 新羅軍과 合流하여 北上 高句麗遠征에 從軍한 적이 있는데 當時 周留城성이 今西博士의 주장같이 古阜에 있었다면 劉仁願이 領兵을 이끌고 陸路로 가깝게 南川州로 갈 것이지 멀리 海路를 擇하여 迂回했을 理가 없는 것입니다.

龍朔元年六月 唐高宗皇帝遣將軍蘇定方等. 征高句麗. 入唐宿衛金仁問受命來告兵期. 兼諭出兵會伐. 於是文武大王率庾信·仁問·文訓等. 發大兵向高句麗. 行次南川州. 鎭守劉仁願以所領兵. 自泗沘泛船. 至鞋浦下陸. 亦營於南川州.…(三國史記 列傳 金庾信傳)

결국 이런 점으로 미루어 周留城은 新羅로 부터 泗沘·熊津에 이르는 通路라느니보다 輸送路인 大田·儒城·連山方面이나 아니면 熊津北으로서 大田·儒城方面과 가까워서 兩地區를 쉽게 連繫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今西博士의 周留城古阜說의 發想은 周留城이 古沙比城 또는 古沙城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점과 古沙 또는 古泗가 古阜의 古地名인 古眇夫里와 通하는 점이겠는데 古沙라는 地名이나 山名 또는 城名이 許多하니 古沙夫里를 쉽게 周留城에 結付시켜서 古眇夫里 즉 古阜에 周留城이 있었다거나 고부가 周留城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要컨데 古阜는 新羅로 부터 泗沘 · 熊津에 이르는 緊要한 輸送路로는 볼 수 없을 쭌 아니라 그러한 緊要한 通路나 輸送路를 威脅하고 遮斷할 수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泗沘 · 熊津의 唐軍을 묶어서 陸路로 北上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百濟軍의 根據地가 南으로 멀리 相距한 古阜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白江 또는 白村江은 邊山半島 方面이라는 그의 比定이나 豊王이 一時 移都했던 僻城이 碧骨堤 즉 金堤라는 說도 成立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二) 李丙燾博士의 韓山說에 대하여

李丙燾博士는 周留城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敍述하였습니다.

福信 · 道琛등은 劉仁軌가 到着한다는 情報를 듣고 任存城으로부터 南下하여 周留城 (韓山)에 據하고 熊津江口 (白江)沿岸에 兩柵을 세워 新來의 劉仁軌軍이 泗沘城의 劉仁願軍과 合勢하는것을 阻止하려고 하였다. 한편 泗沘城에 대한 攻擊도 再開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上陸한 劉仁軌는 來援한 新羅軍과 合勢하여 古沙比城 (古沙浦=錦江下流의 對岸인 沃講)을 根據로 하여 周留城에 대한 攻擊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百濟軍은 羅唐軍을 大敗시키었고 敗北한 新羅軍은 本國으로 撤歸하였다. 이에 劉仁軌도 周留城의 攻擊

을 中止하고 泗沘城을 向하여 百濟의 攻略을 받고 있는 劉仁願軍을 救出한 것 같다. 이 때문에 泗沘城을 攻擊하던 百濟軍은 물러가서 任存城으로 歸還할 수 밖에 없었다.(5)

李博士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周留城을 舒川郡 韓山에 比定하고 古沙比城을 錦江河口南인 沃溝에 比定했습니다. 그렇게 比定한 理由는 그도 今西博士의 方法과 같이 古沙比城과 周留城은 같은 方面에 近接해 있었는데 沃溝를 古沙浦라고 한데 根據를 두고 沃溝는 古沙浦이니 周留城은 결국 古沙浦가ㄲ、이 그 對岸인 韓山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周留城이 韓山이었다면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新羅에서 泗沘 · 熊津에 이르는 輸送路가 막힐 理가 없고 泗沘 · 熊津의 唐軍이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攻擊하지 못할 理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檢討한 古阜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뿐아니라 古沙比城과 함께 豆良尹城이 크게 問題된 것은 六六一年 武烈王十二年二月頃인데 이즈음 福信의 軍隊에게 攻擊을 받고 있던 泗沘城을 救援코자 新羅는 救援軍을 派遣한 것입니다. 이 大軍은 勿論 徐羅伐을 出發하여 泗沘로 向한 것인데 그 中路에 이르러(至中路), 古沙比城外에 陣을 치고 豆良尹城을 攻擊하다가 이기지 못했다니까 마땅히 古沙比城과 豆良尹城은 徐羅伐과 泗沘의 中間 즉 中路에 있었던 것이지 泗沘以西 멀리 沃溝나 韓山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沃溝나 한산은 徐羅伐에서 泗沘로 가는 길에 있는게 아니라 泗沘를 지나 멀리 西쪽에 떨어져 있으니 百濟軍에게 包圍되어 危機一髮의 지경에 있었던 泗沘留軍을 救援코자 徐羅伐을 떠난 新羅軍이 泗沘를 버

려두고 沃溝와 韓山으로 갈 理가 없는 것입니다.

되풀이 되지만 徐羅伐로부터 泗沘로 가는 中路에 古沙比城과 豆良尹城이 있었지만 徐羅伐부터 古沙比城과 豆良尹城으로 가는 中路에 泗沘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博士의 周留城 卽韓山說은 成立되기 어렵지만 한편 沃溝나 韓山은 古來로 肥沃한 農耕地帶로 알려 졌으니 周留卽州柔에 대한 다음과 같은 說明과 너무나 乖離된다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此州条者. 遠隔田畝, 土地碑确. 非農桑之地 . 是拒戰之也. 此焉久處. 民可飢食 ·今可遷於僻城 (日本書紀 天智紀)

州柔는 田畝가 멀고 土薄하여 農桑之地가 못되고 拒戰之場으로 適合할 뿐이니 오래 있다가는 百姓을 굶주리게 하겠다고 王都를 一時僻城으로 옮긴 것인데 果然 沃溝와 韓山이 土薄한 磽确의 땅으로 믿고 農桑之地가 못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引用한 三國史記 太宗八年条에

三月十二日 大軍(新羅軍)來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尹城.一朔有六日. 不克.…

이라는 句節이 있는데 이 경우의 古沙比城을 沃溝로 보고 豆良尹城을 韓山으로 보면 沃溝에서 渡江하여 韓山을 攻擊한 셈이 되니까「進攻豆良尹城」이 아니라 의당히「渡攻豆良尹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日本의 津田左右吉 · 池上宏博士가 周留城을 錦江下流右岸인 舒川에 比定하고 李丙燾博士가 그렇게 比定했지만 그렇게 比定하게된 理由는 周留城이 당시 日本과 海上으로 緊密히 連繫되었으니 錦江河口나 河口에서 가까운 곳에서 周留城의 要港을 찾아야 했을 뿐 아니라 古沙比城의 古沙와 通하는 地名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古沙浦(沃溝)를 古沙比城으로 比定하고 沃溝의 對岸인 韓山의 乾支山城을 豆良尹城 즉 周留城으로 比定함으로써 所謂 古沙城도 찾고 그에 適合한 港口도 찾은 셈이지만 그것으로 이 問題를 解決했다 거나 解決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韓山이나 沃溝나「……州条設置山險 盡爲防禦 山峻高而谿隘」(日本書記 天智紀)이라는 說明과는 걸맞지 않는 平野地帶로써 有數한 農桑之地이기 때문입니다.

(三) 池憲英敎授의 庇仁과 鎭岑說에 대하여

今西博士나 李丙燾博士 그리고 池內博士나 津田博士가 한결같이 古沙比城의 古沙에 注目하여 그것과 通하는 古眇夫里(古阜)에 周留城이 있었다고 하고 古沙에 注目하여 沃溝라고 한것은 以上 檢討한 바로 充分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뿐 아니라 당시 日本과 빈번한 海上交通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여 海岸에 가까운 古阜를 생각하고 沃溝를 생각했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 두가지 점은 滿足시켰지만 결국 周留城의 百濟軍 때문에 新羅로 부터 泗沘 · 熊津에 이르는 輸送路가 直接 威脅을 받고 斷切되어야했다는 諸史書의 記錄을 說明하는데 未及했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周留城의 問題解決에 未及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旣往의 諸學說을 批判하면서 새롭게 周留城의 問題에 挑戰한 분이 池憲英敎授입니다.(6)

池敎授는 旣往의 諸學說과는 달리 周留城을 하나로 보지 않고 둘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의 周留城은 泗沘以西의 舒川郡 庇仁面 邑內里에 比定하고 또하나의 周留城은 大德郡岑鎭 의 産長山城에 比定하였습니다. 이렇게 敎授가 두군데의 周留城을 생각하게 된 出發은 이제까지의 旣往의 諸學說을 檢討한 過程에서 充分히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諸史書의 檢討로 얻어지는 結論이 周留城은 첫째로 港口에서 가까워야 하고 둘째는 熊津以東 즉 江東에 뻗은 新羅의 輸送路를 쉽게 威脅할 수 있고 遮斷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相反되는 두가지 条件을 갖춘 하나의 周留城을 찾는 대신 두군데의 周留城을 생각하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敎授는 港口인 周留城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습니다.

이와같이 考察해 내려옴으로써 周留城은 熊津江→白江→ 白江口 밖에 位置한 港灣이며 同時에 「山峻高而谿深」한 城塞이었던 것이 밝혀진 셈이다. 그리고 周留城은 津田左右吉 · 池上宏 博士들의 論文들이 歸納한 바와 같이 白江(錦江)의 右岸(舒川郡)에 位置하고 있음은 다시 呶呶할 나위도 없겠다.

이리하여 이에 列擧한 모든 条件을 充分히 滿足시킬 수 있는 城砦는 舒川郡庇仁面邑內里의 月明山城·庇仁邑城·(地名「ㄷ리」 「ㄷㅅ리」 이 있을 뿐이다. 即 舒川郡庇仁面邑內里 · 城北里의 庇仁邑城(周3505尺 石築)을 包含한 觀寂谷山城 (750間 石築) · 佛堂谷山城(700間 石築)

城北山城 (200間 土築)等 一圓의 遺趾가 바로 周留城(「豆率」「州条」)에 該當된다. 白沙로 덮친 이 周留港(庇仁海水浴場一圓)은 百濟復興郡의 다른 하나의 基地였던 任存城(大興)의 南部海港으로써 全羅道·日本方面으로의 連絡港이기도 했었으리라. 또 周留港(周留城)은 漁鹽 특히 소금의 供給地로서의 구실을 兼했을 것으로 忠南內部 沿岸地域과 全北一部地域과의 海陸物産의 貿易基地이기도 했었을 것이다. 이 庇仁城一圓은 「日本書紀」의 所謂「遠隔田畝 土地磽确 非農桑之地 是拒戰之場」과도 符合되는 것이니 「日本書紀」에 보이는 「王城」趾도 庇仁城地域에서 調査發掘될 것은 勿論이다. ……(7)

이와같은 敎授는 庇仁面一圓을 周留城에 比定하였는데 이것은 앞서의 津田·池內·李博士의 沃溝·韓山說과는 달리 몇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古沙比城의 古沙에 通하는 地名을 海岸地帶에서 찾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周留城에 關係되는 古沙比城은 泗沘以西의 海岸地帶에 있을 까닭이 없고 新羅와 熊津·泗沘의 中路에 있었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敎授의 이러한 比定에도 問題가 없는 바도 아닌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첫째로 日本書紀는 州条 즉 周留에 대하여 比較的 詳細히 敍述하여 傳하고 敎授도 몇차례 그것을 授用하였는데 果然 庇仁이 周留였다면 그 周留의 形勝으로써 가장 重要한 바다에 面한 緊要한 要港이었다는 점을 빠뜨렸을까 理解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敎授는 江東의 鎭岑에 또 하나의 抗戰基地로서 周留城을

比定하였는데 熊津·泗沘를 中心한 錦江流域의 輸送路가 周留軍에 의하여 占據당한 당시에 本百濟의 西端과 東端으로 멀리 相距된 두 抗戰基地로써의 庇仁과 鎭岑의 周留城이 相互間 兵員과 物資供給을 위하여 圓滑迅速한 連繫를 가질 수 있었을까 疑問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이제까지 위에서 몇번인가 言及했지만 始終 泗沘·熊津의 唐軍을 묶어서 陸路로 北上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主抗戰基地가 古阜나 韓山일 수 없듯이 庇仁이나 鎭岑方面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한편 內陸 江東의 鎭岑에 周留城이 있었고 그 周留城이 産長山城이라는 敎授의 主張自体에도 問題가 없는 바도 아니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먼저 敎授는 三國史記 地理四 三國有名 未詳地名分条의 「支羅城 或云周留城」을 無視하거나 默殺할 수 없다고할 뿐 아니라 이것을 積極的으로 活用하여 다음과 같은 같은 圖式[8]를 그렸습니다.

支羅城(百濟本紀 / 舊唐書) = 周留城(三國有名 / 未詳地名)……(1)

豆良尹城(新羅本紀) = 周留城(文武王報書)……(2)

* 豆良尹城 = 支羅城……(3)

다음에 「支羅城」이 「産長山城」이라는 바를 대략 다음과 같은 徑路[9]를 밟아 풀이하였습니다.

(1) 나다 (出生)……디흘리고(古語)는

(2) deru (出了, 日本語)……del-lo(誕生하다 出現하다 蒙古語)와 對應
(3) 現在는 “지리다”(活動例 오줌을 지린다)로 殘存한다.

* 支羅城(지라재 卽지리재) = 産長山城

* 周留城 = 支羅城 = 産長山城

敎授에 의한 考証의 經過가 재미있는 것이라고 믿기는 하나 그 考証의 大前提가 된 「支羅城 或云周留城[10]」의 史料價直부터를 敎授와 같이 斷定的으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産長山城이란 地名의 「産」이 果然 古語「지리라」(産, 出) 의 意譯인지 아닌지 그리고 「長」은 어떤 古語의 意譯인지 아닌지 어느 한쪽으로 斷定지울 수 있을만치 確實性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 「지리재」에 대한 意譯이 「産長山城」이라고 하나 그렇다면 「産山城」또는 「出山城」이면 足할 것인데 구태어 「長」을 겹드린 理由를 알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점 敎授는 現地에 돌고있다는 「……이 『解産바위』(生産바위)의 『解産』『生産』으로 因하여 『産長山』이라는 特異한 地名이 돌아났다는 地方民의 諺傳 (地名綠起傳說)」을 紹介하고 있지만 그런 것만으로 풀어질 「産長」이 아닌 것 같고, deru라는 日本語나 del - lo라는 蒙古語는 몰라도 韓國語로써는 現在 「오줌을 지린다」와 「지린내」등 좁은 範圍에서 使用되는 이 語彙가 가령 「애를 낳다」라고 하는 대신 「애를 디흘리고」「애를 지린다」등으로 널리 使用되어 「産」「出」의 槪念을 카바할 수 있었던 時代가 있었다고 斷定할 수 있을지 疑問이라고 하겠고 무엇보다도 「디흘리고」가 「지리다」의 原語라고 斷定할 수 있을지 疑問이 아닐수 없습니

다.「디흘리고」는 처음부터 「짓흘리고」라는 말이 아닌지 그리고 「지리다」는 처음부터 「滲出」의 뜻이 아닌지 생각해 볼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敎授는 그가 紹介한 「黃山 連山 」→支石院 (鎭岑面松亭里·「輿地勝覺」卷十八鎭岑縣「院宇」条)→眞峙→城北里→城峙(産長峴)→周岩(주리바위)→玉山→吾山院→儒城縣→文義」[11]의 路順에서 「眞峙」(질티)의 「眞」(질)과 「周岩」 (주리바위)의 「周」(주리)가 「지리」「지라」와 通하는 「産」「出」의 뜻이니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方面의 「産長峴」(산정이재) 역시 「지리재」「지라재」 라는 原名을 意譯表記한 것으로 본데서 「支羅城 = 産長山城 = 周留城」이라는 斷定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周岩」의 「주리」는 실제로는 「두리」로써「産」「出」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 「周」「圓」의 뜻이며, 「辰峙」의 「眞」(질)도 「지리」「지라」 즉 敎授가 생각나는 「産」「出」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長」의 뜻이며,「産長峴」의 「産」도 「産」「出」의뜻이 아니라 그대로 城南의 「송정」 (松亭)에 대한 城山의 「산정」의 「산」의 音表記로 볼 수 없다는 理由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松亭里에서 城北里로 넘어오는 고개길이 길고도 길기 때문에 「진티」「질티」의 呼稱이 비롯된 것이며 「바위」(岩)가 「해산바위」로써 섬겨지기 以前에 또는 섬겨지는 以後에 그 두리두리한 形態에 의하며 「두리바위-주리바위」 (周岩)의 呼稱이 비롯된 것으로 보는 편이 自然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燕岐郡錦南面大平里에서 東으로 壺灘里를 거쳐 大朴里로

넘어가는 고개가 「질재」이며 그 고개길에 位置한 마을이 「질재마을」 즉 「長在洞」인데 이 경우도 고개길이 실지로 길고도 길어서(全長約十里) 「질재」의 呼稱이 비롯된 것이지 「오래산다」또는 「오래 있다」 따위의 딴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淸原郡南二面猪山里의 恩積山城(성재) 西麓에 「산정이」또는 「산정이골」이라고 하는 區域(現在 田)이 있는데 이것은 이 山城에 所屬된 「營」이 있었던 자리임이 確實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개 山城밑에 「정」(「井」또는 「亭」으로 表記됨. 新羅 proper에서는 「停」으로 표기」이 붙은 洞名이나 區域名은 「營」의 所在地였으니 恩積山城下의 「산정이」「산정이골」도 「산정」이라는 呼稱을 가졌던 「營」의 所在地였음이 거의 確實하니 鎭岑의「산성이재」도 「산정」이라는 呼稱을 가졌던 「營」의 所在地名임이 거의 確實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産長峴」으로 쓰지만 實地發音은 「산장이재」라고도 하고 「산정이재」라고도 하는 이 경우의 「長」도 「정」(보통「井」또는 「亭」으로 表記) 音의 表記일 뿐 元來가 「生長」의 뜻인 「長」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디ㅏ.

新農山城 新豊面山亭里公州西北24K 周 200間 新豊縣城 (洪思俊 「百濟城址硏究」(百濟硏究) 第二輯所收)

新農山城이 所在한 山亭里의 「산정」(山亭)역시 山城밑의 마을로써 往년에 「산정」이라고 呼稱되었던 「營」의 所在地였음이 確實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정」도 鎭岑의 「산정이재」의 「산성」과 같고 恩積山城下의 「산정이골」의 「산정」과 같은 名稱의 「營」의 所在地였다고 보아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燕岐郡全東面蘆長里는 俗稱 「雲住山城」과 俗稱「望京山城」의 南麓에 있는데 이 경우의 노정(蘆長)도 元來 「營」의 名稱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蘆長」의 「長」(정)은 「營」으로서 「정」音을 「長」으로 表記한 앞서의 「産長峴」의 「長」 (정)과 같은 例[12]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支羅城=産長山城」이라는 等式이 애매하며 「産長山城=周留城」이라는 等式이 또한 애매하다고 하겠습니다.

× × × ×

이제까지 檢討한 旣往學說중 今西 · 津田 · 李丙燾 등 諸家는 周留城의 比定硏究의 基礎作業으로 古沙比城에 對應하는 「古沙城」을 찾아 이것을 論証의 第一 前提로 한 것은 위에서 보아온 바 입니다. 그래서 古阜의 古地名 古眇夫里 또는 沃溝의 古地名 古沙浦 등의 「古沙」를 不動의 基點부터 設定하려고 한 것은 方法的으로 나무랄 점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三國史記 編纂時 이미 有名未詳地名으로 處理된 「支羅城 或云周留城」이라는 것을 確固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것을 論証 第一段階의 第一前提로 삼았을뿐 아니라 言語學者간에는 論爭거리는 될 만한 「디흘리고」「지리다」라는 古語에 「産」「出」의 뜻이 있다는 알송달송한 主張을 論証 第二段階의 第一前提로 삼은 것은 것 보기에 그 論証이 아무리 精緻하게 보일지라도 方法부터 再考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百의 假設을 百의 假設로 論証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입니다.

(四) 周留城은 熊津의 北

以上 周留城의 問題에 관한 旣往의 論文들을 檢討해보았는데, 대체로 周留城을 泗沘 · 熊津의 南이나 西에 그 位置를 比定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近代에 와서 이 問題를 集中的으로 다른 日本學者들이 周留城에 대한 日本의 支援이 百濟에 대한 義理때문에 日本이 主体的으로 行한 支援이었다고 본데서 周留城의 位置를 될 수 있는대로 日本에 가까운 곳에 比定하려는 傾向이 있었기 때문인데, 日本學者들의 이러한 傾向과 前提는 마땅히 是定되어야 할것입니다.

仁軌又上表曰……階下若欲殄滅高麗, 不司棄百濟土地,余豊在北,余勇在南, 百濟·高麗舊相党樹, 倭人雖遠亦相影響, 若無兵馬, 還成一國, 旣須鎭壓,……伏惟階下旣得百濟, 欲取高麗, 須外內同心, 上下濟奮, 擧無遺策, 始可成功云云 (舊唐書八十四 劉仁軌傳)

泗沘 · 熊津의 陷落後 百濟에 대한 支援의 主役은 발등에 불이 붙었던 高句麗였는데, 이것은 上揭 劉仁軌傳의 「百濟 · 高麗舊相党授」이라는 句로서 알 수 있고, 支援의 助役은 「倭人雖遠亦相影響」이라는 句로서 알 수 있듯이 바다건너 멀리 떨어져 있었던 日本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특히 留意할 것은 泗沘 · 熊津을 陷落시켜서 占領하고 있었던 것은 唐帝國의 水陸軍과 新羅國이었는데 이러한 强大한 相對에 대하여 日本이 高句麗의 保障이 없고, 支援이 없는데도 百濟에 대한 義理만으로 主体的으로 百濟에 海外派兵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볼 問題입니다.이점에 대하여서는 그당시 몇차례

인가의 隋·唐의 連續的인 大侵攻을 막아냄으로써 隋·唐에 못지않은 不敗의 軍事力을 保有한 것으로 認識되었던 高句麗의 保障과 積極的인 支援이 없었던들 日本으로서 百濟에 海外派兵하여 支援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할 것인데, 이런 것을 傳해주는 것이 앞서의 「百濟·高麗舊相党授倭人雖遠亦相影響」이라는 句일 것입니다.
즉 「百濟와 高句麗는 예부터 서로 무리를지어 援助하고, 倭人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影響한다」고 한 것이니 高句麗가 積極的으로 支援하고, 거기에 倭人이 도와 支援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앞서 引用하였던 日本書紀 天地元年条에 傳하는 바 疎留城에 日本이 軍將을 派遣한 것도 百濟의 要請에 의한 것이 아니라 高句麗의 要請에 의한 것이라고 明証하고 있습니다.
즉 「高麗乞 救國家(日本)仍遣軍將據疎留城」이라고 하였으니 高句麗가 日本에 支援을 要請했고, 그 要請에 의하여 日本에서 軍將을 派遣하여 疎留城을 根據로 하였다는 것입니다.따라서 日本軍將이 根據로 한 疎留城은 高句麗의 支援을 받을 수 있고, 高句麗와 緊密히 連繫를 取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疎留城의 日本軍과 百濟軍 때문에 泗沘·熊津의 唐留軍이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攻略할 수 없었고 新羅가 西에쪽으로 泗沘·熊津에 物價를 輸送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니 이 疎留城은 일단 泗沘·熊津의 北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上揭 劉仁軌의 上表文에 「余豊在北, 余勇在南」이라는 句가 있는데, 余豊은 扶余豊으로서 日本에서 돌아와서 百濟王

이 되었던 豊王이 分明합니다. 그리고 豊王이 있었던 곳이 周留城이며, 臨時의 王都였는데, 그 豊王이 「在北」이라고 傳하고 있습니다. 勿論 「余豊在北, 余勇在南」이라고만 하였으니, 이 경우의 「北」과 「南」은 相對的인 것이어서 確言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豊王이 百濟에 있었을 때에 劉仁軌도 百濟에 있었고, 劉仁軌가 熊津都督으로서 이 上表文을 制作하여 올린 것은 필경 熊津都督府 였으니 「余豊在北, 余勇在南」은 劉仁軌가 있었던 熊津都督府를 本位로한 「北」과 「南」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余豊과 余勇이 이끄는 百濟軍과 日本軍이 泗沘 · 熊津의 南에만 있었다면, 당시의 漢江流域에 있었던 北漢山州와 南川州의 新羅軍과 泗沘 · 熊津의 唐留軍과의 諸般의 連繫가 完全히 斷切될 까닭이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泗沘 · 熊津의 南에 있는 余豊과 余勇이었다면 分明히 熊津都督府에 있었을 劉仁軌와 上表文에서「余豊在北」「余勇在南」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周留城에 關한 史料로서 三國史記 · 日本書紀 · 新舊兩唐書 · 資治通鑑등이 있지만 當時的記錄을 尊重하여야한다는 史學의 原則에서 볼 때 舊唐書 劉仁軌傳의 上表文을 第一의 史料로 看做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余豊在北, 余勇在南」이라고 記錄되어 있으니 余豊 즉 豊王이 있었던 周留城은 熊津의 北에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要컨대 당시의 狀況은 泗沘 · 熊津을 占領하고 있었던 唐留軍의 南에 余勇이 있고, 北에는 余豊이 있었는데 그 북에는 다시 新羅의 北漢山州와 南川州가 있었고 그 뒤에는 高句麗가 있어서 이러한 戰線들이 서로 牽制하여 그 樣相이 지극히 複雜했던 것입

니다.

第 二 部

(一) 周留城의 条件과 全義地區

第一部에서 旣往의 諸學說과 함께 史料의 大体를 檢討한 結果로써 周留城의 比定에는 다음과 같은 条件이 붙는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周留城은 熊津의 北에 있었다.

둘째, 西海에 要港이 있고 그 要港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야 한다.

셋째, 江東의 儒城地區와 鎭岑地區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아서 緊密히 連繫가 되어야 하고 抗戰의 一大據點이었던 任存城과도 쉽게 連繫가 可能한 곳이어야 한다.

넷째, 所謂 周留城이라고할 때 그것은 孤立된 한개의 城이 아니라 近接해서 한 地區에 鼎立한 몇개의 城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諸史料에 보이는 古沙城은 勿論 豆良尹城 (豆良伊城)·豆率城등에 대하여서도 說明이 可能한 곳이어야 한다.

다섯째, 周留城의 百濟軍으로써 泗沘·熊津方面의 唐軍이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치고 新羅軍으로 하여금 泗沘·熊津으로 輸送하는 길을 쉽게 遮斷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몇가지의 条件을 充分히 充足시킬 수 있는 곳으로 全義地區를 듯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全義地區로부터 牙山灣까지는 七〇里가 가깝고 全義地區로부터 儒城地區 역시 七〇里를 크게 넘지 않으니 모두 步行一日의 距離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京釜線鐵道가 開通되기 까지는 全義를 中繼地로 하여 儒城方面의 物山을 牙山灣의 白石浦로 나

르는 것을 「全義앞배기」라하고, 牙山灣의 白石浦의 物産을 全義를 中繼地로 하여 儒城地區로 나르는 것을 「아산뒷배기」라고 하였으니 이런 特異한 말이 오늘날까지 남은 것으로 보아서도 牙山灣과 全義地區와 儒城地區의 緊密했던 往年의 關係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이 京釜線과 湖南線이 開通되어 일개의 寒村이었던 「한밭」이 交通都市로써의 「大田」으로 크게 發展하기 이전에 中部地方의 物産의 集散地였던 儒城에서 物産을 陸路로 芙江이나 熊津으로 運搬하여 錦江의 船便에 옮겨싣고 錦江河口로 나와 西海를 크게 迂回北上하며 서울麻浦로 가는 것보다 陸路로 二日間에 全義經由 牙山灣의 白石浦에 到着 船便으로 서울로 가는 편이 몇배 수월하고 크게 時日을 短縮할 수 있음은 말할나위도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全義西쪽의 「차령고개」로부터 禮山大興의 任存城까지는 東에서 西로 곧게 내뻗은 車嶺巨脈의 主嶺으로 完全히 이어지고 主嶺을 따라 間道가 兩地區를 이었으니 왠만한 健脚이면 하루에 充分히 오갈 수 있는 距離여서 安全하게 連繫를 가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牙山灣을 中繼地로 하여 間接的으로 連繫를 맺을 수 있으니 이런 點을 看過해서는 안되겠습니다.

要컨대 全義로부터 牙山灣이나 儒城에 짐실은 소바리가 하루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距離이며, 任存城이 또한 왠만한 健脚이면 하루에 오갈 수 있는 距離이니 앞서 列擧했던 周留城 比定의 条件중에서 첫째 条件과 둘째 条件은 充足될 수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하겠습니다.

(二) 大興任存城과 全義高山城

車嶺의 巨脈속에 形成된 몇개의 溪谷으로 된 全義地區는 그 自体가 四面을 둥글게 四〇〇米高地의 險한 峻嶺으로 包圍된 自然의 要塞地인이지만[13] 車嶺巨脈은 이 全義地區를 唯一한 關門으로 하여 南과 北의 交通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全義地區는 周圍四面이 險한 峻嶺으로 包圍되어 있지만 北으로 하나의 出入口가 있어서 이 出入口를 通하여 天安三巨里를 거쳐 廣州 · 서울 方面으로 北上할 수 있고 또한 案山灣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西南方으로 少西六個里를 거쳐 金砂里에 出入口가 있어서 公州를 經由하여 湖南地方으로 通하고, 南으로 난 出入口로는 松城里－지경고개(五萬分之一地圖에는 「솔티고개」로 됨)－生千里－双流里－燕岐里를 거쳐 儒城 · 大田으로 通합니다.

이러한 出入口는 車嶺山脈의 北과 南의 交通을 許諾하는 거의 唯一한 關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연해서 말하면 멀리 五台山부터 뻗은 車嶺山脈이 西海까지 달려서 半島中部를 南北으로 크게 二分하는데 全山脈중에서 山脈의 南과 北을 거의 平坦한 安全한 길로[14] 이어주는 곳은 全義地區뿐이기 때문입니다. 勿論 全義地區에서 車嶺山脈의 南과 北을 이어주는 이러한 平坦하고 安全한 길은 山脈이 달리다가 이곳에서 갈리고 休하였다가 다시 起하여 回하고 旋하다가 複雜無雙하게 얽히고 설킨 險한 峻嶺 사이 사이의 狹谷에 通한 길이지만 이러한 길이 比較的으로 平坦해서 車嶺의 南과 北의 交通을 이 地區에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二十世紀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車嶺山脈의 南과 北을 잇는

主要幹線鐵道와 國道가 直接 全義邑의 北과 南으로 트인 狹谷을 通過하고 二次的인 幹線道路 (天安三巨里－小井里－차령고개－公州廣亭－公州, 天安三巨里－竝州－淸州)가 全義邑의 外廓가까이를 通過하고 있습니다.

漢山慰禮城(廣州)에서 高句麗軍의 攻擊을 받아 蓋鹵王은 죽고(475년), 文周王이 熊津으로 遷都하면서 高句麗는 稷山·安城地區를 포함한 天安以北까지의 平野地帶를 點據하였으니 麗濟의 國境線은 車嶺山脈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百濟는 熊津北의 車嶺山脈에서 高句麗勢力을 막아야했고 특히 車嶺山脈속에 形成된 自然의 要塞地이며 동시에 山脈의 關門이기도한 全義地區에서 막아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王都를 泗沘로 옮긴 後는 특히 禮山大興地區에서 막아야했던 것입니다. 만일 高句麗軍에게 全義地區를 突破당하게 되면 그 南方七〇里에 位置한 熊津王都가 危險하고 禮山大興地區를 突破당하게 되면 直接 그 南方七〇里에 位置한 泗沘王城이 危險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地域에는 熊津王城(公山城)보다도 훨씬 規模가 크고 泗沘王城(羅城)보다도 越等히 堅固하게 構築된 山城이 있었으니 車嶺山脈의 西편 關門의 守門將格인 任存城과 東편 關門의 守門將格인 全義의 高山城입니다. 與地勝覽의 全義縣篇과 大興縣篇에 의하여 두 山城의 規模를 살펴보고 다시 이것을 熊津王城인 公山城의 規模와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高山城	周5,132尺	井3	石築
任存城	周5,194尺	井3	石築

公山城　　周4,850尺　　井3　　石築

規模에 있어 高山城이 公山城보다 282尺이 더 있고, 任存城이 344尺이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任存城은 高山城보다 周長으로 62尺가 더 있을 뿐이니 두 山城은 거의 같은 規模의 双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 山城을 이어주는 것은 東에서 西로 곧게 뻗은 標高400~500米의 車嶺巨脈의 主嶺입니다.

高山城은[15] 標高460*m*의 山亭에 堅固하게 構築된 것이지만 그 特色은 周5,132尺의 山城이 콤파스로 그린듯이 거의 完全한 円型으로 둥글고 全義邑쪽으로 한군데 絶壁새로 뚫린 水口가 山城의 唯一한 出入口입니다. 그리고 円型으로 된 山城內部는 巨大한 盆地로써 넓은 밭과 논이 있는데 어떠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는 일이 없어서 1977년 5月末의 酷甚한 가뭄으로 美湖川물이 말라서 白沙場이 되고 錦江도 거의 물이 끊길 때도 이山城內의 논에는 물이 넘쳐서 水口를 通하여 全義邑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直接 보았습니다. 與地勝覽에는 「井三 今發 」라고 傳했지만 方形石築의 옛샘에는 그 가뭄에도 맑은 물이 괴여 넘쳐흐르고 있었으니 물이 흔한 山城으로써 稀有한 例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高山城의 또하나의 特徵은 高山城下 東쪽에 난 고개길(고소재고개)건너에는 望京山이 솟고 그 山頂에는 望京山城이 있어서 完全히 複式으로 된 점입니다. 이것은 任存城의 경우도 같아서 그 건너의 月城과 함께 複城을 이루고 있습니다.

(三) 疎留城과 全義松城

앞서 周留城은 熊津北의 全義地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全義地區에 앞서 問題삼았던 疎留城이라는 山城이 있어야하는데, 그 疎留城은 熊津北十七㎞의 地點이며, 全義縣南西㎞未滿의 距離에 있는 「솔재」(松城)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山城밑의 挾谷으로 儒城方面에서 全義邑을 거쳐 北上하는 舊街道가 트이고, 한편 熊津에서 全義邑을 거쳐 北上하는 舊街道도 이 山城밑으로 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山城을 百濟軍이 장악하고 있는 한 熊津에 있는 唐軍은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攻略할 수 없고, 이 山城에서 燕岐唐山城이 3㎞ 程度로 가깝고, 年忌唐山城에서는 錦江건너의 儒城地區의 百濟山城과 쉽게 連繫할 수 있으니 이 山城을 百濟軍이 지키고 있는 한, 新羅가 西쪽에 있는 熊津·泗沘의 唐軍에 支授物資를 輸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 「疎留城」을 日本書紀에서는 「ソルのサシ」라고 읽는데, (サシ)는〈잣〉(城)에 대한 日本人의 發音이며,〈ソル〉는〈솔〉에 대한 日本人의 發音에 틀림없습니다. 이와같은「疎留城」(ソルのサシ)라는 山城名이「솔재」(松城)라는 山城名과 一致할뿐 아니라 이 山城을 百濟軍이 지키고 있는 한, 熊津의 唐軍이 北上하여 高句麗南界를 攻略할 수 없고, 新羅가 西쪽에 있는 泗沘·熊津의 唐軍에 物資를 輸送할 수 없는 것입니다.

現在 全義에서는 縣東八里에 있는 「高山城」(고소재)을 雲住山城이라 하고, 縣南八里에 있는 「솔재」(松城·疎留城)를 金

伊城이라고 하는데, 東國輿地勝覽全義条 에는 縣南八里에 있는 山峯을 雲住産으로 明記하였으니, 縣東八里에 있는 山城을 「雲住山城」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要컨대, 앞서 살펴본 劉仁軌의 上表文에 「余豊在北」이라고 明記되어 있는 그대로 豊王은 熊津北에 있었던 바가 確實하며, 다시 熊津北 20余㎞ 地點인 車嶺山脈속의 全義地區를 根據로 하고 있었던 바가 確實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儒城地區나 公州地區에서 北上하려면 반드시 全義의 「솔재」(松城)밑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日本에 派遣한 軍將이 根據로 하고 있었다는 「疎留城」은 全義縣南八里에 있는 「솔재」(松城)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솔재」는 城南인 燕岐縣과 城北인 全義縣의 境界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이 山城을 「燕岐山城」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山城을 現地에서는 「솔재」라고 하지만, 城南인 燕岐地區 또는 熊津地區에서는 이 山城을 「두잉이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즉 燕岐縣에 대한 本百濟時代의 古地名인 「豆仍只」(두잉지)縣[16]이기 때문입니다.

百濟殘敵來攻泗沘城.……中略……往救之. 三月五日. 至中路. 品目分麾下軍, 先行豆良尹 一作伊 城南. 相營地. 百濟人望陣不整. 猝出急擊不意. 我軍驚駭潰北. 十二日. 大軍來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尹城. 一朔有六日. 不克. 夏四月十九日. 班師

羅王春秋奉詔. 遣其將金欽將兵救仁軌等. 至古泗. 福信邀擊敗之. 欽自葛嶺道遁還. 新羅不敗復出 (百濟本紀 義慈王)

여기서 보이는 「古沙比城外」「古泗」, 그리고,「豆良伊城南」

등이 問題가 되는데, 이것은 全義의 「高山城」(고소재)과 全義의 「솔재」(松城)를, 新羅軍 이 城南인 燕岐地區 (具体的으로 現在의 鳥致院과 全東의 갈거리方面)에서 攻擊하다가 失敗한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古沙泚城外」는 全義縣東八里에 있는 「고소재」의 바깥쪽으로서 今日의 全東갈거리쪽이며, 「豆良伊城南」은 「豆陸伊城南」으로도 表記되는 것이니, 이것은 「豆仍只城南」에 대한 異記로서, 具体的으로 西面双流里와 生川里(俗名〈燕岐솔티〉)쪽입니다. 「高山城」(고소재)는 全義縣東八里의 距離이며, 「松城」(솔재)는 全義縣南八里의 距離이기 때문에, 高山城과 松城과는 8里의 距離입니다. 그리고 이 두 山城은 거의 같은 높이의 460米의 山頂에 舊築된 堅固한 山城인데, 두 山城은 400米以上의 險峻한 山脈으로 이 어지고, 한군데 狹谷이 全義縣의 水口인 동시에 出入口가 되어있기 때문에 「高山城」(고소재)나 「松城」(솔재)를 城南인 全東 갈거리쪽이나 西面双流里 生川里쪽에서 攻擊하기는 甚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要컨데 三國史記에서 問題되는 「古沙泚城」은 田衣의 「高山城」(고소재)이며, 「豆陸伊城」(두능이재)·「豆良伊城」(두량이재)는 「豆仍只城 (두잉이재)에 관한 異記로서, 具体的으로 現地에서는 「솔재」(松城)一日本書紀에서는 「疎留城」(ソルのサシ)라고하는 山城을 城南인 燕岐地區·熊津地區등에서 稱한 名稱으로 解釋되는것입니다.

이러한 山城들은 南에서 攻擊하다가 크게 失敗한 新羅軍과 唐軍은 결국 全義地區인 北인 牙山·天安地區로 迂回하여 南으로 攻擊하게 되는데 여기 대하여는 뒤에서 言及하겠습니다.

(四) 豆率城과 道隆城

六六三年 龍朔三年五月부터 開始된 羅唐軍의 周留城總攻擊에 관한 諸史書의 記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至龍朔三年 總師孫仁師 嶺兵來府城 新羅兵馬赤發同征 至行周留城下 此時倭國兵船 來助百濟 先破岸津 周留實膽 遂卽降下(文武王報書)

詔遣右威衛將軍孫仁師 率兵四十万 至德物島 王領金庾信等 二十八(一云三十) 將軍與之合 攻豆陵 一作良尹城 周留城 等諸城 皆下之(三國史記 文武王三年五月条)

龍朔三年癸亥 百濟諸城潜圖興復 其渠師據豆率城 乞師於倭爲援助 大王親率庾信・仁問・天存・竹旨等將軍 以七月十七日征討,次熊津州 與鎭守劉仁願合兵 九月十三日.至于豆率城 百濟人與倭人出陣 我軍力戰 大敗之 百濟與倭人皆降 (三國史記列傳 金庾信傳)

周留城의 名稱은 文武王報告書에서는 「周留城」이라하고 新羅本紀에는 「豆陵 一作良尹城」「周留城」이라하고 列傳 金庾信傳에서는 「豆率城」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研究家 들은 「周留城」「豆陵尹城」「豆率城」등이 모두 같은 하나의 城에 대한 하나의 名稱을 異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新羅本紀에 「周留城」과 「豆陵一作良尹城」을 列擧한 것은 잘못이며 「豆率城」도 「周留城」의 名稱에 대한 異表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果然 「豆率城」(두솔성)이 「周留城」 (주류성)의 異記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豆率城」은 다음의 記事에 보이는 「道薩城」 (도살성)에 대

한 異記이면 異記였지 「周留城」(주류성)에 대한 異記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飡異斯夫 出兵擊之. 取二城 增築 留甲士一千戍之(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十一年正月条)

이와같은 內容의 記事가 高句麗本紀陽原王六年条 · 百濟本紀聖王二十八年条에도 보이는 것으로써 蓋鹵王末年에 高句麗에게 빼앗겼던 漢江流域의 故土를 回復코자 臥薪嘗膽하나 聖王은 그의 卽位二十八年(550년)에 北上하여 高句麗가 지키고 있던 道薩城을 陷落시키니 高句麗는 逆襲하여 百濟의 金峴城을 친 것입니다. 그리하여 兩軍이 싸워서 지친틈에 新羅軍이 옆에서 뛰어들어 두 城을 빼앗았다는 內容인데 道薩城과 金峴城에 대하여 李丙燾博士는 「道薩城」(天安?)「金峴城」(全義?[17])이라하여 斷定을 避하고 있지만 이 경우 天安과 全義가 言及된점이 注目됩니다.

漢山慰禮城 (廣州)에서 蓋鹵王이 죽고 文周王이 熊津으로 移都한 以來로 高句麗는 稷山方面까지의 百濟領土를 點據하였으니 당시의 高句麗南境은 天安北端까지 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熊津方面에서 百濟軍이 北上하여 京畿平野地帶로 나오는 길을 막기 위하여 全義地區의 北端, 天安地區의 南端에 城을 쌓았으리라고 推測되는데 이 山城이 全義에서 옛부터 「高麗山城」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山城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高麗山城은 天安三巨里에서 全義地區로 들어서는 街道를 掌握하고있기 때문에 反對로 百濟側에서는 高麗

山城을 高句麗軍이 지키고 있는 限은 天安으로 北上하는 길을 遮斷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文周王이 熊津으로 移都한 後에 高句麗와 百濟間에 필연코 暫定的이나마 國境에 關한 協定이 있어서 車嶺을 國境線으로 定하였다고 하더라도 高句麗로써는 熊津에서 全義邑을 거치거나 차령고개를 넘거나 天安地區로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목을 지키는 天安南端의 高麗山에 山城을 쌓아 이 街道를 掌握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百濟로서는 天安이나 牙山에서 全義邑을 거쳐 熊津으로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莘芳里와 松城里뒷山에 山城을 쌓아서 이러한 街道를 帳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18)

따라서 百濟로써 모처럼만에 車嶺以北 漢江以南의 故土를 回復코자 北上한 聖王의 길을 막은 것은 첫째로 天安南端 즉 全義北端에 位置한 高麗山城이었을 것이니 北上하는 聖王의 百濟軍에게 첫번째로 陷落된 「高句麗道薩城」은 傳承에 高句麗가 쌓았기 때문에 이름부터 高麗山城이라는 이 山城일 것입니다.

한편 道薩城을 陷落당한 高句麗軍이 北上하는 百濟軍을 效果的으로 阻止시키기 위해서는 逆襲하며 熊津에서 全義로 通한 街道를 封鎖하여야 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이러한 가도를 掌握하고 있는 「金峴城」—아마도 與地勝覽이 傳하는 「金伊城」을 빼앗아 據點으로 하는 以外에 딴 方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數個月을 두고 百濟軍과 高句麗軍이 싸워서 지친 틈에 新羅가 옆에서 빼앗은 것은 이 戰略的地帶를 新羅自身이 確保한다느니보다도 百濟나 高句麗의 어느 한편이—특히 高句麗가 獨點하

는 것을 忌避한 때문이었다는 것은 그 後의 百濟와 新羅의 態度로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19)

要컨데 이러한 檢討를 通해서 알 수 있는 것은 「道薩城」은 聖王당시의 麗濟의 國境城에 있는 城으로써 옛이나 지금이나 天安과 全義의 境界線인 高麗産의 峻峰에 構築된 高麗山城에 比定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上揭 金庾信傳에 보이는 「豆率城」(두솔성)과 「道薩城」(도살성)은 같은 山城의 같은 名稱에 대한 異記로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이것은 言語學에서도 충분히 인정되리라고 믿어집니다.

(五) 豆率城과 白村江

龍朔三年(663년)八月에 있었던 周留城 總攻擊은 주로 全義北方으로부터 開始된 것 같습니다. 즉 文武王과 金庾信이 이끈 新羅軍의 主力部隊는 牙山灣과 全義地區의 連繫를 끊으며 한편은 오늘날의 高麗山城을 包圍하고 한편은 牙山灣쪽으로 進擊하여 唐水軍과 聯合 牙山灣을 守備하고 있었던 百濟軍과 倭軍을 擊破한 것 같습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日本에서 오는 救援軍을 맞아 慰勞宴을 베풀고자 豊王은 白村으로 떠나고(八月十三日), 羅唐軍은 州柔城을 包圍, 唐水軍百七〇雙은 白村江에 陳列하고(八月十七日), 日本水軍으로 먼저 倒着한 船團이 唐水軍에게 敗하고(八月二十七日), 州柔城이 陷落된 것은 九月七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앞서 引用한 金庾信傳의 「九月十三日至于豆率城. 百濟人與倭人出陣. 我軍力戰大敗之. 百濟人與倭皆降… 」

의 文面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周留城의 百濟軍側이 日本의 大船團의 倒着豫定日字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이 羅唐軍側에서도 이것을 알고 作戰을 開始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그때까지 몇차례인가 「古沙城外」와 「豆陸伊城南」등「城南」에서 狹谷을 따라 攻擊해들어가다가 빈번이 大敗하고 물러간 新羅軍은 作戰을 바꾸어 比較的 넓게 터진 北方으로부터 攻擊하고자한 것인데 이때에 공교롭게도 日本의 大船團이 倒着한다는 情報에 接하여 急據豆率城方面으로 出擊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急迫했던 狀況은 豊王이 白江으로 떠난 것이 八月十三日이며 金庾信이 이끈 新羅軍이 豆率城에 倒着한 것이 같은 八月十三日 (日本書紀에는 八月十七日에 州柔包繞)이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要컨데 金庾信傳에 보이는 「豆率城」은 이와같은 많은 것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豆率城」과 함께 舊唐書가 傳하는 「白江之口」또는 日本書紀가 傳하는 「白村」 및「白村江」등이 問題될 줄 압니다.

그러한 「白江之口」「白村」「白村江」등에 대하여는 一般的으로 錦江河口로 보는 見解가 支配的인 것 같은데 이것은 周留城을 沃溝의 江건너 韓山으로 보거나 庇仁으로 보기 때문이지만 周留城自体가 그런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確實하늬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今西龍博士가 그의 「白江考」에서 論究한 바 있거니와 舊唐書에 「自然津江往白江元元」이라하고, 新唐書에 「蘇熊津白江」

이라 書錄하였으니 熊津江이 白江이었다면 熊津江과 白江을 列記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舊唐書 蘇定方傳에 「定方 · 自城山 (山東省西北角에 있음) 濟海至態津江口賊(百濟軍)屯兵據江, 定方升東岸乘山而陣」이라고 하였으니 熊津江口에 때로 白江 또는 白江口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강」「白村」「白村江」의 具体的인 現地比定은 그것과 關係가 깊은 「古沙比城」「豆陸伊城」「豆率城」에 대한 正確한 現地比定이 있은 後에야 可能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 경우의 「白江」「白村」「白村江」은 全義北方七〇里一一「高麗山城」에서는 六〇里에 位置한 牙山灣으로써 牙山灣에 注入하는 安城川과 安城川河口에 位置한 浦口로써 옛부터 널리 알려진 白石浦로[20] 比定하는 것입니다. 安城川은 옛날에는 水深이 깊어서 屯浦는 勿論 成歡까지 舟軍의 溯及이 可能했다고 합니다.[21]

「白江」또는 「白川」이라는 名稱을 가진 河川은 全國到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名稱만으로는 그것을 어디라고 짚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硏究者에 따라서 錦江의 河口라는 이도 있고, 東津江의 河口라는 이도 있고, 庇仁灣이라는 이도 있지만, 이 경우에 參考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日本書紀에서는 「白村」을 「ハクスキ」로 읽고, 「白村江」을 「ハクスキのエ」로 읽고 있지만, 보통「白村」을 「ハクスキ」라고는 읽을 수 없고, 「白村江」을 「ハクスキのエ」로는 읽을 수 없

습니다. 그러면 「ハクスキ」는 무엇인가가 問題가 되는데「ハクスキ」는 「白石浦」의 「白石」을 日本人들이 「ハクスキ」로 읽은 것이며, 白石浦옆을 흘러 牙山灣에 注入하는 安城川의 「江口」를 「エ」라고 한 것 같습니다. 즉 白石浦가 牙山灣의 港口村으로 옛날에 크게 繁昌하여 有名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白村」이라고 쓰고, 「ハクスキ」로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日本語 「エ」는 보통 「江」字로 表記하지만, 日本語「エ」는 「江口」를 意味하며, 「浦口」를 意味하는 것이니,「ハクスキのエ」는 「白石의 浦口」 즉 「白村의 浦口」로서 白石浦의 앞바다 즉 安城川의 河口를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牙山灣은 高句麗의 南部海港인 海州 또는 白川에서 海上으로 連繫가 可能하다느니 보다도 차라리 상당히 水軍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高句麗로서는 牙山灣으로의 海上輸送이 거의 自由自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牙山灣에 注入하는 揷橋川의 上流에 任存城이 位置하고, 全義地區의 北端 高麗山城 (天安에서는 豆率城)에서 흐르는 河川이 揷橋川의 下流에서 合流하여 牙山灣으로 注入하는 것이니, 발등에 불이 붙었던 당시의 高句麗로서 牙山灣을 通한 任存城과 全義地區의 諸山城에 대한 積極的인 支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와 그와같은 高句麗의 保障과 積極的인 支援을 傳 해주는 것이 앞서 言及했던 日本書紀의 「是月唐人伐高麗. 高麗乞救國家(=日本). 仍遣軍將據 疎留城. …… 」이며, 舊唐書 劉仁軌傳의 「百濟·高麗舊相党援」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부연하면 高句麗의 牙山灣을 通한 海上支援과 牙山灣一全義一儒城一鎭岑, 그리고 牙山灣一任存城一加林城(林川)을 잇는 泗沘 · 熊津의 唐軍에 대한 커다란 句圍網을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古阜나 邊山方面을 根據로 하고 있었을 余勇의 抗戰諸山城에 대한 東津江口의 苧浦등을 通한 海上支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663年 7月부터 8月에 걸쳐서 있었던 周留城 攻擊은 泗沘 · 熊津의 唐水軍이 牙山灣으로 迂回하고, 新羅의 陸軍은 南川州 를 憂懷하여, 牙山灣에서 合流, 天安地區에서 南으로 周留城을 攻擊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牙山灣을 點領함으로써 高句麗로부터의 支援을 끊기 위한 것이며, 한편 羅唐軍으로서 이 作戰이 可能했던 것은, 663年봄까지 「在南」하였던 余勇, 江東에 있었던 福信의 諸山城이 陷落되고, 福信이 殺害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劉仁軌의 上表文에서 「階下若欲殄滅高麗, 不可棄百濟土地」라고 한대로 高句麗의 攻略을 第一目的으로 하였던 唐으로서 泗沘 · 熊津南의 百濟의 諸山城이 陷落하자 高句麗南界에 가까이 戰線을 北上시키니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 다.

現今의 史學界에서는 稷山의 慰禮城을 僞傳이라고 하지만 近肖古王이 三七一年冬十一月에 「移都漢山」하기까지는 稷山이 王都였고 「百濟」(백제)라는 國號도 稷山 · 安城地區의 古地名 「백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論한 拙稿 「百濟舊都稷山考」(22)가 있거니와 日本書紀에 의하면 豊王은 諸將의 反對를 부릅쓰고 王都를 一時 周留城에서 辟城(一書元 避城)(23)으로 옮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의 「辟城」(벽재)은 「백재」로써 王都를 全義地區에서 稷山·安城·陽城地區로 옮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白城郡.本高句麗奈兮忽.景德王改名. 今安城郡. 領縣二. 赤城縣.

本高句麗沙伏忽. 景德王改名. 今陽城郡. 蛇山縣. 本高句麗縣. 景德王因之. 今稷山縣. (三國史記地理二)

稷山 · 安城 · 陽城方面은 成觀 · 平澤 · 牙山을 포함해서 日本書紀가 「三國之上腴」라고 表現하듯이 三韓을 代表하는 沃土로써 蓋鹵王이 漢山慰禮城에서 죽고 文周王이 熊津으로 遷都하면서 高句麗領이 된 곳이지만 百濟初期에는 여기가 王都였으니 稷山慰禮城이 一部에서 주장하듯이 「僞傳」이 아닙니다. 그리고 白城郡의 「白城」은 元來의 地名인 「백재」에 대한 表記로써 「百濟」 또는 「伯濟」와 그대로 通함은 勿論 「辟城」(백재)와도 通하는 것으로써 「백재」에 대한 日本側의 表記로써의 「辟城」으로 보아 無妨할 것입니다. 그리고 「辟城」이 敵의 所在에서 가깝다고 한 것은 驪州 · 利川의 新羅의 南川州에서 「一夜可行」의 距離로 가깝고 서울方面의 北漢山州에서 가깝다는 뜻이며 癸亥年(663年)二月에 豊王이 辟城에서 周留城으로 歸還한 것은 그 前年의 七~八月에 江東諸城이 陷落되고 그 해의 正~二月에 得安城(恩津)을 포함한 南部諸城이 陷落되는등(24)이 무렵 全体的인 戰勢가 不利한 때문이지 得安城부터 辟城이 가까웠던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要컨데 壬戌年(662年)後半부터 戰勢가 不利했고 드디어 癸亥年(663年)六月에는 豊王이 福信을 죽이게 되니 情勢는 決定的으로

不利해지고 八月에는 羅唐軍의 總攻擊을 받게 되어 周留城이 陷落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義慈王이 佐平興首를 流謫시키고 禍를 당한 前轍을 그대로 밟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豊王이 一時 王都를 옮긴 곳은 具体的으로 白城郡의 「陽城」이었다고 보는데 그 理由는 還都에 대하여 傳하는 唯一의 史料인 日本書紀에서 「辟城」을 「ベキのサシ」또는「へキのサシ」라고는 읽지 않고, 「へのサシ」라고 읽기 때문입니다. 즉「へのサシ」는 「陽城」(해잣, hae一zas)에 대한 日本人의 音이 確實하기 때문입니다. 陽城은 驪州·利川인 新羅의 南川州에서 七〇余里로서 「一夜可行」의 대단히 가까운 距離입니다. 豊王이 이와같이 新羅의 南川州에서 一夜可行의 가까운 陽城에 移都한 것은 이 즈음에 高句麗가 大大的으로 北漢山州와 南川州를 攻擊하여 거의 陷落直前까지 몰고가 弱化시켰기 때문이며, 한편 豊王의 陽城으로의 移都가 高句麗의 이ㅣ와같은 攻擊에 발맞춘 北進攻擊의 一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日本學者들은 「辟城」을 全羅北道의 金堤로 보는데, 그 理由는 金堤의 古地名이 「碧骨」 로서 「辟城」과 通하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金堤가 穀倉地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豊王이 辟城으로 移都할 당시 唐軍은 泗沘城에 있었으니 이것은 도저히 「一夜可行」의 距離일 수 없고, 「碧骨」은 아무리 보아도 「へのサシ」라고는 읽을 수 없으니 辟城이 碧骨 즉 金堤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되풀이 해서 言及한 대로 「余豊在北」이라고 하여 熊津北에 있었던 바가 確實한 豊

王이 全羅北道의 金堤로 移都하였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六) 지명 「全義」의 成立

이제까지 「周留城」의 問題와 關連되는 諸城名 및 地名에 대한 現地 比定한 바를 整立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고소재 = 高山城 = 高沙城 = 古沙比城

⑵ 豆仍只(燕岐)城 = 豆陸伊城 = 豆良伊城

⑶ 高麗山城 = 道隆城 = 豆率城

⑷ 갈거리 = 葛嶺道

⑸ 白城(安城 · 稷山) = 辟城(陽城)

⑹ 白村 = 白石浦

⑺ 安城川 = 白江 = 白村江

⑻ 솔제(솔티) = 疎留城

理想과 같이 三國史記가 傳하는 關係城名이나 地名에 대하여는 大体로 現地比定이 可能하지만 主로 中國側史書가 傳하는 「周留城」만은 그 意味把握이 容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周留城을 앞서 言及한대로 몇개의 城이 鼎立해 있어서 이러한 城으로 둘러쌓여 있는 地域을 意味한다고 볼 때 첫째로 全義地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雲住山脈의 最高峰위에 높이 쌓은 「쇠성」이나 高山山城의 將台 에 올라서 全義邑內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을 둘러볼 때 그 수 많은 봉우리마다 西에서 洞으로 高麗山城一高山山城一望京山城 南에서 北으로 金伊城一鵲聲一李城이 構築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全義邑쪽을 둘러싼 「두루성」즉「주루성」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比較的 좁은 地域에 많은 山城이 集中的으로 構築되어 이러한 山城으로 둘러싸인 곳은 全國的으로 딴 곳에서는 類例를 볼 수 없는 것이니 이런데서 「두루재」「주루재」ㅡ「周留城」의 名稱이 비롯된 것으로 보아 無妨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日本書紀에 의하면 「周留」 즉 「州柔」는「地名也」라는 註釋을 붙였으니 더구나 이것은 앞서 밝힌대로 많은 山城으로 둘러쌓인 地域名 또는 地名으로 解釋할 수 있는 것입니다.

要컨데 周留城의 「周留」라는 表記는 「주류」「주루」「두루」의 範圍로 읽어야 하겠는데 그러면 그 意味는 「周」「円」「網羅」의 뜻과 함께 「全」의 뜻이 있다고 하겠으니 우선 「全城」이 「두루재」에 대한 漢文表記가 아닌가 一考의 余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 「金城」에 대한 우리말이 무엇일까 逆推해 볼 때 「두루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全科參考書」의 「全科」 또는 「全科目」의 「全」이 「網羅」의 뜻인 「두루」라는 事實에서 類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全義」의 뜻은 文字그대로 全義분들의 「完全한 義」라면 좋겠지만 이것은 「全城縣」 즉 「두루재골」의 省略인 「두루골」의 表記로써 「골-홀-올」(韓縣邑)을, 訓을 「올」「옳」로 하는「義」로 表記한 것일 뿐 딴 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高句麗語로 「홀」(忽)은 「골」(縣 · 邑 · 城)이었으니 「홀」音과 近似한 「올」「옳」을 訓으로 한 「義」 字

로써 「홀」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khoul ― houl ― oul

(高句麗語)

「義」의訓……oul

이런 점과 關連하여 百濟歌詞인 「井邑詞」의 一句인

全져재 녀러신고요

에 보이는 「全져재」에 대하여 國學의 泰斗인 李熙昇博士께서 대략 다음과 같은 疑問點(25)을 提元한 일이 想起됩니다.

즉 이제까지 「全져재」를 「全州市場」으로만 解釋해 왔는데 그것이 果然 옳은 解釋일까? 차라리 이것은 「모든市場」의 뜻인 「온市場」의 뜻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問題였습니다.

勿論 國文字에 대하여 깊이 아는 바 없는 門外漢으로써 輕率히 용훼할 일이 아니나 參考삼아 말씀드려보면 「全져재」로 記錄되어 막연한 이 「全」은 「두루」로써 「全져재」는 元來가 「두루 져재」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李熙昇博士께서도 말씀하신대로 歌詞全体 의 흐름으로 보거나 全州라는 名稱이 本百濟가 아니라 景德王代에 비롯된 점으로 보거나 「全져재」를 「全州市場」으로는 도저히 解釋할 수 없고 「온져재」의 뜻인 「두루져재」그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음의 範圍에서 읽고 解釋하는 것이 順理일것 같습니다.

全져재 녀러신고요 (原文)

어귀야 즌 디를 드디욜셰라

두루 져재 녀러신고요 (1)
어귀야 즌 디를 드디욜셰라

두리 져재 녀러신고요 (2)
어귀야 즌 디를 드디욜셰라

두이 져재 녀러신고요 (3)
어귀야 즌 디를 드디욜셰라

이와같이 이 「全」은 「두루」의 뜻으로 把握하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後世에 이「두루」가 「두리」「두이」등으로 變하면서 全州의 古名 「두리재」「두이재」의 「두리」「두이」에 附會되어 혼란을 일으킨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正音子로 記述할 때 「두루 저재」의 「두루」와 通할 뿐 아니라 「두리져재」 「두이져재」의 「두리」「두이」와도 通할 수 있는 「全」字로 記述하여 막연하게 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도 하겠는데 全州의 古名에 대하여는 三國史記 地理三 全州条의 記錄부터 致命的인 錯誤가 많아서 徹底한 再檢討를 거쳐서 들어가야할 問題이니 여기서는 「全」字를 「두루」로 읽어야할 경우가 있다는 바를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以上은 「全」字를 「두루」로 읽을 수 있고 읽어야할 경우가 있다는 例이지만 다음은 「골」(縣 · 邑)을 「城」으로 表記하고 高麗朝에 이것을 「義」로 表記한 例입니다.

大山縣……斌城縣. 本百題賓屈縣. 景德王改名. 今仁義縣. ……
(三國史記 地理三 熊州 · 全州)

本百濟時代의 「賓屈縣」의 「賓屈」(빈굴)은 「빈골」의 表記임을 알 수 있겠고 景德王代에는 이 「빈골」을 「斌城」으로 表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賓」을 「斌」으로 代置하고 「골」(屈)를 「城」으로 代置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高麗朝로 내려와 好字인 「賓」「斌」에 이어 이것을 다시 好字이면서도 韻이 같은 「仁」으로 代置하고 한편으로는「골」대한 過去의 表記인 「屈」과 「城」을 버리고 「義」로 代置하며 「仁義縣」으로 表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賓屈縣		斌城縣		仁義縣
⋮		⋮		⋮
(골)		(골)		(골)
		(재)		(재)
khoul (城)		houl (城)	———	oul
		(高句麗)		
		「義」의 訓	———	oul

「全義縣」이라는 名稱도 高麗朝의 表記로ㅆ 高麗朝에 된 것임은 앞서의 「仁義縣」의 경우와 같고 다시 이것은 같은 三國史記 地理三에 나온 것들이니 「仁義縣」으로 表記하고 「全義縣」으로 表記한 者가 同一人일 公算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一홀一올」(縣 · 邑)을 「義」로 表記한 根據는 앞서 言及한대로 「義」의 訓인 「올」「옳」이 「골一홀一올」의 音과 類似하고 특히 高句麗系統을 이은 高麗朝의 表記로써 高句麗語의

「홀 (忽)과 「을」「옳」이 더욱 같기 때문에 好字인 「義」로 로 表記하여 마침내 「全義」라는 地名을 構成한 經緯가 앞서의 「仁義縣」의 「仁義」의 경우와 一般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全義縣」의 「全義」의 경우도 앞서 밝힌 「全져재」의 例와 「仁義縣」의 例에 의하여 「두루골」의 表記로 보아야 하겠고 「全城」의 경우는 「두루재」의 表記로 보아야 하겠지만 앞서 「賓屈縣－斌城縣－仁義縣」의 例로 보아 「屈－城－義」는 通하는 것이니 實際上으로는 「두루골」과 「두루재」의 어느쪽으로 보거나 無關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全義縣」의 「全義」의 경우 本百濟의 「仇知縣」의 「仇知」나 景德王代의 改名인 「金池縣」의 「金池」와는 전연 딴 名稱인 「全義」가 高麗朝에 나왔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全義地區의 名稱으로써 「두루재」「주루재」가 存續했음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그 名稱의 起源은 앞서 밝힌대로 比較的 좁은 全義地區를 많은 山城들이 둘러쌓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느데 名實共히 全義地區야말로 「두루재」의 名稱을 가질만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七) 全義의 砂鉄과 山城

泗沘城 陷落後 滿三年間을 周留城은 羅唐聯合軍에 대한 百濟軍의 抗戰의 本據地의 役割을 다한 것이지만 그것은 全義가 天然의 要塞地이며 山城이 많은 때문만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武力의 象徵인 鉄의 名産地였다는 점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서 言及한대로 全義의 本百濟地名은 「仇知縣」인데 이「仇知」가 金屬을 意味한다는 것은 國語學에서 定說로 通하고 與地勝覽

全義縣 土産条에 鉄이 筆頭에 올라있고 오늘날에도 「쇠동」에 「全義鑛業所」가 있어서 活發히 操業하고 있으니 全義는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産鉄의 名産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泗沘城이 陷落한 直後 任存城을 根據로 하여 泗沘城을 包圍攻撃하다가 다시 任存城으로 물러났던 道琛·福信이 抗戰이 長期化하면서 根據地를 周留城으로 옮긴데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었지만 그外에 周留城이 原鉄의 名産地일 뿐 아니라 鉄物의 名産地였다는 점을 看過해서는 안되겠습니다.

土産 鉄 出東西房里 (與地勝覽 全義縣)

全義縣의 東西房里에서 鉄을 産出했다는 것인데 東房里는 오늘날의 芧芳里이며 西房里는 오늘날의 四方里로 보아 無妨하겠습니다. 그리고 四方里는 一名 多方里라고도 하며 四方리의 뜻과 함께 多方里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深山속에 있는 마을을 四方里라하고 多方里라고 하기 때문에) 가끔 그쪽에 사는 분들이 質問을 해오는 경우가 있지만 四方里는 西房里의 好字表記이며 多房里는 大方里 또는 達方里의 好字表記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多方里의 「多」,「大方里」의 「大」, 達房里의 「達」 또는 達田里의「達」은 「冶鉄」을 意味한 (달)(dal)로써 흔히 「大」字로 表記하여 「大匠」(대장, 대정)이 된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冶匠이 곧 社會의 支配上層部를 이루었고 冶匠인 dalla-chi(26)의 長이 王이었던 時代가 있었다는데 이때의 王이 鍛冶王－dalla-nymkun(달라님금)이었다고하며 新羅의 脫解王도 이러한 社會的인 性格의 王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朝鮮朝의 嚴格했던 士農工商의 階級社會에서 「匠人」이라하여 理由없는 賤待를 받아오다가 近代로 들어서며 東房里가 莘芳里로 바뀌고 西房里가 四方里로 바뀌고 대방리 또는 達房里가 莘芳里로 바뀌어 쉽게 알 수 없게 되었지만 李城·鵲城·金伊城의 안쪽 즉 莘芳里－達田里－金砂里－四方里를 잇는 西部川의 골짝마다는 鉄의 産地였고 鉄物의 産地였습니다.

그뿐아니라 周留城이 豊王의 王城이 되고 百濟諸城의 旗城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原鉄과 冶鉄이 있었기 때문이니 周留城을 論하는 마당에서 莘芳里의 砂鉄과 達田里의 鉄物 그리고 四方里 즉 多方里의 鉄과 함께 鉄物에 대하여 論하지 않을 수 없는것입니다.

具体的으로 泗沘王城이 陷落되어 모든 社會秩序와 함께 經濟秩字가 破壞된 당시 周留城自体가 이러한 鉄物로 된 武器에 依存했을 뿐아니라 麾下의 諸城에서도 周留城에서 供給한 이러한 武器로 싸운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勿論 이 점에 대하여는 日本에서 많은 戰爭物資－例를 들어 「矢十万雙」을 보내주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万名의 軍士가 한 時間의 戰鬪에도 不足한 것입니다. 따라서 三十六日間이나 新羅軍의 攻擊을 받고도 끝내 이것을 擊退시킨 周留城이었다니까 차라리 消耗되는 武器의 供給源으로써 西部川邊의 「全義鑛業所」가 있는 「쇠동」－「아래다락골」－「위다락골」－「수렁골의 다락동」까지의 十余里를 中心으로한 地帶를 注目하여야 하겠습니다. 分明히 이러한 地帶에서 採集된 沙鉄이 比較的 얕은 냇가의 「다락골」에 모아져 冶鉄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

문입니다. 물론 「다락골」「다락동」의 「다락」은 「達田里」의 「達」(달)과 함께 冶鉄을 意味한 dalla 그것으로 보아야하며 이것이 「다락」(dallak)이 되는 것은 다음에 오는 「골」(koul)의 초음「ㄱ」(k)음의 影響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勿論 生掘川一帶는 原鉄과 함께 砂金으로도 有名한 곳이니 周留城의 財政問題로써 이점에 대하여서도 論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時間關係로 他日을 期 하면서 王城이었던 周留城으로써 갖추어야할 条件이 單純할 수 없었다는 것을 强調해 두고 싶습니다.

(八) 周留城과 碑岩寺

金伊山城뒤로 가까이 碑岩山이 솟아서 「燕全」을 別界로 나뉘는데 그 기슭에 碑岩寺가 아담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碑岩寺를 찾는 사람마다 이러한 深深山中에 이토록 아름답고 典雅한 가람이 있을 수 있으며 누가 언제 무슨 理由로 何必曰 이런 山中에 이러한 가람을 창건한 것인가를 자연히 묻게 되는데 碑岩寺는 周留城의 싸움이 끝난 六六三年 癸亥八月부터 꼭 十年째인 六七三年 癸酉年에 全氏가 주동이 되고 이에 百濟大姓인 眞牟氏와와 木劦氏가 협력하여 「죽은 國王과 大臣과 七世父母와 衆生의 靈 을 받들고자 창건한 가람」입니다.

이러한 來歷은 午前에 學界에 紹介되어 內外學界의 非常한 關心을 끌게한 「碑岩寺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의 刻記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 深深山中이 百濟의 最後를 장식한 激戰地로써 많은 사람들이 戰爭에서 죽은 周留城이었기 때

문에 이곳에 가람을 창건한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問題에 대하여는 後日 따로 論할 機會가 있겠지만 碑岩寺는 이와같이 그 敬造目的이 石佛碑像의 敬納目的과 함께 너무나 뚜렷한 것이니 現在 國立淸州博物館에 保管되어 있는 그 石佛碑像들은 마땅히 周留城 옛터인 碑岩寺로 돌아와 百濟의 最後를 証言하고 周留城을 証言하며 그 당시에 죽은이들의 靈을 받들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 × × × × × × × ×

以上 周留城의 問題에 관하여 장황한 說明을 드렸지만 周留城의 問題는 그것이 百濟人의 救國抗戰으로서의 面보다도 차리의 우리에게는 泗沘 · 熊津이 陷落된 다음해에 갑자기 武烈王이 薨去하고, 뒤를 이은 文武王의 對唐政策의 變化를 周留城싸움의 推移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이 重要할 것입니다. 즉 文武王은 泗沘 · 熊津의 唐留軍을 위하여 積極的으로 周留城을 攻擊하는 것도 아니고, 攻擊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泗沘 · 熊津의 唐留軍으로서 泗沘 · 熊津을 버릴 수도 없고 안버릴 수도 없는 困難한 地境에 끌어넣고, 周留城이 陷落하자 降伏한 百濟軍과 倭軍을 捕虜로 잡는대신 이것을 一方的으로 放免하여 故鄕에 돌려 보내고, 故國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70年까지에는 唐의 都督을 몰아내어 百濟의 八十余城을 新羅편으로 끌어넣고, 高句麗 安勝의 政權을 金馬渚에 세우며, 日本에 天武王의 親新羅政權을 서게하는 터전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文武王은 百濟와 高句麗의 遺民과 함께 唐의 勢力을 鴨綠江밖으로 몰아낸고 三國統一의 大業을 成就시킨 것입니다.

註

註 (1) 義慈王과 太子隆이 蘇定方 앞에서 擧行함.

(2) 日本書紀 天智二年条 參照

(3) 今西用「百濟史硏究」所收. 百濟末에 關係되는 論文으로 「周留城考」(未定稿)와 「白江考」(未定稿)가 있다. 早逝한 그는 決定稿를 남기지 못한다.

(4) 後出

(5)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519頁 參照

(6) 敎授의 周留城問題를 다룬 關係論文으로 筆者가 아는 것은 "「豆良尹城」에 대하여"(「百濟硏究」第三輯 所收)와 「産長山下地名考」(上)
(「百濟硏究」第四輯 所收) 등이 있다.

(7) 「百濟硏究」第三輯 23頁

(8) 「百濟硏究」第三輯 29頁

(9) 「百濟硏究」第四輯 72頁

(10) 周留城에 대하여 傳하는 모든 史書가 周留城은 龍朔三年에 陷落하였다고 전하고 支羅城을 傳하는 史書는 支羅城은 龍朔二年에 陷落되었다고 明記하고 있다. 이점에 秋毫의 變動도 없고 따라서 疑心할 바 없으니 支羅城이 周留城일 수 없다.

(11) 「百濟硏究」第四輯 67頁

(12) 「산성이재」또는「노정」을 漢字音으로 表記할 때 表記한 者

의 漢文驅使力이나 個性的인 趣味傾向 또는 聯想作用으로 「解産바위」에 附會하고 「무성한 갈대」에 附會하여 「産長峴」 또는 「蘆長」이라는 表記가 있을 수 있ㅈ디만 그렇다고 해서 「지리재」를 音表記하여 「蘆長峴」이 되고 「무성한 갈대」를 音表記해서 「蘆長」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蘆長峴」대신 「蘆峴」이 되고 「蘆長」대신 「長蘆」로 表記되었을 것이다. 차라리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母音調和로 보아야할 것이다.

산정(ㅏ, ㅕ) → 산장(ㅏ, ㅏ) …… 産長

노정(ㅏ, ㅕ) → 노장(ㅗ, ㅏ) …… 蘆長

이와같은 例로는 燕岐郡東面內板里에 「도장골」이 있는데 이 경우의 「도장골」의 「도장」(ㅗ, ㅏ)도 「도정(都亭골」의 「도정」(ㅗ ㅏ)에서 母音調和한 것이다. 그리고 天元郡木川面挑長里(高麗山城北麓下)의 「도장」(挑長)도 「도정」에서 母音調和한 것으로써 「挑長」의 「長」은 앞서의 「蘆長」의 「長」또는 「産長峴」의 「長」과 같은 例로 보아야할 것이다.

(13) 「州柔(周城)說置山險 盡爲防禦 山峻高而谿隘 守易而攻難…」(日本書紀 天智紀)參照

(14) 알기쉽게 말하면 나귀를 탄채로 車嶺山脈을 넘고 짐실은 소바리의 고삐를 놓은채 安全하게 車嶺山脈을 넘을 수 있는곳은 이곳 뿐일 것이다.

(15) 現在 모든 地圖와 地誌(燕岐郡誌)에 高山山城을 雲住山城이라고 記錄하고 있지만 이것은 輿地勝覺에 依據하여 訂正하

여야 한다. 雲住山은 李城, 鵲城, 金城이 있는 쪽이다.

(16) 豆仍只의 「豆」는 接尾辭 /ㅡi /로 보았다. 李崇寧「百濟語研究와 資料面의 諸問題」(「百濟研究」第四輯 所收) 參照
「仇知」(구지) ㅡ 金池縣
「仇知只 (구지이) ㅡ 金溝縣
「仇知只」는 「구지지」가 아니라 「구지이」로 읽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仇知」(구지)는 金屬을 意味한다.(同論文參照)

(17)「韓國史」(古代篇) 440頁 參照

(18) 松城里의 「솔티」(이 「솔티」를 双流里에 있는 「燕岐솔티」와 區別하여 「全義솔티」라고 한다) 에서 山너머 達田里로 넘어가는 間道가 있는데 이 間道는 고개마루에서 「솔재」ㅡ즉 金伊城앞을 지나게 된다.
앞에서 言及했던 「疎留城」(소루재)은 雲住山脈上의 「金伊城」으로써 이 山城을 百濟軍이 掌握하고 있는 한 熊津·泗沘의 唐軍이 北上할 수 없다. 熊津에서 北上하는 길과 儒城方面에서 北上하는 길이 이山城下로 通하기 때문이다.

(19) 머지않아 新羅는 이곳을 百濟에게 넘겨주고 百濟는 이 길로 北上하여 高句麗와 싸워서 漢江流域을 回復한다. 그러나 新羅軍은 百濟軍이 지친 틈을 타서 百濟軍을 攻擊하여 漢江流域을 빼앗았다. 百濟聖王과 新羅眞興王代에 있었던 有名한 事件이다.

註 (20) 金正浩「大東輿地圖」參照

(21)「韓國史」(古代篇) 266~7頁 參照

(22)「朝鮮學報」(第七〇輯) 所收 參照

(23) 「…今可遷於僻城. 僻城者西北帶古連旦涇之水. 東南據深涅巨堰之防. 繚以周田. 決渠降雨. 革實之毛則三韓之上腴焉 (日本書紀 天智元年条 」

(24) 「新羅人燒援南畔四州幷取安德 (德安) 等要地 (日本書紀 天智三年春二月紀) 이해 二月頃에 이미 南部諸城이 陷落하여 南部가 거의 平定된 것이다. 따라서 「…周留失膽遂降下. 南方己定. 廻軍北伐. 任存一城執迷不降. 兩軍併力共打一城…… 」(文武王報書)이라고 할때 「回軍北伐」했다고해서 任存城이 周留城의 북에 있었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이 「北伐」은 「南方己定」의 句에 맞춘 「北伐」이며 동시에 그해 봄부터 平定한 南部諸城을 意味한 것이다.

(25) 「井邑詞解釋」에 대한 疑問點 二·三」(「百濟硏究」第二輯) 所收

(26) 도오손 「蒙古史」田中華一郎訳補 岩波文庫本 下卷 374~5 頁 參照 三品彰英 「日鮮神說傳說の硏究」 및 拙稿 「脫解考」(朝鮮學報」 第五十六輯) 參照

碑岩寺　研究

― 創建한 全氏를 中心으로 ―

(一) 碑岩寺의 槪況　　金　在　鵬

碑岩寺는 忠淸南道燕岐郡全義面多方里에 있는 山寺이다. 이 山寺는 京釜線全義驛에서 南三〇里의 深山속에 있기 때문에 오래동안 세상에서 잊어져서 甚히 荒廢되어 거의 廢寺의 狀態였다. 이 碑岩寺에 대하여 「燕岐誌」는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碑岩寺 懸의 南方 碑岩山에 있으며 漢의 宣帝五鳳元年에 創立되다. 지금부터 十年前에 山僧宛潭이 重修하였다.(出全城誌)

이것은 全義邑誌로서 一八五四年에 刑行된 「全義誌」의 記事를 引用하여 一九三四年 刑行된 「燕岐誌」에 실린 記事인데,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漢의 宣帝五鳳元年에 碑岩寺가 創建되었다고 傳하는 점이다. 그러나 五鳳元年은 西紀前五七年이며, 이 年代는 三國史記에 있어서의 新羅의 建國年代－朴赫居世의 卽位年에 해당하는 年代이니 佛敎寺院의 創立年代로서 있을 수 없는 年代이다. 따라서 創立年代에 대하여 現地에서는 막연하게 「碑岩寺는 三韓古刹이다」라고만 傳한다. 이 경우의 「三韓古刹」이란 確實한 年代를 알 수 없지만 여하간 옛날옛날에 세워진 古寺라는 뜻일 것이다.

또한 重修者로 傳하는「山僧宛潭」은 오래동안 荒廢하였던 山寺를 一部 修理하여 살며 碑岩寺의 重修에 心血을 기울여서 本殿인 極樂寶殿을 補修하고 五間療舍를 新築하였다고 現地의 老人들이 傳하며 寺刹入口에 重修碑가 남아 있다.

一九六五年刊「忠淸南道誌」의 古蹟篇(洪思俊氏執筆)에는 「碑岩

寺」에 대하여 傳하고, 다시 「碑岩寺의 石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碑岩寺石塔(全義面多方里)이 石塔은 極樂寶殿 앞에 三層으로 된 높이가 二,八八米 基壇幅이 一,七〇米으로 高麗時代의 雅趣가 풍기는 塔으로 보겠다. 覆鉢相輪部가 欠失되었음은 遺憾으로 생각된다. 無識한 僧侶의 所致로 塔頂上에 施主로 佛像을 彫刻한 石佛体三個를 얹어두었으므로 이 物件을 別置하는게 좋겠다고 現住持에게 일러두었으나 其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三個의 佛像体의 彫刻한 手法, 構造가 凡常한 것이 아니었다. 現在는 青苔가 끼어 確實히 그 年代를 알 수 없으나 李朝初의 것이 아닌가 疑心된다.

碑岩寺는 現在極樂寶殿一棟과 寮舍一棟, 거기에 石塔一基가 남아있는 寥寂 한 山寺이다. 이러한 碑岩寺가 近年에 갑자기 考古美術學界에서 有名해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石塔의 頂上에 얹어졌던 石佛像三個라는 것이 世上에서 보기드문 佛像이며 不朽의 美術品이었던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三個의 佛像을 本格的으로 調査한 前國立博物館長 黃壽永博士는 대충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忠淸南道燕岐地方은 우리나라의 古代 美術과는 因緣이 없는 地帶라하여 注目되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今日의 交通으로 보아서도 京釜線의 天安과 鳥致院을 連結하는 三角地區內에 들어서 하나의 盲點같이 이제까지의 古代 文物調査에서 漏落된 地區이다.

그러나 天安과 鳥致院의 中間에 位置한 全義驛에서 西方으로 通한 길을 따라 이 三角地帶를 橫斷하면 車嶺山脈의 支峰을 넘어서 公州郡正安面廣亭里에서 公州－天安舊街道를 맞나는데 그 中間地帶에 있는 山間僻地에 「三韓古刹」이라는 碑岩寺가 지금도 位置하고 있다.

그리고 碑岩寺는 稀貴한 一群의 碑像을 오래동안 祕藏한 채로 잊어졌던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1)

이러한 碑岩寺의 三佛像은 一九六〇年一〇月十九日附로 國寶五五二五五三, 五五四의 各号로 指定되었다가 다시 一九六二年一〇月一三日에 碑岩寺에서 國立博物館으로 移管되어 國有가 되었다. 그리고 現在는 國立淸州博物館陳列室에 陳列되어 있다. 그後 文化財法의 公布에 의하여 그中의 一個만이 信國寶로 指定되고, 他의 二個는 新寶物로 再指定되었다. 즉 碑岩寺石佛像三個는 現在 다음과 같이 取扱되고 있다.

⑴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國寶第一〇六号 國立淸州博物館所藏)

⑵ 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佛(寶物第三六七号 國立淸州博物館所藏)

⑶ 彌勒半跏思惟石像(寶物第三六八号 國立淸州博物館所藏)

이러한 碑岩寺의 三佛像의 發現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燕岐郡一帶에서 同系의 石像이 發現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石像들은 石材로서 碑岩寺石像과 同質의 黑褐色臘石이 使用되었을 뿐 아니라 手法과 年代로 보아서도 碑岩寺石像系의 作品으로 看做되고 있다. 이들 一群의 石像을 考古美術學界에서는 「燕岐石佛像」이라 稱하고 있다.「燕岐石佛像」으로서 碑岩寺의 三石像外에 다음의 四石像이 있다.

⑷ 瑞光庵三尊千佛碑像(國寶 第一〇八号 國立公州博物館所藏)

⑸ 蓮花寺戊寅銘半跏思惟三尊石像

⑹ 蓮花寺無銘阿彌陀石像

(以上二石像은 燕岐郡西面月河里蓮花寺 所藏)

⑺ 正安面三尊石像 (東國大學校博物館所藏)

계유명 전씨 아미타불 삼존석상 (국보제 106호)

계유명 삼존 천불비상 (국보제 108호)

(二) 石佛像 의 銘文에 대하여

「燕岐石佛像」들은 圖版만으로 보아서도 충분히 推察되지만 世上에 稀貴한 佛像이며 美術品이며 文化財이다. 따라서 佛像의 石材, 構造, 佛像으로서의 價値, 또는 美術史的인 意義등에 대하여는 黃壽永博士의 論考外에도 數篇의 論考가 考古美術學者에 의하여 發表되었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2) 그러나 碑岩寺의 創建을 비롯하여 이러한 石佛像－特히 (1)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과 (2) 瑞光庵三尊千佛碑像의 側面과 後面에 刻記된 銘文에 대하여는 歷史學에서 本格的으로 取扱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였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1)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刻記銘

◎ 前面

全氏□□ 述況□□ 二兮□□ 同心敬造 阿彌陀佛 像觀音大 世至像大 □道□□ 上爲□□ 願敬造□ 佛像此□ 此石佛像 內外十方 十六□□(字經約 1㎝)

◎ 側面(向右)

□□癸酉年四月十 □兮乃末 □□□首 全氏道推 □發願敬 □供爲 □彌次 乃□正乃末 全氏□□ 「□等□五」十人 智識共 國王大臣」及七世父母含靈等願敬造寺智識名記 (以上上面11行과 中央1行)

達率身次願 眞武 ??□□□□ 木□??願(以上各奏樂 像側下에 各1行씩 計4行)

◎ 側面(向左)

歲次□□年四月十五」日　爲諸□敬造此石(以上3行은　中央에 刻記)

□□□」使眞公□」太□□願 道作公願(以上4行은 各奏樂像側下)

◎ 後面(各段向右像부터)

(第一段) 上次乃末」三久知乃末」□免??願(上段向左 二像不明)

(第二段) □□??願」夫信??大(以下不明)

(第三段) 大乃末願」□久??願」惠信師

(第四段) □夫乃末願」　林□乃末願」惠明法師」□□道師(以下 1行不明)

⑵ 瑞光庵三尊千佛碑像 刻記銘

(向右側)

歲在癸酉年四月十五日香?□

徒釋迦及諸佛菩薩像造

石記 是者爲國王大

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

(向左側)

造之 香徒名 彌次乃眞

牟氏??上生?? 仁次??□

宣??賛不?? 式使??□□

□??□□等二百五十?人 (字經 1.2㎝)

⑶ 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像刻記銘과 ⑷ 蓮花寺戊寅銘四面石

像刻記銘은 省略함.

이러한 銘記는 佛像自体가 同一系列에 屬한 바와 같이 相互關連이 있는 內容이다. 그리고 銘記中에서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의 銘記가 內容이 豊富하나 欠字가 많아서 읽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欠字가 적은 瑞光庵三尊千佛碑像의 銘記부터 檢討하기로 하겠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癸酉年四月一五日에 香徒들이 釋迦 및 諸佛菩薩像을 만들어 돌에 銘記한다. 이것은 즉 國王과 大臣 및 七世父母와 法界衆生을 위하여 敬造한 것이다. 香徒名을 둘건데 彌次乃眞牟氏 大舍 上生大舍 仁次大舍 □宣大舍 賛不小舍 式使小舍 □□□小舍 □□等二百五十人

먼저 歲次로 傳하는 癸酉年은 統一新羅初의 癸酉年 － 太宗武烈王一三年(六七三年)으로 推定된다. 이것은 黃壽永博士를 비롯한 諸家의 推定이기도 하지만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⑴ 이 石佛像自体가 앞서의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과 同年代同系의 作品으로 看做된다.

⑵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의 銘文에 百濟古來의 官名인「達率」이 그대로 보일뿐 아니라 武烈王十三年에 百濟人에게 授與했던 新羅의 官名인「奈麻」즉「乃末」그리고「大舍」등의 官名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石佛像에 보이는 癸酉年은 百濟滅亡에서 統一新羅로 옮아가는 過渡期의 癸酉年 －太宗武烈王十三年(六七

三年)의 癸酉年으로 看做된다.

다음에 香徒施納者들이 佛像을 만들어 施納한 意義등에 대하여는 銘文에 記述된 바와 같이 百濟舊民에 의한 百濟國王과 大臣 그리고 七世父母와 法界衆生을 위한 造佛發願으로 理解된다.

香徒名으로서 먼저 眞牟氏 즉 眞氏가 보이며 이 眞氏가 「彌次乃의 眞牟氏」로 나타나는데 「彌次乃」는 地名일 것이다. 百濟의 眞氏에 관하여는 이미 今西龍博士와 李弘稙博士의 硏究가 發表되어 있고(3) 拙稿 「百濟眞氏와 任那問題의 本質－應神天皇의 出自의 問題로서」등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되풀이 할 必要가 없지만 百濟眞氏는 百濟八大豪族중의 하나로 代代로 熊津을 根據로 하고 있었던 百濟第一의 豪族이다. 그뿐아니라 代代로 稷山을 根據로 하고, 그리고 三七一年에 漢山(=廣州)으로 移都하기까지는 稷山을 王都로 하고 있었던 百濟王家와 二部体制를(4) 取하고 있었다. 具体的으로는 近肖古王·近仇首王·阿莘王등이 眞氏의 婿이며, 腆支王母는 眞氏였다.

眞氏는 三國史記와 中國史書등에는 眞淨·眞高道·眞武·眞男 등의 例에 나타난 것처럼 「眞」으로 記錄되어 傳하지만 日本書紀의 欽明紀등에는 眞牟貴文·眞慕貴文등의 例와 같이 「眞牟」또는 「眞慕」로 表記되어 傳한다. 따라서 이 刻記銘에 보이는 「彌次乃眞牟氏」의 「眞牟」는 當時的記錄으로서 그들自身이 自身의 姓을 어떻게 表記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貴重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根據로 하고 있엇던 地名과 붙여서 불리운 것은 「彌次乃眞牟氏」의 例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彌次乃라는

地名이 어디인지는 確實치 않지만 泗沘王都時代의 北部 즉 熊津의 一名이 아니었던가 推測케 하는 것이다.(5)

한편 「眞牟」에 「??」가 붙어서 「眞牟氏大??」로 記錄되어 있다. 이 경우의 「??」는 新羅十七等官階에 있어서 十二等官階인 「大舍」일 것이다. 즉 三國史記 職官誌에 舊百濟人에게 준 新羅의 官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百濟人位 文武王十三年 以百濟來人授內外官.其位次視在本國官銜 京官. 大奈麻本達率, 奈麻本思率, 大舍本德率, 舍知本扞率.

文武王十三年은 癸酉年六七三年이며 이러한 石佛像이 發願施納된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銘文에 보이는 百濟人에게 준 新羅官職은 大体로 이 癸酉年에 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記錄도 있으니 斷定할 수는 없다. 즉 新羅本紀 太宗武烈王七年(六七〇)十一月二十二日条에 다음과 같은 記事가 있기 때문이다.

百濟人員 並量才任用 佐平忠常 常永 達率自簡 授位一吉飡充職摠管 恩率武守 授位大奈麻充職大監 恩率仁守 授位大奈麻充職弟監

新羅官名을 百濟인에게 준 것은 六七三年의 三年前인 六七〇年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要컨데 이러한 「??」즉「대??」는 舊百濟의 恩率에게 준 官名이며 「上生??」「仁次??」「口宣??」등과 같이 「??」에 붙은 「上生」「仁次」「口宣」등은 井上秀雄氏가 新羅官職에 대하여 說明하면서 「官職名으로서의 大舍에서 各各 職掌에 의하여 上大?? ·임대?? 徒大?? · 次大??등으로 分化한 것을 알 수 있다」(6) 고

言及하듯이 各各 大舍가 分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는 「小??」이며 이것은 新羅官職에서 大舍의 下位의 「舍知」를 意味하는 것으로 推測되며 舊百濟時代에 「扞率」의 官職에 있었던 者들에게 授與한 것일 것이다.

(三) 碑岩山의 南과北

現在 燕岐郡은 하나의 行政單位로서의 郡이지만 近世에 京釜線이 開通되어 天安－全義－烏致院－大田을 連結하기 까지는 오래동안 全義縣과 燕岐縣은 두 個의 地帶로 確實히 갈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두 地帶로 確實히 갈라놓은 것은 全義縣과 燕岐縣 사이의 車嶺山脈의 一脈(=雲住山脈)으로서 이 一脈의 北에 全義縣이 있었고 南에 燕岐縣이 展開하고 있어서 全義縣은 古來로 東의 木州郡 또는 北의 天安郡에 屬하고 燕岐縣은 公州郡에 屬했던 것이다. 그리고 全義縣과 燕岐縣을 別界로 갈르는 一脈(雲住山脈)의 主峯이 碑岩山인데 碑岩寺는 이 碑岩山의 北쪽 全義쪽 기슭에 位置하고 眞牟氏의 瑞光庵三尊千佛碑像의 原位置로 推定되는 生千寺址는 碑岩山의 南쪽(燕岐쪽, 公州쪽)에 位置하고 있다.

百濟時代에 熊津(泗沘王都時代의 北部)을 根據로 하고 있었던 眞氏의 領域의 北界는 碑岩山을 主峰으로 한 一脈(=雲住山脈)으로서 이 一脈의 南에 展開된 燕岐地區는 오래동안 眞氏의 領域에 屬했던 것이며, 이러한 것을 說明해주는 것이 瑞光庵三尊千佛碑像 즉 眞牟氏의 癸酉銘三尊千佛碑像이 이 一脈의 南쪽인 烏致院附近에서 出現한 事實이다. 이 眞牟氏의 三尊千佛碑像이 出現한

經緯를 黃壽永博士는 대충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이 石像이 發見된 瑞光庵은 鳥致院에서 서울街道를 半粁쯤 北上한 內倉部落 後崗의 草家一棟의 私設法堂이며 所在地는 鳥致院瑞倉洞一區이다. 이 石像도 蓮花寺石像과 마찬가지로 他処에서 運搬해온 것이다. 原位置를 追窮한 結果 約二〇年前인 一九五一年四月頃六·二五動亂의 爆擊으로 破壞되었던 鳥致院市場의 下水에 이 石像이 디딤돌로 使用되고 있어서 女信徒들이 運搬夫를 시켜서 邑外의 瑞光庵까지 運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市場內의 場所는 日帝時의 東本願寺앞이며 日本人이 所藏하고 있었다고 傳한다.

이와같이 이 石佛像은 본래 鳥致院邑內에서 戰災를 免하며 再收拾된 것을 알았지만 그 以前에 어디에서 搬出된 것인가 推測케 하는 것은 없고 그 樣式과 記錄에 의하면 이 石像도 蓮花寺의 石像과 마찬가지로 碑岩寺近隣의 古代寺址에서 日帝時에 運搬된 것으로 推測되나 現狀으로는 推定에 끄칠 뿐이며 今後의 調査를 기다려야만 하겠다.(7)

한편 蓮花寺石像의 發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傳하였다.

蓮花寺는 燕岐郡西面月河里一區에 있는 瓦葺二棟의 私設法堂으로 甲寅年(一九一四)의 設立이며 設立者는 故茸文燮氏로 現所有者는 그의 子婦인 曺昌禮女史이다. 이 蓮花寺는 鳥致院邑에서 南西約二粁(瑞光庵부터 西二粁의 距離)地點에 얕은 丘陵을 등에 지고 西向이지만 古代寺院址와는 何等의 關連이 없다.

法堂의 前面에 奉安된 石像二個는 함께 創建 당시에 他処에서

運搬되어온 것이라고 하며, 또한 同一場所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그 場所로서 現所有者의 傳言과 調査者 李在玉氏의 調査에 의하면西面双流里－傳稱生千寺(?)址라고 한다. 이 石像들은 上記場所에서 發見(現夢에 의한 것이라고도 함)된 것이라고 하며, 또한 石窟같은 場所에 放置되었던 것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運搬場所라고 하는 生千寺址는 碑岩寺와 山頂하나를 境界로 하여 約二粁程度의 距離로 南·北으로 떨어져 있으며 그 寺址에는 瓦片이 多數 散布되어 있다고 한다.(8)

結局 앞서부터 說明한대로 舊燕岐地區와 舊全義地區를 明白히 갈라놓는 車嶺山脈의 一脈(=雲住山脈)의 南인 鳥致院附近과 그 山脈의 北인 全義地區의 碑岩寺에서 出現한 石像등은 各各 다음과 같다.

△ 鳥致院附近(碑岩山南)에서 發見된 石像

⑴ 瑞光庵三尊千佛碑像 (=癸酉銘眞牟氏三尊千佛碑像)

⑵ 蓮花寺戊寅銘半跏思惟三尊石像

⑶ 蓮花寺無銘七尊石像

△ 全義碑岩寺(碑岩山北)에서 發見된 石像

略

鳥致院에서 發見된 三個의 石像을 黃壽永博士가 말하듯이 碑岩寺石像과 「同一의 蠟石系石材를 材料로 하여 造成된 점과, 그 樣式이나 銘文으로 보아서 거의 때를 같이 한 一群의 發願施納의 香徒들과 同系의佛師에 의하여 同一地區에서 만들어진 것」(9)이라고

할때 그 原位置는 確實치 못하다 할지라도 鳥致院附近으로 比定하여야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石像三個의 原位置는 西面双流里(=碑岩山南)의 生千寺址부터 鳥致院附近까지의 山脈南의 舊街道를 따른 東西八粁의 範圍로 보아야할것 같다.

要컨데 여기에서 問題된 「鳥致院附近」은 舊燕岐縣의 東北끝이며 여기를 境界로 하여 내(=鳥川) 하나를 건너 옛날이나 지금이나 淸州地區와 接하고 北으로는 全義地區와 接하고 있다. 따라서 古來로 이곳에 「鳥川院」이 設置되었었고, 「鳥致院」이라는 地名도「鳥川院」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歷史的으로 百濟時代에 熊津(=公州)을 根據로 했던 百濟第一의 豪族 眞氏의 領域의 東北方의 境界는 舊燕岐地區의 東北端에 位置한 鳥致院附近에 比定할 수 있고, 이 比定은 所謂 鳥致院附近에서 眞氏의 銘이 있는 瑞光庵三尊石佛 즉 癸酉銘眞牟氏三尊千佛像의 出現에 의하여 크게 그 確率을 높일 뿐 아니라 石佛像 自体의 稀貴함으로 보거나 發願香徒가 二百五十名이나 된 점으로 보아 豪族 眞氏의 勢力에 關하여 많은 것을 推察할 수 있는 것이다.(10)그리고 古來로 淸州(統一新羅時代의 西原小京)과 熊津을 連結하는 舊百濟街道는 「淸州(西原小京)－鳥致院－龍岩里－双流里(生千里)－靑蘿里－公州儀堂－熊津(都督府)」를 經由하였던 것이다. 이百濟街道는 井上秀雄敎授 製作의 「新羅五道推定圖」에도 잘 나타나있는 바이며, 双流里에 있는 生千寺址로부터 碑岩寺까지는 碑岩山의 고개길을 北으로 넘어 二粁의 距離이며 生千寺址는 公州에서 東北으로 四〇余里의 距離이다.

(四) 全氏와 碑岩寺와 石佛像

鳥致院附近에서 出現한 三尊千佛石像은 앞서 檢討한 바와같이 그 銘文의 判讀으로 百濟眞氏가 主体가 되어 造成된것이 確實하지만, 碑岩寺의 阿彌陀佛三尊石像은 碑岩寺自体와 함께 全氏가 主体가 되고 거기에 眞氏와 木氏가 呼應하여 造成된 것이 確實한 것 같다. 왜냐하면 碑岩寺의 阿彌陀佛三尊石像의 銘文이 다음과 같이 解釋되기 때문이다. 즉 아퍼 列擧한 同銘文은 먼저 側面(向右)의 部分과 前面부터 側面(向左), 거기에 後面(各段向右像부터)의 部分과의 두 部分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겠는데 그러면 側面(向右)의 部分은 主로 「石佛像」에 關連된 記事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造寺」에 關해서는

歲次 日
□□癸酉年四月十 □兮乃末 □□□首 全氏道推 □發願敬 □供
眞 百
爲□彌次 乃□正乃末 全氏□□「□等□五」十人 智識共 國王大臣」及七世父母含靈等願敬造寺智識銘記 達率身次願 眞武??
□□□□ 木劦??願

이라하여 大意를 살펴보면 「歲次 癸酉年四月十□日에 全氏의 發願敬造에 彌次乃眞正乃末과 全氏□□□等百五十人의 智識들이 더불어 國王과 大臣과 七世父母의 靈의 鎭安을 願하여 寺院을 敬造하여 드린다. 智識들의 名을 記하여 達率身次願 眞武大舍願 □□□ 木劦大舍 發願」이라는 意味로 볼 수 있다.

다음에 石佛像에 關하여는 먼저 前面에 前文을 실어서 槪況을 記述하고 있는데, 여기에 「全氏□□ 述況□□ 二兮□□ 同心敬造阿彌陀佛 像觀音大 世至像大 □道□□ 上爲□□願敬造□佛像此□此石佛像內外十方 十六□□」라고 傳하듯이 全氏등에 의한 阿彌陀佛像과 觀音大世至像의 「同心敬造」에 대한 述況이다.

이 前文에 이어서 側面(向左)에 「歲次□□年四月十五日爲□敬造此石誌□ □□□使眞公□ 木□□願 道作公願」이라하여 歲次와 함께 發願者들을 傳하고 있는데 이 石佛像의 경우도 發願者로서 前文의 全氏와 함께 眞氏와 木氏를 傳하고 있다. 그리하여 發願者의 記名은 後面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要컨데 이 銘文은 欠字가 많아서 完全한 解釋은 期待할 수 없지만, 明白히 檢出된 文字에 의하여 癸酉年四月十□日에 全氏의 發願에 彌次乃의 眞氏가 呼應하고 다시 여기에 木氏가 呼應아여 寺院이 「同心敬造」되고, 한편 □□年四月十五日을 期하여 全氏의 發願과 거기에 眞氏와 木氏가 呼應하여 石佛像이 만들어지고 施納된것은 明白한 일이다. 따라서 碑岩寺의 「造寺」는 癸酉年四月十□日의 發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石佛像의 發願歲次는 欠字때문에 確實치 못하다고 하겠지만 石佛像自体에 癸酉年이 나타나 있으니 이것 역시 癸酉年의 歲次로 보아 無妨할 것이다.

이와같이 刻記銘에 의하여 碑岩寺는 癸酉年－太宗武烈王十三年의 創建이며, 石佛像 역시 同年의 製作 施納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그러면 碑岩寺는 統一新羅初期의 創建이라는 뜻이 된다.

이리하여 碑岩寺의 創建年代로서 앞서 問題가 되었던 五鳳元年이

라는 것은,「統一新羅初期」라고 傳해졌던 碑岩寺의 創建年代가 後代에 내려와서 「新羅初期」로 잘못 傳해진고, 잘못 傳해진「新羅初期」를 後日 具体的인 年代로 고쳐서 新羅始祖王이라는 朴赫居世가 卽位했다는 「五鳳元年」이 된 것으로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五) 百濟木刕氏 의 原鄕

百濟眞氏가 百濟王家와 二部体制를 取했던 大豪族이듯이 百濟木氏도 또한 百濟八姓－즉 百濟八豪族중의 大豪族이었음은 隋史 · 北史括地志 · 通典등에 百濟大姓으로서 「沙氏· 燕氏 · 刕氏 · 解氏 · 眞氏 · 國氏 · 木氏 · 苩氏」른 傳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木氏는 木刕(협)氏이며, 木刕氏는 실지는 木刕(리)氏라는 것도 今西龍과 李弘稙博士, 그리고 筆者에 의한 上揭 諸論者 로서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木刕氏에 關하여는 三國史記 蓋鹵王二十一年条에 의하면 高句麗의 長壽王에 의하여 國都漢城(廣州)이 陷落되고 蓋鹵王이 殺害된 後에 文周王이 熊津(公州)으로 南行할 때 同行한 人物로서 祖彌桀取와 木刕滿致가 傳해지고 있다.

……文周乃興木刕滿致 · 祖彌桀取(木刕 · 祖彌皆複姓. 隋書以木刕爲二姓 · 未知熟是)南行焉

三國史記編者는 「文周王이 木刕滿致 · 祖彌桀取와 함께 南行하였다」고 傳하고, 이에 注記하여 「木刕 · 祖彌 모두 複姓이며, 隋書는 木刕을 木 과 刕의 二姓으로 하였는데 어느쪽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이 경우의 木과 刕은 (실지로는 木刕)이며, 祖彌는

眞 즉 眞牟이다.

要컨대 蓋鹵王이 敗亡하고, 文周王이 熊津으로 遷都한 때도 眞氏와 木氏의 盡力이 多大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겠는데, 그러면 百濟의 有力한 豪族으로서의 木氏－木劦氏는 어디를 根據로 하고, 領域으로 하였던 것일까.

百濟眞氏가 代代로 車嶺南인 熊津을 根據로 했던 豪族이며, 熊津方面에서 舊燕岐縣의 東北끝인 鳥致院(鳥川院)方面을 領域으로 하였던 豪族이었듯이 百濟木氏는 代代로 車嶺東인 舊全義地區로부터 그 東部인 木川 · 鎭川地區(慰禮城이 있는 聖居山南)를 領域으로 하였던 大豪族이 아니었을까? 이것을 示唆해 주는 것이 다음과 같은 本百濟地名－大木岳郡, 統一新羅時代地名－大麓郡, 高麗時代－木州등의 地名일 것이다.

大麓郡 本百濟大木岳郡. 景德王改名. 今木州. 領縣二 馴雉縣 本百濟甘買縣 景德王改名 今豊歲縣. 金池縣 本百濟仇知縣 景德王改名 今全義縣(三國史記 地理三)

本百濟地名인 大木岳郡이라는 것은 大木岳郡과 通하는 것이 있을 뿐아니라 統一新羅時代의 大麓郡은 大木麓郡의 省略이라면 大木麓郡은 大木劦郡과 通하는 점이 있음이 留意된다. 그러나 그것은 여하튼 大木岳郡, 大麓郡의 地名은 高麗 · 朝鮮朝에는 木州郡,現在는 木川面(天安郡)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地名에 보이는 百濟以來의「木」은 맥第木氏 즉 百濟木劦氏의 「木」에 起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仇知縣(全義地區)과 隣接한 甘買縣(豊歲地區)

이 木川郡의 屬縣이었다는 事實은 木州와 全義의 歷史的地理的關係를 示唆해 줄 뿐 아니라 全義地區에 創建된 碑岩寺의 發願에 木刕氏가 參加할 뿐 아니라 碑岩寺의 石佛像의 發願施納에도 參加한 것은 百濟木氏가 代代로 全義地區와 因綠이 깊은 豪族이며 아마도 木州地區－本百濟時代의 大木岳郡을 根據로 한 大豪族이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한편 木刕氏가 처음부터 全義地區와 何等의 因綠이 없고, 全然利害關係가 없는 豪族이었다면 全義地區에 세워진 碑岩寺의 發願創建에 參加하고, 그 위에 石佛像의 發願施納에 積極的으로 參加했을 까닭도 없는 것이다.

碑岩寺石佛像의 銘文에 나타난 眞牟氏와 木刕氏에 대하여는 以上 살펴본 바와 같지만, 그러면 碑岩寺의 創建만이 아니라 石佛像의 發願施納에 主体였던 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銘文의「全氏」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이 경우에 특히 留意되는 점은 銘文에 傳하는 바「全氏」는 確實히 眞氏와 木氏와 同等이라느니 보다도 上位에 位置하여 寺院과 石佛像의 發願施納의 主体가 되어 도리어 眞氏와 木氏등의 大豪族이 從屬하여 參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것은「全氏」가 碑岩寺가 建立되어있는 全義地區 또는 그에 가까운 地區를 領域으로 하였던 豪族이었음을 意味하지만,「全氏」는 眞氏와 木氏와는 달리 韓國側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는 勿論 日本側의 日本西紀 · 古事記에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中國側의 唐書 · 舊唐書以前의 史書에 全然 보이지 않는 姓族이다.

따라서 「全氏」는 碑岩寺가 建立된 地域의 無名의 小豪族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그와같은 無名의 小豪族의 寺院建立이나 石佛像施納에 百濟眞氏와 木氏등의 大豪族이 從屬的으로 參加할 뿐 아니라 達率과 乃末(奈末), 그리고 大舍등의 高位高階에 있는 者들이 百余名씩이나 發願者 또는 香徒로서 網羅되어 參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要컨데 銘文에 관한 限 「全氏」는 眞氏와 木氏보다 優位에 있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下位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大豪族으로서 碑岩寺의 創建과 石佛像地納에 主体가 된 것은 確實하다.

東國輿地勝覽卷十八 全義縣条에도 全義方面의 姓氏로서 全氏가 筆頭에 오른것을 보면 朝鮮朝初期에도 全氏가 이 方面의 大姓이며,아마도 高麗中期頃의 製作으로 보이는 「碑岩寺의 石塔」도 그들의 發願施納임을 推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統一新羅初期에는 이제까지 言及한대로 桂惟明全氏阿彌陀佛 外에도 己丑銘阿彌陀佛石像과 彌勒半跏思惟石像을 施納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石佛像들은 모두가 稀貴한 傑作품이다.

結局 이러한 것은 銘文의 「全氏」가 無名의 小豪的인 아니라 瑞光庵三尊石佛碑像(=癸酉銘眞牟氏三尊佛碑像)을 發願施納한 眞氏보다 못하지 않은 大豪族이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全氏」는 三國史記·日本書紀·中國側史書 등에 全然 보이지 않으니 여기에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全氏」의 實態에 대하여 새로운 檢討가 必要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六) 全氏는 余氏의 改姓

韓國의 大姓은 거의가 新羅系를 稱하고 있지만 全氏는 百濟系를 稱하고, 本源的인 本貫으로 天安을 稱하고 있다. 天安全氏의 族譜는 그 始祖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一世 始祖 歡城君 全聶 百濟始祖溫祚王開國初 公與烏干·馬黎·乙音·解婁屹干·郭忠·韓世寄等九人共治事以十濟攻臣 始封歡城君 時百濟元年癸卯漢城帝鴻嘉三年也 盖歡城天安之古 而全姓發詳之地 是以設壇竪碑於天安郡豊歲面三台里歲一享也

여기에 보이는 溫祚王의 開國이라는 것, 烏干·馬黎등의 十濟功臣이라는 것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始祖条 前文에서의 轉引이며, 年代도 「百濟元年癸卯漢城帝鴻嘉三年」을 그대로 轉寫해 놓고 있다. 始祖全聶의 子 虎翼은 「百濟多婁王時爲兵相 漢光武建武中元間이라하여 百濟의 多婁王의 時代에 兵相 이 되었는데 때는 漢의 光武·建武·中元의 期間이었다는 것이다.

天安全氏譜는 이와같이 「始祖全聶一子虎翼」이라고 傳하고, 다시 「後孫－世宗道－二世樂－三世洪建」을 傳하며, 後孫－世宗道는 新羅末期의 定康王代에 文科에 及第하여 丞相이 되고, 그의 子인 後孫二世樂은 高麗太祖의 開國功臣으로서 官은 三司에 이르렀다는 것것이다.

結局 三國史記에는 勿論, 日本史側史書,中國史側史書에 一切 全氏가 보지 않으니 後孫－世宗道가 定康王時에 丞相의 되었다는 것도 第三의 客觀的史料에 의하여 뒷받침할 수 없으니 確實해지는 것은 高麗初부터인 셈인데, 그러면 「歡城天安之古号而全姓發詳之地」에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즉 歡城은 天安의 古号이며 全姓의 發詳의 地라는 것이다.

要컨데 全氏가 百濟系이며 歡城=天安方面이 發祥의 地라는 이 記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碑岩寺 石佛像의 刻記銘에 보이는 「全氏」이다.

그런데 碑岩寺가 있는 位置는 舊燕岐地區와 舊全義地區를 別界로 갈라놓는 地點일 뿐 아니라 公州地區와 天安地區를 갈라놓는 地點이다. 이것은 附圖를 보면 參考가 되겠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碑岩寺 건너편에 솟은 國士峯(俗稱 국수봉)이 燕岐郡(舊燕岐縣과 舊全義縣을 金併해서된 燕岐郡을 말함)과 公州郡과 天安郡(現在의天原郡)의 三郡의 境界가 되어 있다. 이것은 地勢로 보아 오랜 옛날부터의 일로 보아야 하겠지만, 要컨데 碑岩寺의 位置를 天安地區의 南端으로 볼 때, 碑岩寺自体와 그 石佛像이 全氏의 發願施納이라는 것은 全氏가 天安地區와 因綠이 있었던 姓族이었다는 바를 意味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시 앞서 言及했던 「歡城天安之古号而全姓發詳之地」라는 記事와 對應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古來로 天安地區를 根據로 했던 全氏이기 때문에 天安地區의 南端으로 볼 수 있는 位置에 碑岩寺를 創建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되풀이 해서 檢討한 結果로 古代史書에 百濟의 全氏에 대하여 傳하는 것이 없고, 中國史書가 傳하는 百濟의 八姓에도 全氏는 보이지 않으며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에도 全然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史書들에 全然 傳하지 않는 全氏가 主体가 되고, 거기에 이러한 史書들에 뚜렷이 그리고 陸續하여 傳

하는 百濟의 第一豪族인 眞氏와 第二豪族인 木氏가 從屬的으로 參加하고, 當時로서는 最高位級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達率 · 乃末 · 大舍등 百余人을 香徒로 하여 碑岩寺를 創建하고 石佛像을 施納했다는 것이다. 즉 百濟史的 立場에서는 眞氏와 木氏를 從屬시킬 수 있었고, 達率 · 乃末 · 大舍등을 百余人이나 動員할 수 있었던 百濟의 勢力으로는 百濟王家인 扶余氏 즉 余氏外에는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碑岩寺의 創建과 石佛像地納에 百濟王家인 「全氏」가 主体가 되고, 거기에 百濟第一의 豪族인 眞氏와 第二豪族인 木氏가 從屬하여 參加한 것이라면 理解가 가지만 國內外 史書에 一切 言及이 없는 全氏가 主体가 되고 거기에 眞氏와 木氏가 從屬的으로 參加한 것이라면 理解가 가지않는 것이다. 여기에 諸史書에 나타난 余氏와 眞氏와 木氏의 關係를 대충 살펴보기로 하겠다.

(七) 余氏와 眞氏와 木氏

大体로 歷史時代로 생각되는 古爾王代와 確實한 歷史時代인 近肖古王代에 있어서의 眞氏의 活躍에 대하여 三國史記는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古爾王七年 拜眞忠爲左將(眞忠을 左將으로 하다)

古爾王十四年 拜眞忠爲右輔. 眞勿爲左將. 委以兵馬事(眞忠을 右輔로하고, 眞勿을 左將으로 하여 兵馬事를 맡기다)

古爾王二十八年 拜眞可爲內頭佐平(眞可를 內頭佐平으로 하다)

近肖古王二年 拜眞淨爲朝廷佐平. 淨王后親戚…(眞淨을 朝廷佐平으로하다. 淨은 王后의 親戚이며…)

近仇 首王二年　以王舅眞高道爲內臣佐平. 委以政事(王의 舅父인 眞高道를 內臣佐平으로하고, 政事를 맡기다)

三斤王二年　佐平解仇與恩率燕信聚據大豆城叛. 王命佐平眞南.以兵二千討之. 不克. 更命德率眞老. 師精兵五百. 擊殺解仇.……(佐平인 解仇와 恩率인 燕信이 大豆城 에서 叛乱하다. 王이 佐平인 眞南을 시켜 兵二千으로 討伐케하였으나 이기지못하다. 다시 德率인 眞老에 命한바 精兵五百으로 解仇를 擊殺하다.…

東城王四年　拜眞老爲兵官佐平兼內外兵馬事(眞老를 兵官佐平으로 하고, 兼하여 內外兵馬事로 하다)

古爾王紀 · 近肖古王紀 · 近仇首王紀 · 三斤王紀 · 東城王紀에 보이는 이러한 眞氏의 勢力에 關한 것은 大体로 歷史時代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음의 例는 歷史時代에 있었던 일에 대한 反映으로 理解된다.

多婁王十年　右輔屹于爲左補. 北部眞會爲右輔(右輔인 屹于를 左補로하고, 北部의 眞會를 右輔로 하다.)

近肖古王四十九年　命北部眞果. 領兵一千. 襲取 石門城 (北部의 眞果에 命하여 兵一千을 이끌고 靺鞨의 石門城을 襲取케 하다.)

이러한 眞氏에 關하여 李弘稙博士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眞氏는 王室의 外戚－以上十一人을 列擧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近肖古王代의 眞高道가 王舅이었다는 점이 具体的으로 그 一門의 存在를 明示하여 다음은 이 兩王代부터 百濟가 確實한 歷史時代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점과 함께 더욱 眞氏의 勢力을 크게 評價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百濟 初期에 나타난 眞會 · 眞果등 以前의 眞氏라는 것은 眞淨 眞高道등의 有力한 實在에 起點을 두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11)

또한 博士는 多婁王紀와 近肖古王紀의 眞會·眞果에 대하여「그러나 三國史記 百濟本紀중에서 이 王까지의 歷史가 未詳의 部分에 屬하며 北部라는 部名도 이 時代에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 할 수 없다」(12)고 하였는데, 百濟의 五方五部의 制가 實地로는 施行되기는 今西博士가 말하듯이 武寧王의 後期부터 聖明王의 初期에 있었던 일로 보아야 하고, 더욱 確實한 것은 泗沘遷都以後의 일로 보아야할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것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多婁王紀의 眞會 近肖古王紀의 眞果가 實在人物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眞氏는 百濟國의 有力한 氏姓으로 實在했고, 實在했던 眞氏는 北部眞會와 北部眞果의 例로서 代代로 北部를 根據로 하고 있었던 有力한 豪族이었음이 示唆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周書와 北史등의「北方日熊津城」이라는 記事에 의하여 이 경우의 北部라는 것은 北方熊津城 즉 지금의 公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今西龍博士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要컨데 泗沘王都時代의 北部는 熊津으로서 熊津은 全羅道를 包括한 百濟全土에서 北部에 해당하며 中部는 古沙夫里 즉 古阜方面이었을 것이다.(13)

百濟眞氏는 이와같이 熊津을 根據로 하고 있었던 百濟豪族이 確實하며 眞淨은 近肖古王의 王后의 親戚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近肖古王은 眞氏의 婿이며, 다음의 近仇首王의 舅父가 眞高道였으니 近仇首王도 眞代의 婿임이 確實하다. 勿論 眞淨과 眞高道가 얼마나 가까운 親戚이었나 그 관계는 確實치 않지만, 요컨데 眞氏가 王后의 親戚 또는 王의 舅父로서 百濟第一의 權勢家이며 豪族으로서 百濟王家가 도리어 眞氏의 勢力을 그 基盤으로 하고 있었던 바를 充分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言及한대로 北方民族에 普遍的인 二部体制的인 社會 組織을 생각케하는 바이지만 近仇首王의 元子가 枕流王이며, 辰斯王은 近仇首王의 仲子이니, 枕流王과 辰斯王의 兩代王이 直接 眞高道의 外孫이다. 辰斯王 다음이 阿莘王이며, 阿莘王이 또한 眞武의 婿인데, 眞武에 대하여 百濟本紀는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阿莘王二年春正月. 拜眞武爲左相. 委以兵馬事. 武王之親舅. 沈毅 有大略. 時人服之.

阿莘王二年春三月. 王命左將眞武等伐高句麗. 麗王談德(=廣開土王) 親師兵七千. 陣於浿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阿莘王代가 高句麗의 廣開土王의 時代에 해당하며, 高句麗의 南下攻擊이 激烈했던 때이다. 이때의 百濟의 軍政은 眞氏出身이며 王의親舅였던 眞武가 掌握하고 있었다.

日本書紀 天智二年九月条에 의하면 周留城이 陷落하고 많은 百濟人이 日本으로 건너갔지만 「甲戌. 日本船師及佐平余自信. 達率木素貴子. 谷那晋首. 憶禮福留 . 幷國民等至於 ??禮城. 明日發船始向日本」이라하여 日本으로 건너간 百濟人으로서 余自信과 木素貴子와 晋首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余自信은 佐平으로 余氏이며, 木素貴子는 達率로서 木氏이며, 晋首는 眞氏로서 「晋」(진)은 「眞」(진)의 代字일 것이다.

이와같이 百濟王姓인 余氏와 眞氏 그리고 木氏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었는데 이 關係는 三國史記나 日本書紀가 傳하는 바 始終一貫하여 變한 일이 없었다. 즉 眞氏와 木氏는 百濟第一 또는 第二豪族으로서 實存했던 것이며, 王家인 余氏와ㅏ 始終 運命을 같이 했던 것이니 이 關係는 碑岩寺三尊石佛의 銘文에도 그대로 나타날 만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銘文으로 보아 眞氏와 木氏가 寺院建立과 石佛施納에 從屬的으로 參加한 것이 確實하다고할 때,主体가 된 勢力으로는 百濟王家인 余氏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14)

이것은 文周王의 南行遷都의 경우와 함께 이제까지 살펴본 三姓의 關係로 보아 거의 疑心할 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대로 碑岩寺三尊石佛의 刻記銘文에서는 全氏와 眞氏와 木氏의 關係로 되어 있기 때문에 三國史記나 日本書紀 등

을 通하여 百濟의 余氏와 眞氏와 木氏의 關係를 아는 立場에서는 三尊石佛의 銘文의 「全氏」는 「余氏」가 아닌가? 그래서 百濟史自体가 三姓의 協助와 消長의 歷史이듯이 碑岩寺의 創建이라는도 三姓의 「同心敬造」로 이루어지고 石佛像도 「同心願敬造」된 것이 아닌가 하여 되풀이해서 現物刻記銘을 檢証하고 되풀이해서 拓本을 떠서 檢証하지만 역시 「余氏」보다는 「全氏」가 確實하니 「全氏」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대로 全氏는 三國史記나 日本書紀 그리고 中國側史書에 一切 보이지 않는다.

結局 碑岩寺를 創建하고 石佛像을 施納한 主体로서의 「全氏」는 「余氏」이며, 「余氏」가 百濟滅亡後에 「全氏」로 改字하고, 改姓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歡城=天安이 發祥의 地라는 것은 天安과 같은 方面의 稷山을 發祥의 地로 하였다는 意味일 것이다. 즉 稷山余氏는 百濟王家이며 稷山慰禮城을 旗城으로 하였던 余氏이다. 余氏가 百濟滅亡後에 全姓으로 改字하고 改姓하였다면 三國史記, 日本記紀, 中國側史書등 諸古代史書에 「全氏」가 보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比定은 全氏는 처음서부터 全氏로 存在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非現實的인 比定이라고 할 것인가.

「天安全氏譜」에 轉載된 「万姓譜」의 記事로서 다음과 같은 民間說話를 傳하고 있다.

全氏, 夏禹氏의後裔로서 王蒙이라고 불리운 者가 孔甲의 乱에 劉果와 함께 朝鮮으로 逃亡왔다. 辰韓·馬韓時에 童謠에 가라사대 草家의 人으로서 王이되니 蒙이 트림없이 王이 되리라. 王蒙이 이

것을 듣고 몸을 海濱에 숨어서 世人이 自己를 알 것을 두려워하며 王字위에 人字를 冠하니 이로서 姓을 全氏로 하였다.

「万姓譜」가 傳하는 이 說話는 全氏는 勿論 왠만한 사람이면 모두가 잘 아는 바이지만 全氏는 처음서부터 全氏라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王氏가 全氏로 改字하고 改姓했다는 內容인데, 차라리 改姓한 것이라면 앞서 되풀이 說明한대로 約一, 三〇〇年前에 百濟가 滅亡하면서 余氏가 全氏로 改姓한 것으로 보는 편이 現實的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說話는 全氏는 王姓의 改姓이었다는 古來의 傳承이 實際로는 王姓이었던 余氏가 全氏로 改姓한 것임을 잊고, 王姓 즉 「王」字 姓에 「人」를 冠하여 「全」姓이 된 것으로 訛傳되어 夏禹의 後裔였다는 三, 五〇〇年前의 아득한 傳說時代의 「王家」의 「王」字에 附會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二, 五〇〇年前에 있었다는 箕子東來說조차 믿는이가 차차 없어지는데, 三, 五〇〇年前의 王蒙의 東來는 더욱 믿기 어려고, 東來하여 「王蒙」이 「全蒙」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것이다.

(八) 八一〇年間의 空白

앞서 全氏를 余氏의 改姓으로 比定하고 그 時期를 約一, 三〇〇年前인 百濟가 亡하면서라고 하였다. 그러면 앞서 部分的으로 檢討했던 天安全氏譜自体는 이와같은 比定에 關與할 수 있고, 否定할 수 있는 確固한 것을 갖춘 것일까 하는 것이 問題가 되겠는데 天安全氏譜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이 問題에 關與할 만한 것을 갖지 못하고, 否定할 수 있을만한 確固한 것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溫祚王(西紀前 18年～28年까지 在位) ……始祖全聶

多婁王(28年 ~ 77年 까지 在位)……子虎翼

⋮

(810年間의 空白)

⋮

定康王(886年 ~ 887年 까지 在位)……後孫一世宗道

天安全氏譜에 의하면 始祖인 全聶은 溫祚王代의 人物이며, 虎翼은 多婁王代의 人物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後孫一世宗道는 定康王代의 人物이라고하여 虎翼과 宗道사이의 約八一〇年이 完全한 空白으로 되어 아무런 것도 傳하지 않는다.

溫祚王이나 多婁王을 女使시대의 王으로 볼 수 없다는 史學界의 定論를 따르면 넉넉잡고 四世紀中葉부터 七世紀의 六〇年代까지를 本百濟時代로 보아야 하겠는데 그러면 本百濟時代를 通하여 天安全氏譜는 아무런 것도 傳하는 것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天安全氏譜는 六七〇年頃에 余氏가 全氏로 改姓한 것이라는 앞서의 比定에 關與할 수 없고, 否定할만한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天安全氏譜에는 溫祚王의 十濟功臣으로 全聶·烏干·馬黎·乙音·解婁·屹干등을 列擧하고 있지만 百濟本紀 始祖条에는 十臣으로 「烏干·馬黎等」이라고 할뿐 全聶을 傳하지 않았으며, 乙音은 溫祚王의 「族父」라 하고, 十臣의 하나라고는 傳하지 않는다. 그리고 解婁는 右輔를 拜하고 屹干는 馬首山西에서 靺鞨軍을 擊破하였다고 傳하지만, 그들이 十臣이었다고는 傳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全聶 이 溫祚王의 하나였다는 것도 確固한 根據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편 百濟初期의 王都에 대하여 三國史記는 河南慰禮城을 傳하고 三國遺事와 東國輿地勝覽은 稷山慰禮城을 傳하고 있기 때문에 學界에 廣州說과 稷山說이 팽팽하게 맞서 있지만, 우선 이 경우에는 確實한 歷史時代인 近肖古王二十六年多条의 「移都漢山」을 參照하여야할 것이다.

高句麗擧兵來. 王聞之.복병어패하상.사기지급격지.고구려병패북.다. 왕여태자사정병삼만. 침고구려.공평양성. 록왕사유(=고국원왕)력전거지. 중류실사. 왕인군퇴. 이도한산

近肖古王은 二十六年(三七一)에 高句麗郡을 浿水上에서 大破하고 冬에는 平壤城을 攻擊하여 固國原王이 流矢에 맞아 戰死하는 大勝利를 거두고 돌아와 漢山으로 移都했다는 것이니 百濟初期인 그 당시의 王都가 廣州(漢山)에 있었다면 近肖古王이 「移都漢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拙稿 「百濟舊都稷山考」(15)에서 昭詳히 밝힌 바 있거니와 다음에 「百濟」라는 國号는 馬韓五十余國중의 一國인「伯濟國」의 「伯濟」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學界에서는 「伯濟」의 具体的인 所在를 가지고 역시 廣州說과 稷山說이 맞서 있는데 이 경우는 三國史記 地理志의 다음의 記事가 參照될 것이다.

白城郡 本高句麗奈兮忽 景德王改名 今安城郡 領縣二 赤城縣本高句麗沙伏忽 景德王改名 今陽城縣 蛇山縣本高句麗縣今稷山縣(三國史記 地理二)

統一新羅時代의 「白城郡」의 「白城」이 「백재」이며,이「백재」라는 固有地名을 本百濟時代에는 「百濟」로 表記하여 國号로 하고, 魏志韓傳 馬韓条에는 「伯濟」로 表記되어 傳해진 것이 거의 疑心할 바 없

으니 安城 · 稷山方面이 「백제」였다고 보아야 하고, 近肖古王 二十六年에 漢山(=廣州)으로 移都하기 까지는 稷山에 百濟王都가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要컨데 百濟初期의 王都가 漢山(=廣州)일 수 없고, 「백제」가 廣州일 수 없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充分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稷山과 成歡과 天安이 같은 方面에 있는 百濟王都와 그 周邊의 近郊인데, 百濟初期에 余氏아닌 全氏가 있어서 「全聶」이라는 이를 王都의 近郊에 「歡城郡」으로 封할 까닭이 없고, 歡城이라는 地名도 이때부터 있었던 地名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稷山慰禮城이 僞傳이라고도 하는 이도 있지만, 稷山慰禮城은 僞傳이 아니며, 百濟라는 國号가 「十濟」에서 「百濟」가 된 것이 아니라 稷山慰禮城이 있는 稷山 · 安城方面의 古地名인 「백재」에서 비롯된 바가 確實하다고 하겠으니 「十濟之國」의 「十臣」이니, 「十濟之功臣」이니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自明한 일이다.

이와같이 天安全氏譜는 그 發祥에 대하여 嚴密한 檢討에 견딜만한 確固한 것을 傳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그리고 모든 譜가 거의 그렇지만 —天安全氏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⑴ 全氏는 百濟系統으로 커다란 勢力이었다.

⑵ 전씨는 稷山 · 成歡 · 天安方面을 發祥之地로 하였다.

⑶ 全氏는 처음에는 「王姓」이었는데 이것을 「全姓」으로 改姓하였다.

이와같은 傳承을 改姓한지 約一, ○○○余年이나 지난 後代에 族譜의 体裁를 갖추기 위하여 百濟本紀始祖条를 받침으로 하여 具体的으로 記事化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百濟系로서 稷山 · 天安方面을 發祥之地로 한 王姓이었다면 이것은 分明히 稷山을 發祥之地로 한 百濟의 余氏王都이며, 「余」字와 「全」字는 字形이 비슷할뿐 아니라 「余」字는 쉽게 「全」字로 改字할 수 있다는 것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百濟系이며 稷山 · 成歡 · 天安方面을 發祥之地로 한 王姓으로서 六七三年癸酉年당시 寺院建立이나 石佛像施納에 百濟眞氏와 木氏를 從屬的으로 參加시킬 수 있고, 達率이나 乃末등 高位高階에 있는 者들을 百余人이나 香徒로서 網羅할 수 있는 勢力으로는 余氏를 들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王姓인 余氏를 全氏로 改姓한 全氏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要컨데 百濟王家의 古來부터의 領域은 稷山 · 安城方面이며 그 姓은 扶余氏－余氏로서 熊津北의 車嶺고개를 南界로 한 것인데 碑岩寺는 車嶺고개 가까이의 形勝之地를 擇地하여 位置하고 있다. 따라서 碑岩寺는 稷山地區의 南界에 位置한 셈이며, 全義 · 木川地區의 西南界에 位置한 셈이다. 그리고 熊津地區의 北界에 位置한 셈이니, 結局 碑岩寺는 全氏 · 眞氏 · 木氏 三姓의 領域境界에 位置한 샘이 되는 것이다.

옛부터 双流里쪽에서 生千寺址를 거쳐서 碑岩寺에 이르는 고개길을 「三姓고개」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고개가 余氏와 眞氏와 木氏 三姓의 領域境界의 고개인 때가 있었기 때문에 「三姓고개」

라는 고개이름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고개로 이어 生千寺址와 碑岩寺는 約二粁의 距離이며, 다시 이 고개에서 東으로 二粁쯤 떨어져서 「雲岾寺」址가 있다.

(九) 碑岩寺와 周留城

百濟國의 核心이 된 三姓은 余氏·眞氏·木氏인데, 그 關係에 대하여는 위에서 略述하였다. 그리고 이 三姓의 領域의 境界는 熊津北의 車嶺고개로서 碑岩寺는 車嶺가까이의 形勝之地에 建立되었다는 것도 言及하였다. 그뿐아니라 余氏는 그의 領域의 南界에 碑岩寺를 創建하고 稀貴한 石佛像을 施納하였다는 것도 알았다.

潢壽永博士는 이점에 대하여 「百濟遺民의 一群이 國亡前後에 무엇인가의 事情으로 燕岐一帶 를 根據로 하개 되어으며 그後 戰乱이 끝나고 얼마後에 新羅國王으로부터 官等授與가 있었던 것을 契機로 하여 當代의 信仰에 따른 造像發願－이것은 同時에 伽藍의 建立 또는 旣存을 前提로 한다－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고(16) 하였다.

그러면 百濟遺民의 一群이 國亡前後에 어떠한 事情으로 이 燕岐一帶를 根據로 하게 되었으며, 그 事情이란 具体的으로어떠한 事情이었을까?

이 問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余氏·眞氏·木氏의 三姓이 主動이 되어 百濟國末에 車嶺山脈속의 要害地帶인 全義地區를 根據로 하여 百濟復興을 위하여 抗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稷山·安城地區를 領域으로 하였던 余氏와 公州地區를 領域으로 하였던 眞氏와 木川地區를 領域으로 하였던 木氏등 百濟

國의 核心的 三姓이 三姓의 領域의 中心地帶로서 車嶺山脈 속에 形成된 自然的 要害地帶이며 本百濟時代부터 많은 山城을 築造하여 難攻不落으로 알려졌던 全義地區를 根據로 하여 抗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周留城의 抗戰이었을 것이며 이 問題에 대하여는 拙稿「全義周留城考証」에서 詳細히 論하였다.

이와같이 碑岩寺의 問題만이 아니라 周留城의 問題도 다음과 같은 百濟國家의 基本的構造의 問題로서 王家와 豪族과의 特殊한 關係를 通하며 理解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선 碑岩寺創建이 余氏가 主体가 되고 거기에 眞氏와 木氏가 從屬的으로 參加하여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周留城陷落後에 日本으로 亡命한 周留城抗戰의 主役으로 佐平인 余自信과 木素貴子와 晋(眞)首등 —— 역시 余氏와 木氏와 眞氏를 傳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言及한 바 있거니와 日本의 天智朝에서는 余自信에게「大錦下」라는 官爵을 내린 것으로 보아 이들을 周留城抗戰의 主役으로 보는 것이며, 이들이 한결같이「兵法에 通達(閑兵法)했다」는 日本書紀의 說明에 의하여, 兵法에 洞達했던 周留城抗戰의 主役들로 보고자하는 것이다.

百濟三姓은 이와같이 碑岩寺의 創建과 周留城抗戰에 있어서만 不可分의 協力關係에 있었을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文周王이 南遷할 때도 三姓이 協力했고, 高句麗의 廣開土王의 大大的인 南下攻擊때도 역시 그러했다.

結局 百濟國家 基本助構造는 所謂 强力한 主權에 의한 中央集權的인 國家가 아니라 原始的民主制에서 發展한 古代封建國家로

서 各自가 領域을 가지고 領域에서 武裝權을 가진 豪族이 그 領域의 支配權을 갖는 ——이것이 領主이다—— 몇名인가의 領主들에 의하여 그중에서 가장 有力하고 德望있는 領主가 選任推戴되어서 王으로 卽位한다. 王과 領主는 基本的으로 主從關係이지만 領主는 各自의 領域內에서 武裝權을 갖고 支配權을 갖는데는 變함이없다. 일단 諸豪族 集團에 의하여 選任推戴되어 王家가 되면 王家의 身分은 諸豪族集團에 의하여 保証되지만 王은 또한 諸豪族의 領域權에서의 武裝權과 支配權－領域權을 保証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要컨데 諸豪族集團은 王家의 安全과 利益을 保証하고, 王家는 대신 諸豪族의 安全과 李謚을 保証해 주어야만 한다. 이와같은 王家와 諸豪族集團에 의한 國家의 大事 · 小事－國事는 王家에 의하여 專制的으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原則的으로 諸豪族集團의 意思에 의하여 決定되고 執行된다. 말하자면 諸豪族이 더불어 國事를 執行하는 것이다.

北方扶余系의 騎馬民族에 의하여 成立된 百濟의 경우도 그 基本的인 原理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어서 稷山 · 安城地區를 領域으로한 余氏와 熊津地區를 領域으로한 眞氏와 木川 · 鎭川地區를 領域으로한 木氏와 車嶺以西의 禮山 · 唐津地區를 領域으로한 解氏와 泗沘 · 舒川 地區를 領域으로한 砂宅氏등은 北方民族에 普遍的인 五部組織인데, 이 五部組織에서 王家로 選任推戴된 것이 高句麗의 南下에 效果的으로 對應하고 있었던 稷山 · 安城地區를 領域으로하고 있었던 扶余氏로서 「百濟」라는 國名은 앞서 言及한대로 稷山 · 安城方面의 固有地名인 「백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稷山

舊都에서 新都漢山으로 移都한 것이 三七一年 近肖古王二十六年冬인데 近肖古王은 三六九年(近肖古王二十四年)九月에 雉壤에 侵入한 故國原王의 高句麗軍二万을 무찌르고, 三七一年九月에 다시 浿水(=禮成江)에서 高句麗軍을 敗北시키고는 그해 겨울에는 太子(近仇首王)와 함께 精兵三万을 이끌고 平壤城을 攻擊, 高句麗王이 戰死하는 大勝利를 거두고 돌아와 「移都漢山」을 實現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王家를 비롯한 百濟의 豪族들은 六六〇年에 泗沘王城이 陷落되고, 다시 六六三年에는 抗戰의 最後據點이었던 周留城이 陷落된 後 어떻게 된 것일까. 이점에 대하여 흔히 戰勝한 羅唐軍에 蹂躪되어 完全히 滅亡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그 反對로 周留城의 抗戰後에 百濟遺民들은 唐側의 甘言利說에 動搖되지않고 武烈王과 金庾信이 이끄는 新羅軍에 合勢하여 唐軍을 鴨綠江밖으로 逐出하는 戰爭에 떨쳐나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 自身의 生活基盤을 回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하여는 井上秀雄氏의 다음과 같은 所說이 參照될 것이다.

이와같이 外勢에 대하여 熾烈하게 싸워서 이긴 歷史를 가진 朝鮮의 諸族은 六七〇年以後의 新羅의 對唐戰爭을 단순한 占領地分割에 얼킨 戰爭으로 보지않고 自身들의 生活에 關係된 問題로 보았다. 그렇기때문에 敗戰國에 隷屬해 있었던 舊百濟·舊高句麗地域의 住民도 積極的으로 對唐戰爭에 參加하였다. 地方豪族으로 代表되는 住民들은 新羅王朝와 貴族層이 實權을 掌握하고 있었던 新

羅의 中央政權을 위하여 强大한 唐과 싸운 것이 아니라 自身들의 生活權을 守護하기 위하여 싸운 것이다. 그런고로 겨우 數年前까지만 해도 그들이 所屬했던 高句麗王朝가 新羅에 졌다고 해서 侵略해 들어온 唐과 妥協하는 일 없이 自身들의 居住權을 死守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地方豪族을 中心으로한 村落共同体의 눈부신 活動이 個別分散하지않고 强大한 軍事力으로 溫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新羅王 太宗武烈王과 그 다음의 文武王의 政策에 힘입은 바 크다. 武烈王은 實權을 掌握하고 있었던 中央貴族의 勢力을 누르기 위하여 그가 가장 信賴히였던 重臣인 金庾信은 그 自身이 地方豪族이었기 때문에 地方의 民心을 收攬하는데 能하였다. 武烈王과 金庾信은 協力하여 그때까지의 國政이 中央貴族의 基盤이었던 新羅王畿 偏重된 것을 고쳐서 王畿에서나 地方에서나 同一한 政策을 쓰기로 하였다. 또한 百濟의 舊臣일지라도 新羅에 歸順한 者들은 積極的으로 登用하여 地方勢力과 舊敵國의 勢力을 新羅王밑에 結集시켰다.(17)

古來의 慶州貴族의 勢力을 누르고 새롭게 登場한 太宗武烈王과 金庾信의 勢力은 舊百濟의 地方豪族을 中心으로한 村落共同体라 할지라도 그 傳統的制度를 分散解体시키지 않고 그 勢力을 그대로 自身의 勢力下에 集結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對唐戰爭에 勝利할 수 있는 体制를 갖추고 對唐戰爭에 勝利함으로서 民族統一의 기틀을 잡은 것이지만, 이와같은 武烈王과 金庾信의 舊百濟勢力에 대한 政策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서 碑岩寺의 創建과 石佛像의 發

願施納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周留城이 陷落되고 十年後인 癸酉年에 百濟余氏는 그들의 舊領域의 南界인 車嶺고개 가까이 碑岩山의 形勝之地에 碑岩寺를 創建했을뿐 아니라 稀貴한 石佛像을 施納할 수 있었던 것은 稷山·安城地區를 領域으로 하고 있었던 領主로서의 權利를 認定받았던 것을 意味할 뿐 아니라 이러한 寺院建立과 佛像의 施納에 參加한 眞氏와 木氏에 대하여도 그들의 古來의 領域에 대한 權利를 大体로 認定해주었던 것을 意味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한편 癸酉年四月十五日를 期 하여 施納된 바가 確實한 瑞光庵三尊千佛碑像을 비롯한 同系의 石佛像이 大体로 眞氏의 領域의 東北方의 境界로 보이는 鳥致院附近에서 出現했고, 다시 이 石佛像들의 原位値를 碑岩寺가 있는 碑岩山의 南麓(公州쪽)의 年千寺址로 볼 때, 六七三年 당시 百濟眞氏에 대하여도 舊來의 眞氏의 領域을 認定하고, 領主로서의 權利를 그대로 認定해 주었던 바를 意味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六六八年에 高句麗가 敗亡하면서부터 六七七年까지 新羅는 唐과 싸워서 唐의 勢力을 鴨綠江 밖으로 몰아낸 것인데, 이러한 唐의 勢力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敗戰國인 百濟와 高句麗의 遺民들이 新羅의 勢力에 加擔했기 때문인데 碑岩寺의 創建과 石佛像 施納은 이러한 歷史的上皇을 傳해줄 뿐 아니라 六七三年 당시 豪族을 中心으로한 舊百濟勢力이 大体로 그대로 新羅王밑에 溫存하고 있었다는 歷史的狀況을 如實히 傳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民族的인 大和合이 이루어지지않았던들

新羅가 唐과 싸워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며, 新羅가 唐과 싸워 이기지 못했다면 그後의 民族統一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稷山地區를 領域으로 하였던 全氏가 稷山 또는 安城, 또는 天安등 그들의 領域의 中心部의 形勝之地를 擇地하여 寺院을 建立하지 안혹, 何必日 領域의 南界로 보이는 車嶺고개 가까이 碑岩山에 寺院을 建立하고, 眞氏 또한 그 領域의 北界인 碑岩寺의 南麓(公州쪽)에 寺院을 建立하고 稀貴한 石佛像을 施納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점에 대하여는 뒤에 言及한 「雲岾寺」와 함께 생각해볼 때 다음과 같은 것을 推測할 수 있다.

첫째는 이 一帶가 百濟末의 抗戰基地로서의 周留城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冥福을 빌고 鎭魂을 위하여 寺院을 建立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둘째로는 六七三年 당시 古來의 領域에 대한 領主權을 새로 인정받은 三姓이 그동안 曖昧해진 三姓의 領域境界에 대하여 再調整하고 再確認하면서 三姓境界의 形勝之地에 三姓이 各各 寺院을 建立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稷山의 王城을 「비암재」(蛇山城)라고 한 것은 古代王家로서 宗拜한 水德의 象徵으로서의 龍神信仰 또는 蛇神信仰에 緣由한 것인데. 稷山의 「비암재」는 古來로 「蛇山城」으로 表記되어오다가 景德王代에 「稷山城」으로 바꾸어 表記한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비암산」에 있는 「비암골」의 「비암사」로 불리우는 경우 「비암」은 「碑岩」이 아니라 역시 古代王家에서 水德의 像徵으로 崇拜한 蛇神信仰에 緣由한 名稱으로 보아 무방

할 것도 같다.

(十) 雲岾寺址에 대하여

東國輿地勝覽 全義縣 佛字条에 雲岾寺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傳하고 있다.

雲岾寺 在雲住山 崔有??詩 寺在烟霞 裏層巒第幾重山深松落江闊水落 溶講榻臨無地禪窓倚半空回頭塵世遠老衲自從容

雲岾寺는 輿地勝覺編纂 당시만해도 建在했던 것인데 그 後에 廢寺가 되어 現在 寺址에는 礎石와 瓦片, 그리고 塔의 基壇部등이 破壞된 채 어지럽게 흩어져있을 뿐이다. 그리고 廢井가에 여름한철을 「虎杖」이라는 稀貴한 植物이 芭蕉잎처럼 茂盛하여 보는 이의 눈길을 끌게 한다.

輿地勝覺에 실린 雲住山 一帶에 古蹟은 다음과 같다.

⑴ 金伊城 在雲住山 石築一千五百二十八尺 內有一井 今廢

⑵ 雲岾寺 在雲住山 崔有??詩 寺在……

⑶ 李城 在雲住山北峯 石築 世傳……

이것으로 보아 金伊城이 構築된 山峯이 雲住山이며, 雲岾寺가 있는 山峯이 역시 雲住山이며, 李城이 있는 山峯도 雲住山인데 이것을 雲住山北峯이라고 한 것임이 틀림없다. 즉 南方 碑岩山에서 北으로 逆流하여 뻗어온 山脈을 雲住山이라고 일컬어온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같은 輿地勝覺의 다음 記事로서 金伊城이 構築된 山峯을 金城山이라고도한 것을 알 수 있다.

金城山 在縣南八里 有古石築

要컨데 雲岾寺址는 金城(金伊城)에서 北으로 一里의 至近한 距

離에 있으며, 全東面松城里 後山으로서 雲住山의 鵲城의 바로 아래에 形成된 形勝之地이다.

이 寺址에서 松城里(=물돌이, 水回里)앞을 돌아서 現 「개미굴」의 溪谷으로 빠지는 河川을 굽어볼 수 있으니 이 絶景을 崔有??이 「山深松落江闊水落」表現한 것이다.

이 雲岾寺가 廢寺가 되기는 아마도 寺址가 前案이 되는 건너편 龍穴에 金自點이 그의 先祖의 墳墓를 쓰면서 그 墓 를 正面으로 굽어보는 寺刹을 마구잡이로 完全破壞한 것으로 推測이 되지만 要컨데 ??棺斬屍 당하였다는 金自點의 先祖墳墓의 前案이 되어있는 점이 注目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寺址자리가 어지러운 것으로 보아 寺刹이 오랜 年月을 두고 徐徐히 頹落하여 廢寺가 된것이 아니라 一時에 마구잡이로 狼籍하게 破壞한 흔적이 歷歷한 점이 注目된다.

雲岾寺址는 碑岩寺와 至近한 距離에 있을뿐 아니라 生千寺址와도 至近한 距離에 있는데, 三寺중에서 雲岾寺址가 東쪽에 있어서 全義 · 木川쪽에 가까운 점이 注目된다. 이것은 필경 碑岩寺가 稷山余氏가 主体가 되어 建立되었기 때문에 北側－稷山쪽에 있고, 生千寺가 熊津眞氏에 의하여 建立되었기 때문에 南側－熊津쪽에 섰고, 雲岾寺가 木川木氏에 의하여 建立되었기 때문에 東側－木川쪽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注目되는 것이다.

그리고 生千寺址가 있고, 碑岩寺가 있는 쪽은 熊津方面에서 全義地區로 들어서는 直接的인 外廓地帶라면, 雲岾寺址가 있는 쪽은 儒城 · 鳥致院 · 淸州方面에서 全義地區로 들어서는 直接的인 要衝地

帶이기 때문에 周留城抗戰에 있어서의 激戰地로 보아야할 것이다.

現在 車嶺山脈의 南과 北을 이어주는 京釜線鉄道와 國道가 雲岾寺址 건너편의 「터널」을 通過하고, 狹谷을 通過하여 天安－全義－烏致院－大田으로 通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書紀의 天智紀에는 「疎留城을 根據로 하여 抗戰하는 豊王의 百濟軍과 倭軍 때문에 熊津과 泗沘의 唐軍이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치지 못하고, 新羅가 西쪽으로 熊津과 泗沘에 物資를 輸送供給할 수 없었다.」고 傳하는데 疎留城(소루재)는 「솔재」(松城)에 대한 日本式 表記로서 疎留城은 具体的으로 公州北四〇里에 位置한 雲岾寺址와 같은 方向의 金城－鵲城－李城등 諸城을 意味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諸城들을 百濟軍이 掌握하고 있는 根, 熊津의 唐軍이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칠 수 없고, 新羅가 西쪽으로 物資을 輸送하여 熊津·泗沘의 唐軍에 供給하기 어려운것이다.

이와같이 周留城抗戰이라고 하여도 그 主力은 稷山余氏와 熊津眞氏와 木川木氏로서 三姓의 領域中心部가 全義이다. 앞서 言及한대로 周留城이 陷落한 後에 日本으로 亡命한 主要人物로서 余自信과 木素貴子와 晋(眞)首를 傳한 것도 偶然이 아니며, 碑岩寺三尊石佛碑像의 刻記銘에 全氏와 함께 眞牟氏와 木劦氏가 보이는 것도 偶然이 아니다. 勿論 眞牟氏의 千佛碑像이 烏致院附近에 出現하고, 그 原位置로서 碑岩寺南의 公州쪽인 生千寺址로 比定되는 것도 偶然한 일이 아니다.

앞서 雲岾寺는 木川木氏가 主動이 되어 創建한 것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雲岾寺에 대하여는 碑岩寺나 生千寺와는 달라서 全氏阿彌

陀佛石佛碑像 또는 千佛碑像과 같은 刻記銘을 가진 石佛像이 出現하지 않았기 때문에 創建年代나 建立者등에 대하여 一切 알 길이 없으니 섭헙한 일이다. 앞으로 있을 寺址에 대한 本格的인 調査가 期待된다.

註

註 (1) 黃壽永 「韓國佛像의 硏究」(서울 三和出版社刊)參照

(2) 「燕岐石佛像」에 대하여 고고미술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論考들이 있다. 奏弘燮「燕岐의 三尊千佛碑像」(「考古美術」三巷九号 1961年9月)

奏弘燮 「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대하여」(「歷史學報」17, 18合併号 1962年6月)

黃壽永 「碑岩寺所藏의 新羅在銘石像」(「考古美術」 一券四号 1960年12月)

黃壽永 「燕岐蓮花寺의石像」(「考古美術」 三券五号1962年5月)

黃壽永 「公州石造佛像의 調査」(「東國史學」 第六輯1960年12月)

(3) 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百濟史硏究」所收

李弘稙 「百濟人名考」(「韓國古代史의硏究」所收

拙稿「百濟眞氏と任那問題の本質」(「東アジアの古代文化」 第6号所藏 拙稿 「日本古代國家と朝鮮」(東京 大和書房刊)所收

(4) 北方民族에 普遍的이었던 二部体制로서는 다음과 같은 例가 理解에 參考가 될 것이다.

單于의 后妃인 閼氏는 原則的으로 貴姓 · 名族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單于의 氏族인 ??鞮氏와 그 姻族인 異姓氏族을 血緣關係로 結合할뿐 아니라 兩者가 單于밑에서 匈奴國家의 支配關係에 合作 · 協力하여 國家의 基礎를 强固케 하는데 이바지하게 했다.

이와같이 匈奴國家에서는 單于의 支配權, 統制力의 基盤으로서 單于出身氏族과 異姓隣族의 二「크릅」이 있어서 이것이 根幹氏族, 特權氏族으로서 國事를 獨占하였다.……(江上

波夫「騎馬民族國家」參照)

百濟國에서도 原理的으로 같은 바있어 王姓인 余氏와 異姓隣族인 眞氏가 많은 境遇에 國事를 獨占하였다.

(5) 北方語로서 「神人」 즉 sharman을 Kam, Kom, Koma-michi라고 하였는데 「고마나무」(熊津)의 原義는 「神津」의 뜻이며, michi-naru라고 하여도 「神津」의 뜻이다. 그래서 「彌次乃」를 「Koma-na」(神江)의 一名일 수 있는「michi-na」(神江)으로 보았는데 確言할 수는 없다.

(6) 井上秀雄「新羅史基礎研究」(東京 東出版 刊) 參照

(7) 黃壽永 前揭書 參照

(8) 黃壽永 前揭書 參照

(9) 黃壽永 前揭書 參照

(10) 百濟眞氏는 王家와 二部体制를 取한 異姓姻族으로서 큰 勢力을 가졌던 만큼 稀貴한 石佛像을 施納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11) 李弘稙 前揭論文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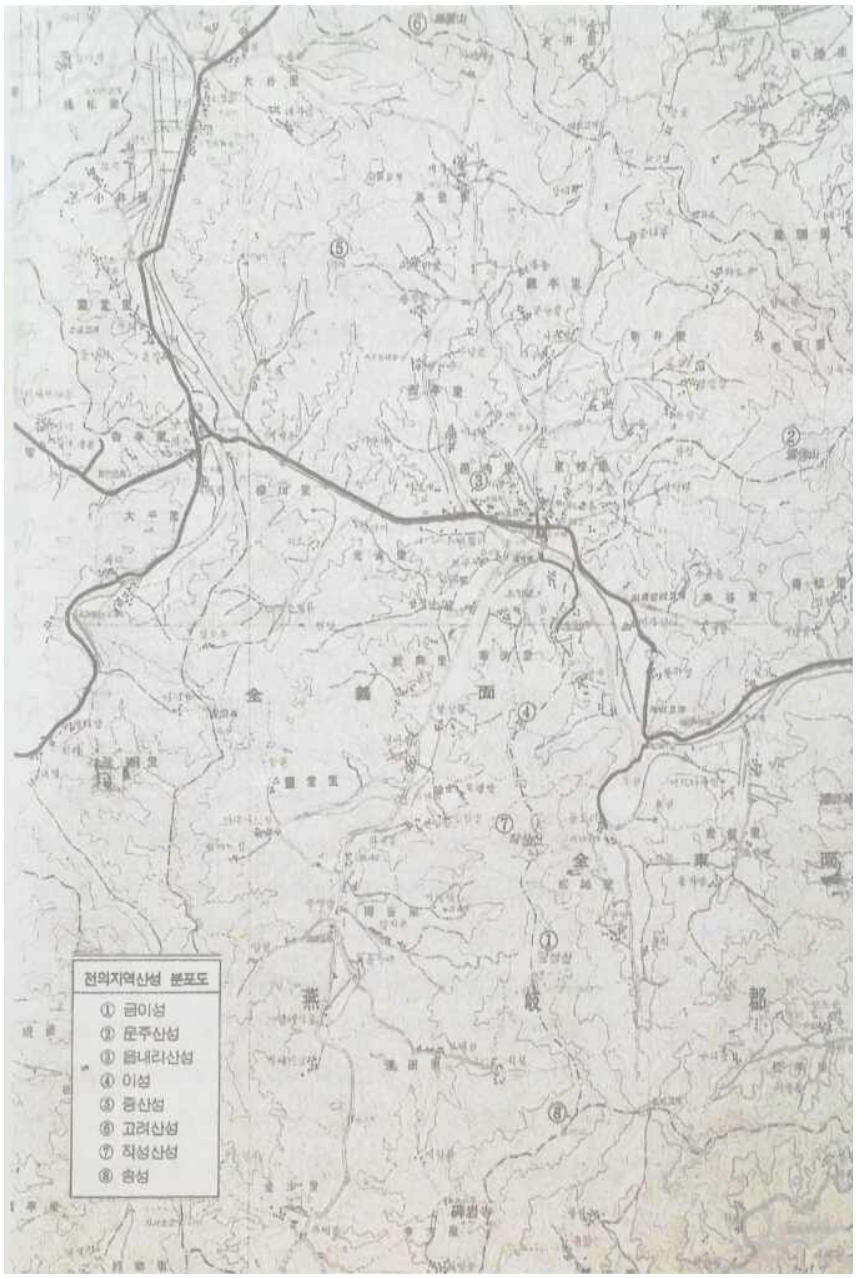
(12) 今西龍 前揭論文 參照

(13) 今西龍 前揭論文 및 「百濟五方五部考」 參照

(14) 앞서 百濟王家와 眞氏는 二部制로 取하고, 眞氏는 異姓姻族으로서 王家와 함께 國政을 獨占했다고 했다. 따라서모든 面에서 眞氏를 從屬시킬 수 있는 것은 王家뿐이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15) 「朝鮮學報」(第七〇輯 所載)

(16) 黃壽永 前揭書 參照 (17) 井上秀雄 前揭書 參照


전의지역산성 분포도
① 금이성
② 문주산성
③ 읍내리산성
④ 이성
⑤ 중산성
⑥ 고려산성
⑦ 작성산성
⑧ 송성
全 義 面
全 東 面
燕 岐 郡

金 伊 城 硏 究

— 歷史性과 築城形態를 中心으로 —

序 文

金 在 鵬

전의 주변의 산성을 답사하는 학자들은 그 학자가 백제성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리고는 백제성은 300*m* 이상의 고지에는 없다고 한다.

전의 주변의 산성으로 금이산성 · 이성 · 운주산성은 300*m*가 아니라 하나같이 400*m*이상의 고지에 있다. 그러면 금이산성 · 이성 · 운주산성은 백제성이 아니단 말인가?

백제성 중에서도 한산왕도시대의 몽촌리토성 · 풍납리토성은 강변의 얕은 지대에 있고 이성산성은 200*m*정도의 얕은 구릉에 있다.

따라서 그와같은 강변의 얕은 지대나 200*m*정도의 구릉에 있는 백제시대의 성만을 보아온 학자들은 전의에 와서는 첫째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대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쌓은 산성들을 보고 놀라며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산왕도시대에는 고구려의 왕도는 압록강 건너 집안 輯安)에 있었지만 웅진왕도시대에는 고구려의 왕도는 평양에 있었고 고구려는 차령산맥 북인 지금의 직산 · 성환까지를 영토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고구려로부터 웅진왕도를 보호하려고 천안과 웅진의 중간이며 차령산맥속에 있는 전의 주변의 높은 곳인들 마다할 수 없이 쌓아서 고구려의 남하를 막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전의 주변의 하나의 산성으로 금이산성은 성 자체로서 어떠한 규모를 갖추고 어떠한 역사를 간직한 것인가 살펴보기로 하겠다.

第 Ⅰ 部

1. 金伊山城에 관한 旣往의 諸說

金伊山城에 대하여 忠南大學校博物館長 成周鐸敎授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1)

達田里「金城山城」

金城山城은 莘芳里「李城山城」과 多方里「碑巖寺」중간 쯤에 있는 全義面 達田里 東方 標高 424m의 金城山에 石築으로 축조한 城周 약 500m의 테뫼型 山城이다. 東國輿地勝覽과 大東地志의 기록은 서로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같으므로 金城山에 있는 山城임이 틀림없다. 城은 自然割石으로 內外夾築을 하고 있으며 폭 5m의 北門址와 水口겸 門址 로 사용 되었을 同門址가 남아 있다. 城內에서는 百濟土器片과 格子文 · 魚骨文의 瓦片이 출토되고 있으며 後代의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註를 달았다.

<東國輿地勝覽> 全義縣山川條, 金城山 在縣南八里
有古石城
古蹟條 -金伊城 在雲住山 石築周一千五百二十八尺 內有一井 今廢
金正浩,〈大東地志〉全義 地池條, 雲住山南城 東南八里一千五百二十八尺井一俗稱 金城山城

한편 公州師範大學博物館長 安承周敎授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金 伊 城

記錄檢討

金伊城은 全義面에서 南으로 5.5㎞지점에 있는 金城山에 築造되어 있는 山城이다. 城은 山頂을 中心으로 순수한 石築으로 꾸민 둘레 660m의 규모인데 먼저 城에 對한 文獻記錄부터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義縣 古蹟條에는:金伊城 在雲住山石築周一千五百二十八尺內有一井今廢

라는 古蹟條의 記錄과 함께 同勝覽의 全義縣 山川條에는

金城山, 在縣南八里有古石城

이라 적고 있다.

또한 大東地志 卷 5 全義縣의 城池條에는

雲住山南城:東南八里 周一千五百二十八尺井一俗稱金城山城

라고 적고 있다.

以上은 記錄의 檢討이고 다음은 城內에서 수습한 遺物에 대한 說明이다.(2)

收拾된 土器片은 항아리,사발,대접편으로 경질, 연질이 섞였으나, 경질의 경우 表面은 格子文이나 內面에도 施文具로 두드린 흔적이 있는 後代의 土器이다. 더불어 연질의 경우 胎土가 매우 거칠기는 하나 비교적 정선된 것이며 더불어 器形에 있어서 口綠이 百濟항아리의 형태를 닮았지만 분석결과 百濟土器는 아니었다. 즉 百濟土器가 지닌胎土나 文樣 그리고 燒成의 특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收拾된 기와편은 비교적 높은 온도로 구운 것인데 색조는 흑회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형태는 매우 투박한 모습이다. 이곳에

서 출토되는 기와편은 모두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인데 背面의 문양은 魚骨文이 中心을 이루고 있으며 魚骨文, 線文이 결합된 것이 가끔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 기와편들의 製作時期는 高麗時代를 벗어나지 못하는것으로 판명되는바, 土器片과 함께 城內에서 出土되는 遺物은 高麗時代의 것만 보일뿐 그 이전이나 이후에 속하는 유물이 전혀 찾아지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위에 引用한 成周鐸敎授와 安承周敎授의 說明에는 다음의 差가 있다.

첫째 城內에서 收拾된 遺物에 대하여 成敎授는 「城內에서는 百濟土器와 格子文·魚骨文의 瓦片이 出土되고 있으며 後代의 遺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安敎授는 결론으로써 「이 기와편들의 製作時期는 高麗時代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바 土器片과 함께 城內에서 收拾되는 遺物은 高麗時代의 것만 보일 뿐 그 이전이나 이후에 속하는 유물이 전혀 찾아지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여 成敎授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두 敎授중에서 누구가 옳고 누구가 그르다고 할 수도 없으니 遺物의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史學硏究의 原則으로 돌아가 우선 文獻부터 檢討하기로 하겠다.

2. 三國史記의 金峴城

安敎授가 「記錄檢討」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고 成敎授가 註에서 밝힌 바와 같이 東國輿地勝覽 全義縣 山川条에서 金城山〔在縣

南八里有古石城〕이라 전하고 古蹟條 에는 金伊城〔在雲住山 石築周一千五百二十八 尺 內有一井 今廢〕이라고 전하였지만 雲住山에 있는 것이 金伊城이 아니라 縣南八里에 位置한 金城山에 있는 것이 金城이며 金伊城일 것이다. 물론 이 山城의 原名은 金城이며 金伊城은 金城에 發音上 「이」(伊)音이 添加된 後代의 名稱일 것이다.(3)

金城 즉 金伊城은 東國輿地勝覽에 전하였으니 분명히 朝鮮朝初期에도 있었다. 그러나 金伊城에 대하여 高麗史 및 高麗史節要등 高麗朝의 文獻記錄에 보이는 것은 없다. 따라서 文獻記錄에 의거하는 한 金伊城을 高麗朝에 築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三國史記 百濟本紀 聖王二十八年(550) 春正月条에 전하는 다음의 金峴城이 全義의 金城 즉 金伊城이 아닐까?

聖王이 達己將軍에게 一萬의 兵을 딸려 보내어 高句麗의 道薩城을 攻取하였다. 三月에는 高句麗의 兵이 金峴城을 포위하였다.
(王遣將軍達己. 領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三月.高句麗兵圍金峴城)

한편 高句麗本紀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陽原王 六年(550)의 春正月에 百濟가 來侵하여 道薩城을 함락시켰다. 三月에 百濟의 金峴城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新羅人이 사이에 뛰어들어 二城을 빼앗았다.(百濟 來侵. 陷道薩城. 三月. 攻百濟金峴城. 新羅人乘間取二城)

百濟本紀와 高句麗本紀에 전하는 바 550年 정월에 百濟軍이 高句麗의 道薩城을 공격하여 빼앗으니 3월에 高句麗軍은 百濟의 金峴城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新羅軍이 사이에 뛰어들어서 高句麗의 道薩城과 百濟의 金峴城을 빼앗았다는 內容이다.

그러면 高句麗의 道薩城은 구체적으로 어느 城을 말하는 것이며 百濟의 金峴城은 어느 城을 말하는 것일까?

3. 金峴城은 全義의 金城

李丙燾博士는 高句麗의 道薩城과 百濟의 金峴城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4)

聖王二十八年(西紀 550)에 高句麗의 道薩城(天安?)을 拔하고 또 高句麗가 백제의 金峴城(全義?)을 陷落하여 兩國의 兵이 함께 疲勞에 빠졌을 때 新羅는 이틈을 타서 伊湌異斯夫로 하여금 군사를 내어 위의 두 城을 襲取한 일이 있엇다.

한편 博士께서는 長壽王以後 高句麗의 全盛時代에 있어서의 高句麗의 南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아울러 高句麗의 道薩城은 天安임을 거듭 밝혔다.(5) (補註)

擴大된 高句麗의 南界가 지금의 竹嶺·鳥嶺에까지 達하였던 것은 諸記事에 依하여 分明히 알려진 事實이며, 竹嶺 以南의 一部 및 領東西에 있어서의 界線도 三國史記 地理志에 依하여 이를 多少 把握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 地理志에 나타나는 高句麗 所有時代의 郡縣名에 依하여 그 南界를 考察 하면, 竹嶺 以南에 있어서는 지금 榮州·奉化 順興·禮安 等地와 嶺東에 있어서는 지금 江原道의 蔚珍·平海는 勿論, 慶北의 盈德에까지 미쳤고, 嶺西에 있어서는 槐山·鎭川·稷山이 다 그所有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但 天安만은 그 所屬이 分明하지 않다. 天安의 古名은 高麗史 地理地等書에는 兜率(東西兜率의 名이 있다 한다)로 되어 있고, 이 兜

率의 名이 저 百濟 聖王二十八年(西紀550)에 百濟가 拔取한 高句麗의 道薩城名 과 서로 音近함을 보면 실상 同名의 異寫인 듯. 이곳도 一時 高句麗의 所有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所長 權兌遠敎授가 高句麗의 道薩城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한편 高句麗全盛時代의 南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6)

百濟 聖王28年(550) 軍士萬名을 거느린 百濟將軍 達己에 의하여 高句麗가 領有했던 百濟의 舊領 道薩城 (天安地方, 輿地勝覺에 天安의 舊名이 兜率이라 하였는데 道薩은 兜率의 借音으로 추정됨)을 攻取한 것을 계기로 다음해인 聖王29年(551)에 漢江下流地域 6城인 舊百濟領을 收復하였다. 同年 新羅 眞興王은 高句麗十城을 占有하게 되고 이어 다음해인 眞興王14년(553)에는 소위 百濟의 東北邊을 攻取하여 新州(京畿道 廣州지방)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잠시 高句麗로부터 收復한 百濟의 舊領인 天安(道薩城) 稷山一圓 以北의 땅이 新羅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를 다시 收復하기 위한 血戰이 管山城에서 있었고 이로 인하여 百濟 聖王은 新羅軍에게 大敗하여 悲運을 당하게 된 것이다.

長壽王의 南進에 의하여 高句麗의 당시 版圖가 南쪽으로 는 牙山灣에서 竹嶺·鳥嶺, 平海에 이르는 즉 稷山·鎭川·榮州·奉化, 順興·禮安·蔚珍·平海·盈德에까지 미치어 百濟·新羅의 嶺城과 境界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李萬烈, 「三國時代史」參照,知識産業社, 1985)

550年 정월에 百濟軍이 공격하여 빼앗은 高句麗의 道薩城이 구체적으로 天安地方의 城으로 본다면 高句麗軍이 3月에 역습하여

포위한 金峴城은 全義地區에 있는 城이며 구체적으로 金城일 것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같이 500年 당시 高句麗와 百濟의 境界는 車嶺山脈이며 山脈의 北인 稷山°天安까지가 高句麗領이고 山脈의 南인 全義는 百濟領으로 이때의 전쟁은 車嶺山脈을 사이에 둔 百濟와 高句麗의 전쟁일 것이다. 그리고 稷山·天安에서 車嶺山脈 境界 너머 全義地區에서 金峴城과 거의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진 城을 찾는다면 우선 金城 즉 金伊城을 들어야 할 것이다.

4. 金峴城의 「峴」에 대하여

三國史記의 金峴城은 구체적으로 全義의 金城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三國史記에도 金城이라고 전할 것이지 어째서 金峴城으로 써서 전한 것인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高句麗·百濟·新羅三國의 史料에 의거하여 마직막으로 三國史記를 編纂한 사람들은 新羅系統의 金富軾 일차의 학자 들이었다. 따라서 三國史記의 편찬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침이 있었겠지만 그중에는 다른 두사람에게 同字人名, 다른 두 곳에 同字地名의 표기를 피하였으며, 특히 百濟의 地名에 「金城」으로 記錄하기를 피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金城」은 新羅 本紀에서 新羅王都의 명칭으로 쓰이고 國王城의 명칭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始祖六十年秋九月. 二龍見於金城井中. 暴雷雨. 震城南門.(두 용을 금성의 샘속에서 보았다.……)

儒理三十三年夏四月. 龍見金城井. (용을 금성의 샘에서 보았다.…)

脫解九年三月. 王夜聞金城西. 始林樹間. 有鷄鳴聲. (王이 밤에 금성의 서쪽인 시림의 나무 속에서 닭우는 소리를 들었다.)
脫解二十四年四月. 京都大風. 金城東門自壞. (서울에 크게 바람이 불어서 금성의 동쪽문이 부서졌다.)
祇摩十二年五月. 金城東民屋陷爲池, 芙蕖生. (금성의 동쪽 민가가 함몰하여 못이되어 부초가 났다.)
奈勿三十八年夏五月. 倭人來圍金城. 五月不解. (왜인이 와서 금성을 포위하였다. 5월에도 풀어지지 않았다.)
……

방대한 三國史記의 전편을 통하여 다른 두사람에 대하여 同字人名을 쓴 예는 없고, 다른 두 곳에 대하여 同字地名을 쓴 예는 없다. 하물며 百濟의 山城名에 新羅의 王城이며 國王城인 「金城」으로 表記하여 전할 까닭은 만무한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金城」은 소위 금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金城」에 넣어도 모양과 뜻이 크게 변하지 않는 「峴」字를 넣어서 「金峴城」으로 表記하여 전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5. 金城 즉 金伊城은 新羅가 增築

앞서 550년 정월에 百濟軍은 高句麗의 道薩城을 攻取하고 高句麗軍은 3월에 百濟의 金峴城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新羅軍이 사이에 뛰어들어서 두 성을 빼앗았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新羅軍은 빼앗은 두 城을 어떻게 한것일까? 역시 두 성에 대한 新羅의 조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新羅本紀 眞興王 11年(550)条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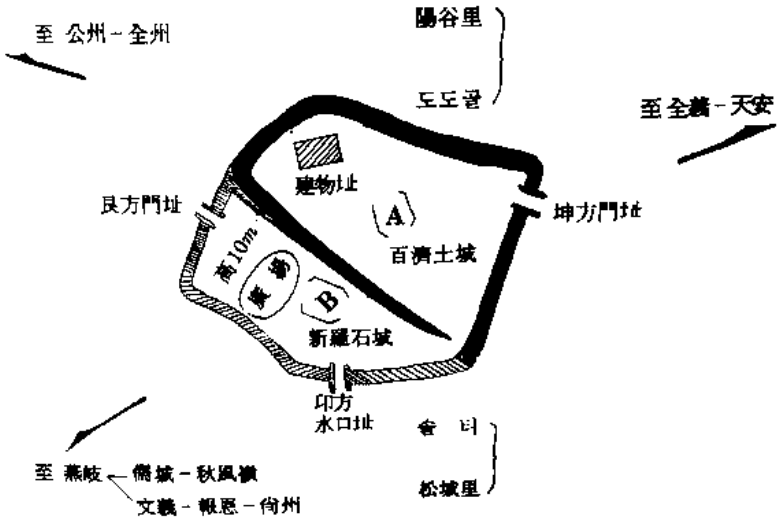
봄정월에 百濟가 高句麗의 道薩城을 빼앗고 3월에는 高句麗가 百濟의 金峴城을 함락시켰다. 王이 百濟와 高句麗의 두 나라 병사들이 피로한 틈을 타서 伊湌인 異斯夫에 出兵을 명령하여 이것을 쳐 두 성을 빼앗아 增築하고 甲士一千을 머물게 하여 지켰다.(百濟拔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湌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留甲士一千戍之)

두城을 빼앗은 新羅는 두城을 파괴해 버리거나 보수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增築」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러면 天安의 道薩城은 둘째 치고 우선 全義의 金峴城 즉 金城(金伊城)에는 百濟에서 애초에 築造한 부분과 550년에 新羅가 「增築」을 한 부분이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날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일까? 〈 金伊城의 城構造 〉

全義地區에서 北쪽으로부터 高麗山城 · 鄕校뒤土城 · 甑山城 · 高山山城 · 龍子山城 · 李城등 여러山城의 맨 마지막 후미에 위치한 金城은 처음부터 周 683m의 石城이 아니라 그다지 크지 않은 土城이었을 것이다. 즉 오늘날에도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는 〔 A 〕의 土城의 부분이 애초에 百濟가 築造한 土城으로 이것이 金城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 B 〕의 石築의 부분이 新羅가 「增築」한 부분일 것이며 특히 동쪽의 山谷間에 築造된 水門의 部門이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新羅가 「增築」한 부분일 것이다.

山城의 內部가 두부분으로 갈라져서 이쪽에서 저쪽을 볼 수 없


至 公州－全州
陽谷里
도도골
至 全義－天安
建物址
艮方門址
坤方門址
(A)
百濟土城
高10m
(B)
新羅石城
卯方
水口址
舍 目
松城里
至 燕岐
儒城－秋風嶺
文義－報恩－尙州

（金伊城의 構成）

고, 저쪽에서 이쪽을 볼 수 없게 된 그와같은 內部의 구조를 가진 山城의 예는 金伊城 말고는 또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B 〕의 부분에서〔 A 〕의 부분을 볼 수 없고,〔 A 〕의 부분에서〔 B 〕의 부분을 볼 수 없다. 다만〔 B 〕의 부분에서 폭 2*m*의 출입구를 통하여서만〔 A 〕의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결국 본래의〔 A 〕의 부분에 新羅가 550년에 石築의 부분을 달아내어「增築」한 것이〔 B 〕의 부분이며〔 B 〕의 부분 내부에 형성된 100여 평의 廣場은〔 A 〕의 부분에서 파간 흙으로 채워서 조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B 〕의 부분 내부에 형성된 100평의 廣場은 깊이 3 *m*이상의 부토의 퇴적으로 된 것이지만 그 부토는 자연적인 城內土砂의 퇴적이 아니라 新羅가 石築을 쌓고 그 안에 흙을 파다 채운 것이다. 그리고 그 흙은〔 A 〕의 부분에서 파간 흙일 것이다.

지금도〔 B 〕의 부분 내부의 廣場은 매우 평탄하지만〔 A 〕의 부분의 내부는 평탄한 것이 아니라 약 30 도의 경사진 언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B 〕의 부분으로 흙을 파간 흔적일 것이다.

요컨대 新羅는 550년에 百濟의 土城을 石材로 夾築하여 石築으로 만들고 아울러 石壁을 쌓아〔 B 〕의 부분을 달아내어「增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550년에 新羅가「增築」한 歷史的事實을 모르고 山城을 調査하는 者는 그者가 百濟城과 함께 新羅城의 特色에 대한 智識이 있으면 있을수록 困惑에 빠지고 말문이 막힐 것이다. 百濟城이라고 하기에는 新羅城의 특색이 너무 짙고, 新羅城이라 하기에는 位置가 도저히 新羅城이 있을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城自体로 보아서도 그렇고, 位置로 보아서도 그렇고, 高句麗城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百濟城도 아니고 新羅城도 아니고 高句麗城도 아니면 高麗城일 터인데 그렇다고 高麗城이라고 自信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수습할 수 없는 混亂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解族後의 國史硏究에 있어서 文獻史學을 소홀히 한데 원인이 있고 考古學一邊倒의 學風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金伊城에 관한 問題를 놓고 文獻史學과 考古學의 竝行을 생각한다느니보다도 차라리 解族後 형편 없이 弱해진 文獻史學의 重要性을 한번 더 强調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20m高地에 築造된 金伊城의 現地에서 되풀이 하여 安承周敎授는 300m以上의 高地에는 百濟城이 없다는 말을 하고 金伊城에서는 高麗時代의 遺物만 수습되고 그 以前이나 以後것은 수습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300m以上의 高地에도 얼마든지 百濟城이 있고, 金伊城內外에서 高麗것은 물론 百濟것도 수습하 수 있고, 新羅것도 수습할 수 있고, 高句麗것도 수습할 수 있는 것이다.

安敎授의 되풀이 되는 發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2일 우리는 百濟大祭를 金伊城에서 올렸다. 그리고 祭壇을 金伊城에서도 根元的으로 百濟城인〔 A 〕의 부분에 차리고〔 A 〕의 부분에서도 흙을 파가지 않고 原形을 그대로 남긴 지점에 설치하기로 했었다.

되풀이 되지만 根元的으로 金伊城이 百濟城에〔 A 〕의 부분이 金伊城 중에서도 近元的인 부분이라는 우리의 認識에서 그와같이 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金伊城이 三國史記의 百濟本紀에 金峴城으로 보일 뿐 아니라 高句麗本紀에도 보이고 新羅本紀에도 보이는 百濟城이라는

認識에서 그와같이 한 것이지만 우리의 認識에 錯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國史上의 問題로써 앞서 인용한 李丙燾博士에 의한 一節은 疑問符?를 淸算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聖王二十八年(西紀 550)에 百濟가 高句麗의 道薩城(天安)을 拔하고 또 高句麗가 百濟의 金峴城(全義 金城)을 陷落하여 兩國의 兵이 함께 疲勞에 빠졌을 때, 新羅는 이틈을 타서 伊湌異斯夫로하여금 군사를 내어 위의 두 城을 襲取, 增築한 일이 있었다.

6. 高句麗의 後退와 金伊城

百濟와 高句麗의 군대들이 稷山·天安과 全義地區에서 死力을 다하여 싸우다가 지친 틈을 타서 新羅軍이 사이에 뛰어들어 高句麗의 道薩城과 百濟의 金峴城을 빼앗아 堅固한 山城으로 「增築」한 550년의 다음해 551년에 高句麗가 北에서 突厥의 侵入을 받아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新羅軍은 忠州의 彈琴台 以北 高句麗의 10郡을 빼앗고, 百濟도 이 틈을 타 新羅로부터 全義地區와 稷山·天安地區의 諸城을 回復하고 일거에 漢江流域까지 탈환하였다.

그러나 新羅의 배신으로 이땅을 다시 잃고 平澤·安城·稷山의 線에서 新羅와의 國境이 굳어졌다. 553년에 新羅는 경기도 廣州에 新州를 설치하였다. 百濟가 이땅을 수복하기 위한 血戰이 沃川의 管山城에서 있었고 이 전쟁에서 聖王은 敗하여 전사하였다. 北漢山에 眞興王의 巡狩碑가 세워진 것은 555년의 일이었다.

결국 550년에 新羅가 빼앗아 「增築」한 金伊城은 1년후인 551년

에는 다시 百濟가 回復하였다. 그리고 그후 新羅와의 國境線이 南場灣以南 平澤 · 安城 · 稷山의 線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金伊城은 全義地區에서 550년의 百濟 · 高句麗 · 新羅三國의 混戰으로 많은 損傷을 입은 다른 城들과는 달리 오래도록 戰爭으로 파괴당하지 않고 堅固한 山城으로 溫存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이 山城이 百濟末에 抗戰의 基地가 된 理由중의 하나일 것이다.

요컨대 550년에 있었던 聖王의 북진은 百濟史 뿐 아니라 新羅史와 高句麗史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하여 金峴城 즉 金伊城에 대한 이해가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第 2 部

7. 都都岐留城과 疎留城

百濟말인 660년부터 663년에 걸친 百濟遺民들의 치열했던 항쟁에 대해서는 三國史記는 물론 新·舊唐書등에 소상히 전하였지만 직접 이 항쟁에 가담하여 싸우다가 周留城이 함락된후 日本으로 망명한 사람들의 手記에 의하여 편찬된 日本書紀의 記錄에 참고할 만한 것이 적지않다고 생각한다.

日本書紀에는 우선 鬼室福信이 西部의 任存城을 근거로 하여 항전을 시작한 것을 전한 다음 이어서 余自信의 항전의 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達率인 余自信이 中部 久麻盧利城을 근거로 하다.(어느 책에는 都都岐留山이라고 하였다.)

余自信이 이때 中部 久麻盧利城을 근거로 하였다고 전하였지만 이때에 中部 久麻盧利城(=久麻那利城=熊津城)은 唐에 의하여 함락된 것이 분명하니 余自信이 이때에 久麻盧利城을 근거로 할 수는 없었고 결국 中部 久麻盧利城의 達率이었던 余自信이 「都都岐留山」을 근거로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都都岐留山」이란 「도도골재」로서 구체적으로는 金城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公州의 熊津城에서 「곰나루」를 건너면 公州郡 儀堂面이며 儀堂面에 뚫린 길을 따라 北上하면 燕岐郡 全義面의 金城山 기슭 陽谷里가 나서는데 陽谷里쪽에서 金城山을 오늘날에도 분명히「도도골」이라고 한다.

都都岐留山 (도도기루재) = 도도골재

결국 이 記事는 中部 熊津城의 達率이었던 余自信이 660년에 泗沘

王城과 熊津城이 함락된 후 휘하부대를 이끌고 고마나루를 건너 儀堂面으로 난 길을 北上하여 陽谷里쪽에서 도도골재 즉 金城으로 들어가 근거로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서 日本書紀 662년 壬戌3월조에는 「高句麗가 日本에 救援을 요청하기에 日本에서는 軍將을 차견하여 疎留城에 근거를 두었다. 그래서 唐人은 그 南界를 칠 수 없었고 新羅는 그 西疊에 物資를 수송할 수 없었다」는 일절이 있는데 이때의 「疎留城」은 「솔재」로써 全東面 松城里 뒷산에 위치한 「松城」 즉 「솔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즉 金城은 하나의 山城이지만 西쪽인 陽谷里쪽에서는 「도도골재」이며, 東쪽인 松城里쪽에서는 「소루재」,南쪽인「쇠성골」쪽에서 보면 「금성」인 것이다.

이때 熊津의 達率이었던 余自信은 그의 部隊를 이끌고 儀堂面을 經由하여 陽谷里쪽에서 「도도골재」로 入城한 것이며 日本軍은 牙山灣쪽에서 全義邑을 經由하여 가깝게 松城里쪽에서 「솔재」로 入城한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결국 中部 熊津城의 達率인 余自信의 휘하부대와 日本에서 派遣한 軍隊가 「疎留城」을 근거로 하여 抗戰하였기 때문에 熊津都督府의 唐軍은 陸路로 北上하여 高句麗의 南界를 칠 수 없었고, 新羅는 西쪽의 泗沘·熊津의 唐軍에게 物資를 보내 줄 수 없었다. 「疎留城」 즉 金城의 위치가 熊津에서 天安으로 가는 큰길의 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550년 당시 新羅가 이 城을 堅固하게 「增築」했던 이유임은 물론이다.

8. 州条(周留)의 王城은 金城

日本書紀에 전하는 百濟末의 여러기사는 百濟에서 마지막 抗戰을 하다 日本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記錄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信憑度가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 日本書紀에서는 周留를 州条로 表記하고 州条는 地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土地가 磽确하여 農桑之地가 아니라 拒戰之場이라고 하였다.

또한 663년 8월 17일에 羅唐軍이 州条(周留)에 와서 王城을 포위하였다고 전하였다.

따라서 이 설명에 의하면 州条城 (周留城)이라고 할 때는 州条(周留) 라는 것에 있는 여러 城을 의미하여 王城이라고 할 때는 그 여러 城중의 하나의 城으로써의 王城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王城을 포위하였다」고 하여 그 王城에 다음과 같은 訓을 달고 있는 것이다.

ユキシノサシ
王　　城
ユムサン

이때의 「ユキシ」는 百濟王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王城이라는 뜻의 訓으로써 「ユキシノサシ」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의 訓인 「ユムサン」는 무엇일까? 역시 「금재」(金城)에 대한 訓은 아니었을까? 결국 이때 「금재」(ユムサン) 즉 金城이 王城(ユキシノサシ)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余自信이 熊津城으로부터 휘하부대를 이끌고 근거로 했던 「도도골재」가 金城이며, 日

本에서 파견 했던 군대가 근거했던 「소루재」가 金城이며, 豊王이 王城으로 하였던 「고무사시」가 또한 金城이었던 것이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金城自体가 熊津都督府의 唐軍과 직접 대치해 있고 內外城－土石城으로 堅固하게 構築되었을 뿐 아니라 規模가 너무 크지 않아서 守備하기 쉽고 다른 城과는 달리 이 城은 550년의 「增築」이후 별반 소상된 바 없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9. 金伊城과 藍浦城

日本書紀에는 663년 9월 7일에 州条城(周留城) 이 항복한 모습과 항복한 후 城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배타고 日本으로 건너가기까지의 실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9월 辛亥朔丁巳 (七日)에 百濟이 州条城이 비로서 唐에게 항복하였다. 이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州条가 함락하였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百濟의 이름이 오늘로 끊기니 어찌 先祖의 墓가 있는 고향땅에 다시 갈 수 있겠는가?

오직 남은 길은 ??禮城(데레재)로 가서 日本의 軍將들을 만나 필요한 일을 상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본래 枕服岐城(진보기재)에 머물고 있는 妻子들에게 百濟를 떠날 것임을 알리게 하였다.

辛酉(11일)에 그들은 牟??(무데)로 出發하였다. 癸亥(13일)에 ??禮(데레)에 도착하였다. 甲戌(24일)에 日本의 軍船과 余自信·達率木素貴子·谷那晋首·億禮福留, 거기에 百濟國의 백성들이??禮城(데레재)에 이르렀다. 다음날 배를 發하여 비로소 日本으로 향하였다.

원광대교수이사 金榮來씨의 말과 같이(7) 이 記事는

첫째, 日程과 거기 나오는 城名·地名·人名등이 正確·細密한 具体性을 띠고 있으며

둘째, 百濟側은 「國人」·「國民」등으로 略稱하고 日本側은 「日本軍將」·「日本船師」등으로 부른 것은 百濟人의 立場에서 百濟人을 主體로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日本書紀는 이 사건후 57년만에 엮어진 점으로 보아 이때 日本으로 亡命한 百濟사람들의 손으로 기록된 체험기 또는 手記를 그대로 수록 편찬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일본인의 손으로 된 것이라면 어찌 남의 나라 사람을 「國人」, 「國民」이라하고 自己나라 訓을 굳이 「日本軍將」, 「日本船師」등으로 호칭하였겠는가?

어쨌든 이 記事는 생생한 百濟人의 手記를 그대로 日本正史에 삽입한 것으로 그 日程·人名·地名등이 모두 정확한 것으로 믿어도 좋을 것이다.

이와같이 논한 全榮來씨는 이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그는 9월 7일에 扶安을 出發한 一行이 興德·高敞·長城·光山·南平·綾州·寶城을 거쳐서 13일에 兆陽(??禮)에 到着하였다고 하지만 340里가 넘는 이 길은 662년말까지 新羅軍에 의하여 대부분 지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禮城」(데레재)를 新羅時代의 兆陽縣이며 百濟時代의 「冬老縣」으로 본다는 그의 견해에도 수긍하기 어려운것이다.

「冬老」(동로)를 半切하면「돌」은 되지만「델」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禮」(데레)를 半切하면「델」은 되지만 「돌」

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델재 」는 「 돌재 」가 아니며 「 돌재 」는 「 델재 」가 아닐 것이다.

이것이 成立할 수 없다면 「 牟?? 」를 南平으로 보고 「 枕服岐城 」을 康津으로 본다는 설도 成立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당시 扶安 · 古阜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新羅軍이었다면 高敞 · 長城에도 진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扶安 · 古阜까지 진격하여 포위하고 함락시킨 新羅軍이었다면 平野地帶의 그 루트가 그들에 의하여 막히지 않았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禮城은 忠淸南道 保寧郡의 藍浦城에 대한 本百濟時代의 호칭이었을 것이다. 本百濟時代의 寺浦라눈 表記를 景德王때에 개칭한바가 藍浦이며(8) 藍浦는 물론 伽藍浦의 생략이다. 그리고 寺의 古訓이「 델 」이며, 지금의 訓이 「 절 」이다.

寺 — 델 — 절 …… (韓)

데라 (テラ) …… (日)

寺는 日本語訓「 데라 」(テラ)는 寺에 대한 百濟語古訓이 「 델 」이었다는 反證이 되며 佛敎自体가 百濟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言語의 전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데 문제가 많은 ??禮城(데레재)는 「 델재 」로서 寺城이며 寺城의 浦口로서 寺浦 즉 藍浦의 古城址가 그 유적일 것이다.

다음에 「 진복기재 」(枕服岐城)는 廣州邑 廣城里 鳥首山北쪽 기슭에 위치한 진방이재 / 참방이재(俗稱)가 그것일 것이다.

그리고 「 牟?? 」(무데)는 鳥首山너머 南쪽 기슭 靑陽邑에서 化

城面을 거쳐 保寧郡 靑蘿面으로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마을이 현재「스무티」로 불리고 있는데 이 마을이 「牟??」(무데)일 것이다.

140년전에 간행한 全義邑誌(全義誌)에 「保寧水營二百里」라고 하였으니 全義부터 藍浦까지는 200里가 넘는 240里쯤이 될 것이다.

그리고 全義부터 藍浦까지는 廣德山과 武盛山 사이로 厲谷寺와 維鳩를 거쳐야 하고, 維鳩에서는 七甲山 사이를 걸어서 大川을 거쳐 藍浦로 가야 한다.

결국 左右로 海拔 400～500m의 車嶺의 巨脈과 700～800m의 巨峰사이 사이로 난 험준한 고개길을 오르내리며 걸어야하는 240～250m里의 길이니 6～7일이 걸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루트는 험준한 산골에 뚫린 것이니 그 당시 新羅軍에 의하여 막힐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廣川邑 廣城里 鳥首山 기슭의 진방이재=참방이재(俗稱)가 간직한 특수한 歷史性에 대하여는 따로 論及할 기회가 있겠지만 663년 9월 7일 에 周留城이 함락되자 先發隊는 진방이재(枕服岐城)로 출발하며 妻子들에게 일본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리고 11일 까지 鳥首山너머「스무티」로 집결하라는 전갈이 있었던 것으로 알며 그렇기 때문에 「스무티」 즉 「무데」(牟??)가 11일 이라는 日字와 함께 문제된 것으로 추측 되는 것이다.

결국 拙稿「燕岐周留城考証」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일본서기의 관계 기사에 의하여 周留城의 위치를 생각해 보아도 周留城은 海港에 가까운 韓山이나 扶安일 수 없고 西海의 海港에서 6일 내지 7일 의 行

程인 250里 쯤 떨어진 內陸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百濟末抗戰의 基地인 周留를 韓山은 물론 扶安으로 보지 않고 燕岐·全義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우리의 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金伊城에서 百濟大祭를 올리는 것이다. 金伊城이 根元的으로 百濟城이라는 認識과 함께 周留의 王城이었다는 認識을 바탕에 둔 것이지만 이와같은 認識에 착오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第 3 部

10. 金伊城과 高麗太朝廟

89년 公州師範大學博物館에서 金伊城을 조사하고 高麗때의 것인 기와편과 토기편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金伊城에서는 高麗때의 遺物만이 수습된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金伊城內에서 그들이 핏트를 판 지점에서는 高麗 때의 遺物만이 수습되었다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金伊城內 도처 地表에서 百濟 新羅 때 遺物이 수습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公州師範大學博物館에서 수습한 高麗 때의 기와편과 토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暫定的으로 다음과 같은 所見을 말하여 두고자 한다.

140년 전인 崇禎四甲寅六月(1854년 6월)에 刊行된 全義邑誌(全義誌) 古蹟篇의 첫머리에 〔○高麗太祖墓〕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高麗太祖墓〕라는 명칭만 전할 뿐 高麗太祖墓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다.

결국 이것은 全義에 高麗太祖墓가 있었지만 인멸된지 오래 되어 명칭만 전하고 있을 뿐 설명을 붙일 도리가 없어서 설명 없이 사실대로 명칭만 전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명칭만을 전할 뿐 자세한 것을 알 수 없게 된 高麗太祖墓는 全義의 어디에 있었을 것일까?

물론 인멸된지 오래 되고 그 후 아무런 것도 전하는 것이 없으니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없지만 最近에 燕岐鄕土史硏究所의 硏究委員 丁海永 · 鄭興錫 · 金正賢씨에 의하여 金城內(이번 公州師大博

物館에서 핏트를 설치한 지점에서 3m떨어진 지점)에서 기와무덤을 발견하고 그 기와무덤 속에서 「大平」이라는 글씨가 浮刻된 기와편과 함께 극히 優秀한 高麗磁器片을 수습하고, 한편 金伊城과 가까운 鵲城아래 雲霑等址의 기와무덤 속에서 「王」字가 浮刻된 기와편과 함께 둥근한 圓型안에 蓮花무늬를 浮刻한 기와편을 수습하고 또한 年號를 지우고 〈三月初六日〉만을 浮刻한 기와편을 수습한 일이 있다.

그런데 기와편에 浮刻된 「王」字는 극히 세련되고 美麗한 隸書体로써 정성을 다하여 써서 浮刻한 흔적이 확실히 엿보이고, 「蓮花무늬」는 年前에 尹武炳敎授팀에 의하여 開泰等址에서 수습되어 「개태사삼존서불전창건기단조사보고」에서 고개한 것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9)

金伊城에서 수습된 기와편에 부각된 「大平」에 대하여서는 다른 뜻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高麗朝에서 宋의 年代를 쓰기 시작한 것은4大光宗14년(963)부터이며 宋에서 「太平興國」의 年號를 쓴 것은 宋太宗元년(976)부터 8년(983)까지였으니 이 기와편도 그 연대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같다.

또한 雲霑寺址 서 수습된 기와편에 부각된 「三月初六月」의 위에 분명히 年號를 썼다가 入窯단계에서 지워버린 흔적이 남아 있으니 혹은 宋의 年號를 浮刻하는데 대한 瓦工의 저항 같은 것을 엿 볼수도 있을것 같다.

이와같이 年月日을 浮刻한 기와편과 함께 기와편에 浮刻된 「王」字가 지극한 정성으로 다듬어 쓴 美麗한 隸書体인점. 그리고 國

立寺院인 開泰寺에서와 같은 圓型 속에 蓮花무늬를 浮刻한 기와편으로 보아서 雲霑寺가 高麗 때의 王室寺院이었고 이 王室寺院과 함께 金伊山에 高麗太祖墓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와같은 뜻을 前에도 적은 바 있지만 雲霑寺는 오랜 歲月에 서서히 퇴락하여 廢寺가 된 것이 아니라 朝鮮墓에 들어서 어느 시기엔가 일시에 낭자하게 파기되고 高麗太祖墓도 일시에 燒却당하여 없어진 흔적이 역력하다고 할 것이다. 金伊山城에서 수습되는 高麗 때 기와편이 잿더미 속에서 수습되는 것은 그 때문이며 雲霑寺址가 몹시 어지럽고 塔의 基壇部등 石材치고 메에맞은 자국을 갖지 않은 것이 거의 없는 점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조사가 있기 전의 暫定的인 所見임을 거듭 밝혀두는 바이다.

끝으로 이번 公州師大博物館이 金伊城內에 핏트를 마련하고 高麗 때 기와편을 수습했다는 지점이 高麗太祖墓가 있었다고 우리가 推測하고 있는 지점임을 參考삼아 附記한다.

註

(1)「百濟城址와 文獻資料」(「百濟硏究」제 17집)P 103

(2)「全義地域古代山城」公州師大博物館

(3) 금재 / 금이재 / 그미재의 變遷

(4)「韓國史」(古代篇)P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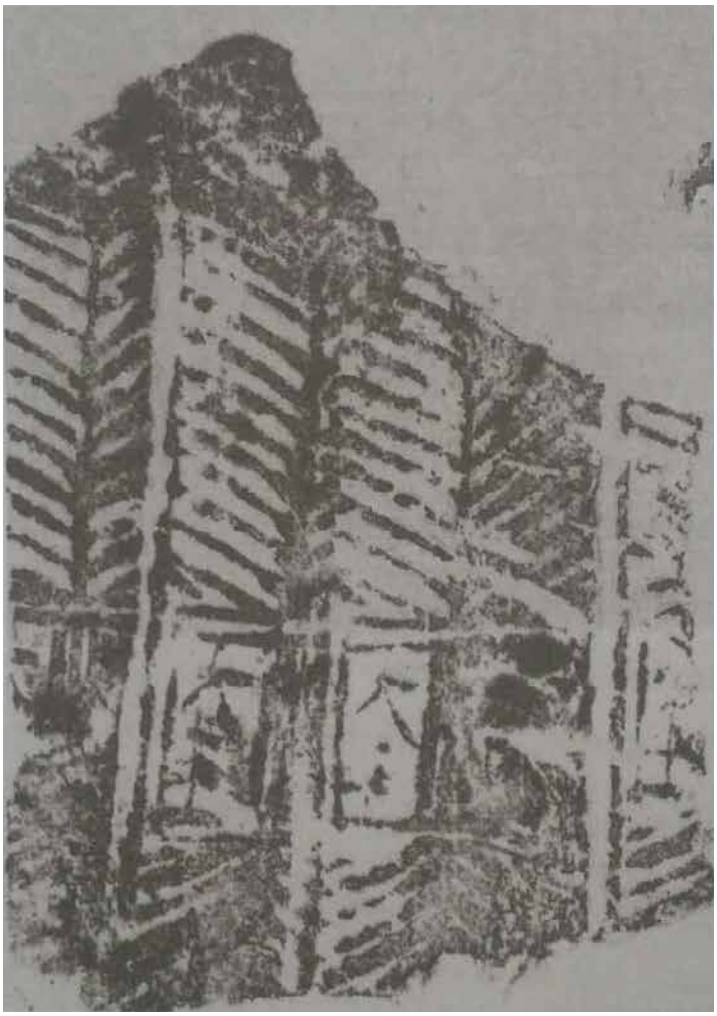
(5) 同 P 228

(6)「蛇山城一圓의 歷史的 背景」(「百濟硏究」제 17집)P 296

(7)「周留城 · 白江位置比定에 관한 新硏究」
(韓國文化財保護協會全羅北道支部 · 扶安郡)

(8)「西林郡. 本百濟舌林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
藍浦縣, 本百濟寺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庇仁縣. 本百濟比象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地理三 熊州)

(9)「百濟硏究」제 17집 P 235 參照
〔補註〕李丙燾博士「三國史記」乙西文化社刊上卷87P㉘dp 「全義郡에 〈金城山〉〈金伊城〉등의 城址가 있으므로 그곳에 比定」이라고 하여 金峴城을 金伊山城에 比定하였다.



金伊城 出土 瓦片「大平」年号陽刻

雲霑寺址 出土 瓦片 「年三月初六日」字 陽刻

燕岐地域　古代山城

1. 雲住山城

公州師範大學 博物館

a. 記錄檢討

雲住山城은 全義面 所在地에서 東으로 4㎞의 거리를 두고 있는 全東面 靑松里 後山 標高 459m의 雲住山을 중심으로 築城된 古代山城으로 둘레가 무려 3210m의 대규모 外城인 石城과 함께 이 石城內에 1230m의 土築으로 된 內城이 있는 城이다. 이 雲住山城은 많은 記錄에 보이고 있는데, 우선 그 내용부터 검토해 보겠다.

먼저 城이 築造되어 있는 雲住山名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불리고 있는 雲住山이란 名稱은 現位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東國輿地勝覽에 雲住山이 縣南 十里에 위치하고 있는 山으로 보고 있으며, 大東地志도 같은 내용을 보인다. 그러나 輿地圖書나 忠淸道邑誌에서는 雲住山이 縣東八里에 있는 것으로 記錄되고 있어 오늘날의 雲住山 位置와 一致하고 있는 바, 이는 東國輿地勝覽이나 大東地志의 雲住山은 오늘날의 작성산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대신 雲住山은 高山으로 表記되고 있다.

史書에 나타난 雲住山城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高山山城:石築周五千一百三十二尺內有三井今廢(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八 全義縣, 古跡條)

○縣東十里許古有雲住山城今廢久今只有形址(輿地圖書 卷六 忠淸道 全義 城地條)

○高山山城 東八里周五千一百三十二尺井三

(大東地志 卷五 全義 城地條)

○雲住山城 在雲住山上曾置全城府使時設邑治於此云今廢 只有形址(忠淸道邑誌 二十四 全義縣 城地條)

이상의 記錄內容에 의거하면 雲住山城의 故名은 高山山城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縣에서 東으로 8里의 거리에 있으며 둘레가 5132尺의 石築山城으로 城內에는 우물이 3個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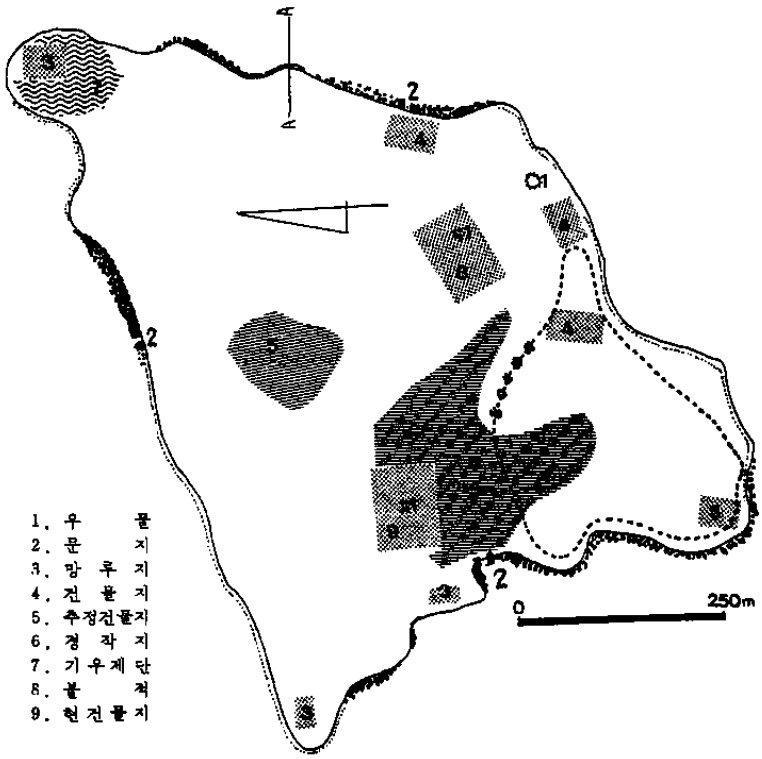
더불어 忠淸道邑誌에서는 雲住山城이 일찌기 全義에 全城府使가 설치되었을때 邑治所가 두어졌음을 記錄하고 있는바 이는 高麗時代의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邑誌의 山川條에 의하면 雲住山을 설명하면서 "……境內有祈雨祭壇"이라 적고 있어 邑誌가 편찬될 시기의 이전에 雲住山內에 祈雨祭를 지내는 시설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요컨데 文獻記錄에 雲住山城이 처음 보이는 것은 東國輿地勝覽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廢城된 것임을 전하고 있어 城의 폐쇄는 16C보다 훨씬 이전 이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記錄에서는 城의 築城時期等의 내용은 確認할 길이 없다.

그러나 城의 규모가 5千餘尺에 이르는 대규모였던 것을 감안할 때 그 비중 또한 대단하였음을 짐작케 하였다.

b. 雲住山城 現況

雲住山은 燕岐郡 全義면의 東方, 天源郡 城南面의 南方에 자리한 큰산의 중앙에 위치한 最高峰으로 車嶺山脈의 東端部 末端에 위치한 形局인데 雲住山의 西南으로는 山陵이 광활하게 전개되나 北, 東으로는 雲住山보다 낮은 山과 平野地가 펼쳐지고 있어 南部地域



雲 住 山 城 平 面 圖

에서 北쪽을 향한 最前方에 해당하는 산이다.

雲住山 주변은 南으로 國師峰, 西에 高麗山, 東으로 淸州의 東林山이 자리하고 있으나 東林山을 除外하고는 雲住山보다 낮은 산으로 雲住山 자체가 작은 小丘陵을 거느린 상태이다.

城이 築造되어 있는 지역의 地形은 標高 460m의 雲住山 頂上을 기점으로 西로 900m 거리를 둔 365m, 西南으로 950m거리에 있는 標高 360m의 3個 봉우리를 감싼 형태인데, 이 3個의 봉우리 사이에는 山谷에 의지해 形成된 田畓이 넓게 자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3個의 山峰에서 발기된 少陵이 山峰을 이루면서 곳곳에 돌기되어 있다.

결국 雲住山을 中心으로 築城된 山城은 3個의 山峰을 감싸면서 삼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써 城內에 포용된 面積은 約 30萬 ㎡에 이르고 있다.

城의 築造方式은 石築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地形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築造方式은 城外面을 築石하고 後面은 城內 흙을 밀어 복토하는, 즉 片築式이 基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공통적인 모습은 아니고 지형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雲住山城은 地形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우선은 石築城으로 築造方式은 片築의 形態를 이루고 있다고 정의 될 수 있겠다.

한편 原形을 유지하고 있는 지점에서 確認되는 築城狀態는 매우 整然한 모습이 발견된다. 東壁의 中間地點에서 確認되는 石築은 割石을 사용하였지만 外面은 약간 정제하여 벽돌형태를 이루게 하였으며, 이로써 築造된 城 外面은 매우 고른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城의 殘存狀態를 區間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城의 北壁 즉 雲住山을 기점으로 頂上에서 서쪽으로 뻗은 약 300m城은 산의 내리막 사면에 石築으로 築造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標高 420m높이의 山峰이 東西로 길게 드리운 丘陵의 頂上部에서 약간 밖으로 쳐져 築造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丘陵의 頂上 線上部에 설치된 城은 石材가 거의 外見되지 않고 있으며 切開된 지역에서도 土築만 確認되는 바 이 지역의 약 600m 범위는 地形에 의지하여 土城의 形態로 城이 築造된 것으로 여겨진다.

城의 西側 城壁은 雲住山 頂上部에서 발기된 산줄기가 西向하는 것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城의 西北隅에서 南으로 350m범위는 포곡형의 형태를 취하고 ldTsmsep 이로 말미암아 城線도 굴곡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西側城壁의 南半部는 城南隅의 標高 350m 山峰자락 테뫼형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 부분의 殘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城의 東南쪽 城線은 雲住山 頂上에서 南쪽으로 이어지는 山峰의 東向斜面에 잇대어 築造된 형태인데 雲住山 頂上과 南隅의 사이에 있는 4個의 山峰을 감싸고 있다. 더불어 이부분은 城의 殘存形態가 北半部는 石築의 原形을 남긴곳도 있지만 南半部는 城線은 비교적 뚜렷하나 石築이 外見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나 城의 內壕形態는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城廓의 施設物로는 3個의 門址가 確認된다. 이들 門址는 西, 南, 北壁의 중간지점에 1個씩 서릊되어 있는 것이 確認되는데 城

의 붕괴에 의해 그 形態는 자세하지 않다.

城內 施設物로 外見되는 것은 전혀 없으나 城內의 平地 및 丘陵간에 大小의 臺址가 造營되어 있어 이곳에 많은 建物이 있었을 것으로 推定되며 특히 城중앙의 東側에는 매우 늦은시기까지 佛舍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雲住山 頂上部에는 지름 30여m의 원형대지가 造成되어 있고, 이 臺地의 下端은 層段을 이루면서 建物址 形態의 臺址가 남아 있는바 이곳은 祈雨祭壇이 위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雲住山城의 城廓과 城內 施設外에 城의 南端에는 內城의 形態로 土築城이 남아 있는데 그 길이는 총 1230m이다. 이 土城은 산사면에 협축의 형태로 築造되어 있는데, 低邊지름은 3～3.5m이고 高 는 가장 양호한 곳이 1.7m 높이를 보인다.

土築城이 築造된 곳은 雲住山城의 南端 標高 360m山峰을 中心으로 하며, 이 山峰에서 東北으로 250m거리에 있는 標高 362m山峰을 연결되면서 세모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土築의 內城은 北壁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이 外城인 石築城과 나란히 築造되어 있는데 外城에서 10～15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이 內城인 土築城과 관련된 施設은 별로 없고 다만 北壁의 중간부에 城上에 石叢形態로 지름 1.2～1.4m의 石築이 14～17m간격으로 5 지점이 確認되고 있는데, 그 性格은 알 수 없다.

결국 雲住城은 현재의 상태로는 內城인 土築城과 外城인 石城이 합쳐져 二重城의 形式처럼 보이나 土築城의 절단면에서 收拾되는 建物에 의하면 土築城은 後代에 築造된 것으로 外城과는 時代差

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C. 城內 收拾遺物

雲住山城內에서 收拾되는 建物은 기와편, 토기편과 그리고 일부의 磁器片이 보이는데, 이중 磁器片은 白磁이다.

기와편은 地表面에 收拾되는 것으로 百濟時代의 것과 함께 高麗時代, 朝鮮時代의 것이 보인다. 이중 朝鮮時代의 기와편은 雲住山頂上部 즉 祈雨祭壇이 위치했던 곳에 집중적으로 分布되어 있으며, 佛舍地域에서도 散見된다.

그러나 高麗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편은 城內의 田畓地와 內城形態로 남아 있는 土城址 주변에 집중적으로 산포되어 있다.

한편 성곽내의 遺物收拾을 위해 城東壁의 門址後面에 위치한 建物址에서 피트를 설치하여기와편을 채집하였다. 이 피트는 表土層과 建物의 基壇土上의 두개의 유물포함층으로 구성되었는데 上層의 表土層에서는 高麗時代의 기와편이, 아래층에서는 百濟時代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建物基壇의 아래층에서 출토된 百濟時代 기와편은 적갈색, 회갈색, 흑회색의 색조를 지니고 있으며, 胎土는 약간 거친것도 있으나 비교적 정선된 것이다. 背面의 文樣은 無文이 中心을 이루고 있지만 無文과 線條文이 발견되며, 이중 線條文이 재연마에 의해 지워진 것도 있다.

高麗時代의 기와편은 表面層에서 收拾되는 것과 비슷한데 背面에 魚骨文이 가늘게 施文된 것이 많으며, 때로는 方格文도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임을 나타낸다. 土器片은 百濟時代에 속하는 것과 高麗時代에 속하는 것등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2. 邑內里　山城

이 山城은 全義面 所在地인 西北쪽 즉 全義鄕校 뒷편의 나즈막한 丘陵에 築造되어 있는 성이다.

城이 築造된 丘陵의 地形은 城南側面에서 南으로 길게 뻗어내린 丘陵의 南端에 해당하는데 標高는 100m內外로 주변의 山地보다는 낮게 자리한 盆地形態이다. 城은 이 丘陵의 南端에 築造된바 鄕校 뒷산인 標高 101m山峰을 감싸고 이 山城에서 西北으로 200m 가량 떨어진 표고 112m의 山峰을 지났는데 築造方式은 城 東側을 制外한 南 · 西쪽은 片築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北쪽은 俠築의 형태가 발견되며 城의 총길이의 800여m로 計測된다. 그런데 城길이는 城의 西北端에서 殘存狀態가 불명하여 이보다 크게 計測될 수도 있다.

城은 댑분 土築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 의하면 北壁의 110m가량이 협축형태의 壁體를 남기고 있는데 높이는 1.8～2.3m가량이며, 저변너비 약 3.5m, 상면너비 약 1.7m이지만 地域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더불어 이 城壁의 內 · 外는 경작지, 民墓의 造成에 의해 削土된 것으로 여겨져 본래 城의 모습이라 보기는 어렵다. 東壁은 山谷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가로지르는 형태인데 城壁이 발의 뚝형태로 남아 있어 규모는 자세하지 않으나 片築의 형태로 보아지며, 특히 山谷에 의해 切土된 지점은 流失이 이루어졌다. 이외 南 · 西方向은 대체로 丘陵의 충턱부를 지나는 형태로 片築으로 이루어져 있다.

城과 관련된 施設은 찾기가 힘들다. 이는 이미 城자체의 파괴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다만 城의 東側에 門址의 존재가 예측되나 자세하지는 않으며, 城內에서도 발견되는 遺跡은 없다.

城內에서는 기와편, 토기편, 자기편등이 광범위하게 分布되어 있어 城內에 일정한 施設이 있었던 것이 추측된다. 이들 收拾된 遺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와편은 대체로 城內의 東半部에 散布되어 있는데 散布된 量이 무척 많다. 더불어 이들 瓦片은 城內 밭의 경작에 따라 集積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견, 收拾되는 瓦片은 胎土는 매우 거칠고 모래가 섞인 것이 많으며 특히 기와의 두께가 1.5～2㎝ 가량되는 것이 많다. 표면의 문양은 格字文이 있는 것, 無文인것, 가는 線文이 있는 것이 散見되나 대체로 魚骨文이 中心을 이루고 있으며, 魚骨文의 경우도 여러가지 文樣이 組合된 것이 發見되고 있다. 더불어 수키와는 언강을 形成한 것이 대부분이며, 古式인 토시형태는 발견되지 않는다.

土器片은 대부분 片이어서 그 性格의 確認은 어려우나 대체로 胎土가 곱고 燒成度가 높은 것이지만 片의 대부분은 大形의 甕으로 口綠에 덧띠가 있고 波線이 돌려진 것이며, 더불어 片의 內面에도 施文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土器片중에는 牛角形의 把手片이 발견되고 있으며 灰靑色에 繩席文이 施文된 土器片도 발견되는바 이들 土器片은 百濟時代의 특징을 보인다.

이외 城內에서는 靑磁片과 함께 白磁片도 散見되고 있다.

以上의 內容으로 미루어 邑內里山城의 築造는 百濟時代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이는 城內에서 百濟土器片이 발견되고 있고,

城의 築造形態가 百濟的 特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城은 百濟時代에 築造된 후 以後의 時代에도 계속 修築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城內에서 發見되는 瓦片중 상당부분이 高麗時代로 編年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3. 李　　城

李城은 全義면 所在地에서 南으로 2㎞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全義面 芧芳里로, 이城은 李城이란 명칭외에 芧芳里山城이라 부르기도 한다.

地形은 표고 400m정도의 높이를 지닌 金城山 줄기가 北向하다가 全義面 일대에 形成된 平地가까이에서 끝나는 北端部에 해당하는데 城이 築造된 山의 높이는 標高 229m로 이 山의 頂上部를 감싸면서 테뫼형으로 築造된 石築山城이다.

城의 총둘레는 510m로 計測된다. 城의 殘存狀態는 붕괴된 모습만 발견될 뿐 본래의 築石狀態를 確認할 수가 없다. 더우기 城壁上에는 雜木이 우거져 있기도 하여 實態의 파악이 더욱 어려운바 대체로 城은 片築法에 의해 築造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붕괴된 상태로 人爲的 築石 및 盛土의 범위는 6～8m로 계측되고 있다. 특히 城은 北高 南底 形으로 되어 있는데 北端에는 城內面에 內壕의 形態가 남아 있는바 內壕의 너비는 4～5m로 계측되며, 깊이는 現存狀態로 약 1m미만의 규모이다.

城과 관련된 施設은 西南쪽 城壁에 門址의 형태가 있으나 자세

하지는 않다. 城內에는 平地로서 遺址가 있기는 하지만 城內의 桑田造成에 의해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한편 城內에서는 많은 기와편이 收拾되었다. 그런데 이 기와편들은 모두 古式에 속하는 것이어서 주모된다. 즉 收拾된 기외편은 태토가 거칠고 많은 모래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文樣이 굵은 線條文과 재연마에 의해 이 線條文을 지운것, 그리고 無文이 中心을 이루고 있는데 後代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편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수키와에서는 토시형이 발견되는등 이들 기와편은 대체로 百濟의 末期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李城은 現存 城의 形態와 城內에서 收拾된 기와편으로 미루어 百濟時代에 築造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이 城은 文獻記錄 에서도 찾아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李城에 대한 記錄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다. 同文獻의 卷之十八 古跡條에 나타난 李城은

在雲住山北峰石築世傳李棹居其中寬敞

周一千一百八十四尺內有一井今廢

라 하여 雲住山 즉 지금의 작성산 북쪽에 石築城으로 남아 있으며 高麗初期 人物인 李棹이란 사람이 이제 거주하였다는 것과 둘레가 1184尺이고 城內에 우물이 하나 있었으나, 13C에 이미 城은 廢城된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忠淸道邑誌 24全義縣에 있는 城池條에는 李城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在李城山上山頂平廣中有平壇麗朝太師

李棹所居遺基嘗於增之南北各置一亭冬

則居南夏則居北亭云

이로 보면 李城의 城內에는 亭址가 있던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이의 존재는 찾아지지 않으며 단지 城頂上에 李太師의 遺虛碑만 남아 있을 뿐이다.

4. 甑土山城

이 山城은 全義面 高登里 後山인 標高 248*m* 山頂에 築造되어 있는 城이나 山頂에 들어선 特殊施設로 말미암아 城跡을 確認할 수는 없다. 다만 城에 대한 記錄이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忠淸道邑誌에 남아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東國輿地勝覽의 경우 甑山이 全義의 鎭山으로 보면서 城에 대해서는 在縣西北五里 石築周九百三十二尺內有一井今廢라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城에 관한 內容은 大東地志에서도 同一한 모습이다. 이로보면 甑山城은 둘레가 932尺의 石築山城이며 城內에 우물이 1개 있음을 傳하는바 城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李城과 비슷할 것으로 보아진다.

5. 高麗山城

高麗山은 全義面에서 北으로 6*㎞*의 거리를 둔 高登里에 위치한 標高 307*m*의 높이를 지닌 산이다. 이 山의 山頂에는 둘레 250*m*의 테뫼형 山城이 둘려져 있는데 外見으로는 土築처럼 보이나

土築內에 많은 石材가 보이고 있다.

城의 形態는 山頂部에 비교적 넓은 臺地가 形成되어 있고 山頂 외곽을 片築형태로 除土하여 城壁을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形成된 城壁은 外部에서 약 3m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퇴락 및 유실에 의해서 일정하지는 않다.

한천 城內에는 臺址上 에서 기와편은 발견되지 않으나 土器片이 다수 수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土器片은 古式은 별로 보이지 않고 統一新羅에서 高麗時代의 것이 대부분임이 주목된다.

이 高麗山城은 文獻記錄에서는 城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高麗山에 대한 記錄과 함께 忠淸道邑誌에서 “在縣北十三里 上有祈雨祭壇”이라 하고 있어 城으로서의 認識보다는 祈雨祭壇이 位置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6. 작성산성

작성산은 全義面에서 南으로 3.5㎞지점의 松城里 뒷산인데 標高 330餘m의 높이를 지니고 있다.

山頂에 설치된 遺構는 城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규모가 작다. 山頂에 설치된 시설은 7.8m×6.2m의 불규칙한 長方形의 형태로 5段內外의 石築에 의해 墓를 꾸민 형태로 남아 있다. 더불어 山의 주변에는 石材의 채취장은 있으나 이 山頂의 方形石築臺 이외에는 城으로 인정할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山頂의 시설로 미루어 작성산에 설치된 施設은 城으

으로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施設의 南쪽 2.5㎞거리에 있는 金城山의 山城과 관련된 시설로 여겨진다.

그러나 忠淸道邑誌의 全義縣 山川條에 의하면 李城山과 鐵城山(金城山) 사이에 雲霑山을 記錄하면서 "一名鵲城在縣南八里 邑治對案上有 祈雨祭壇"이라 적고 있다. 물론 거리에 있어서 雲霑山도 南八里라 하고 李城山도 南八里라 하여 혼동은 있으나 雲霑山과 李城山은 명백히 區分된다. 雲霑山이 현재의 작성산으로 볼 수 있는바 記錄內容대로라면 鵲城이라는 城施設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祈雨祭壇이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작성산은 현재 남겨진 유적으로 미루어 이것이 祈雨祭壇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城施設은 이 祭壇以前의 것으로 보아야 하나, 獨立된 城은 아닌 것이라고 여겨진다.

7. 松　　城

松城이라 불리는 遺蹟은 全義面 事務所에서 南으로 7㎞ 지점, 金城山에서 南으로 2.5㎞지점인 達田里 後山 표고 383m의 山頂에 위치하고 있다.

自然割石으로 둥그렇게 築造된 이 遺蹟은 둘레가 66m에 불과하며 臺址의 중앙에 民墓 1基가 위치하고 있을뿐 遺構나 遺物은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의 잔존상태는 流失에 의해 퇴락이 매우 심한 형편인데 다만 臺址의 造營모습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遺蹟은 記錄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그 규모나 형태로 보아 獨立된 城施設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本 圖書는 政府 및 燕岐郡으로부터 出版費 一部와 鳥致院信用協同組合의 支援을 받아 發刊되었습니다.

鄕土史料第六輯

1990年 12月 10日 印刷
1990年 12月 20日 發行

發行處 : 鳥致院文化院
發行人 : 李 基 鳳
印刷處 : 合同印刷社

非賣品